

신흥망(申弘望) 영남 문집(嶺南 文集)

정의

조선후기 풍기군수, 사헌부지평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본관은 아주(鵝洲). 자는 망구(望久), 호는 고송(孤松). 신응규(申應奎)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신몽득(申夢得)이고, 아버지는 승지 신지제(申之梯)이며, 어머니는 조지(趙址)의 딸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1627년(인조 5) 진사시에 합격하고 참봉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1639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주서·지평·정언·풍기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1652년(효종 3) 사헌부지평으로 있을 때 도승지 이시매(李時樸)가 자못 패만(悖慢)한 것을 지평 이온발(李溫發)이 상주(上奏)하다가 탄핵을 당하였는데, 이 때 이시매는 자기의 밝음을 선현을 이끌어 증명하려 하였다.

이를 듣고서 직접 그 소(疏)를 보니 실로 모욕적이어서 이를 단독으로 왕에게 진달하였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 당론을 타파하고자 하는 마당에 호당(護黨)한다 하여 탄핵을 받고 벽동(碧潼)으로 유배되었다가 두달 뒤 풀려났다.

1659년 풍기군수로 나갈 때 읍재(邑宰)가 연달아 관청에서 죽자, "내가 그 자리에 나가지 않고서는 요망스러운 말을 없앨 수 없다."하고 부임한 뒤, 학교를 일으키고 교육에 힘썼다.

저서로는 『고송집(孤松集)』이 있다.

갈암집(葛庵集) 이현일(李玄逸)

이동환(李東勸) 고려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1. 국역의 대본에 대하여

이 책은 17세기 우리 나라의 도학자(道學者)이자 정치가인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의 문집인 《갈암집(葛庵集)》을 국역한 것이다.

《갈암집》은 본집(本集) 29권, 별집(別集) 6권, 부록(附錄) 5권, 속집(續集) 4권 그리고 《계축추보(癸丑追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국역서는 이를 완역하고, 유관 문헌인 《성유록(聖諭錄)》과 《기갑신계록(己甲辛癸錄)》까지 국역하여 첨보(添補)한 것이다.

《갈암집》은 1810년경에 처음으로 간행되었다. 그러나 저자 갈암이 숙종조(肅宗朝) 당쟁의 희생자로 명의죄인(名義罪人)이 되어 있었던 터라 당시 집권 세력에 의해 분서(焚書) 당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 초간본은 현재 전존되고 있는 것을 찾을 길이 없어 그 체제며 분량을 알 수가 없다. 다만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귀중본으로 분류되어 있는 목록 1권, 본집 19권, 별집 2권, 부록 2권으로 되어 있는 필사본 《갈암집》이 초간본의 저본(底本)이 아니었던가 추측해 볼 수 있을 따름이다.

두번째로 간행된 것은 1908년 갈암의 신원(伸冤) 문제가 최종적으로 결말이 나 관작과 시호가 회복되고 난 이듬해인 1909년이다. 이 중간본은 목록 외에 본집 29권, 별집 6권, 부록 5권의 체제로 되어 있다. 이 중간본이 간행되고 난 뒤, 1912년경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속집 4권이 간행되었고, 1973년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계축추보》가 마지막으로 발간되었다.

그러니까 이 국역서의 대본은 1909년의 중간본과 그 이후의 속집 및 《계축추보》이고, 이 이외에 달리 이본(異本)이 있지 않다.

초간본에 대한 분서(焚書)의 수난을 겪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계축추보》까지의 현행 《갈암집》은 그 원고들이 비교적 잘 전존·인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그 아들 밀암(密庵) 이재(李裁)가 갈암의 생전에서부터 부친의 원고를 잘 수습·정리해 왔고, 또 그 후손들이 그것을 비교적 잘 보존해 온 결과다.

그러나 애석한 것은 갈암의 특히 중요한 저작 중의 한 가지인 정설(政說) 8조 중 5조가 허물어져 없어지고 3조만 중간본에 올라 있다는 사실이다. 양적으로도 현행 중간본의 쪽으로 대략 15쪽이나 되지만 무엇보다 그 내용이 '민은(民隱)'에 대처하기 위한 '치도(治道)'라는 점에서 더욱 애석해 마지않을 일이다. 3조의 내용이나 중간본에 올라 있어 여기에 의거하여 그 내용 전반의 성격을 알 수 있게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하겠다.

이런 점에서 이 《갈암집》은 갈암의 사유(思惟)·정신(精神)의 궤적(軌跡)이 큰 결실(缺失) 없이 담겨 있는 책이라 할 만하다.

갈암에게는 문집 외에도 그 중형(仲兄)인 존재(存齋) 이휘일(李徽逸)과 함께 편(編)한 《홍범연의(洪範衍義)》를 위시하여 《어제주수도설발휘(御製舟水圖說發揮)》, 《돈전최어(惇典粹語)》, 《충절록

(忠節錄), 《영모록(永慕錄)》, 《신편팔진도설(新編八陣圖說)》등의 편저서가 있다. - 이 중 일부는 그 현존이 확인되지 않는다. -

2. 갈암의 생애와 학파적(學派的) 위치

1) 생애

(1) 가계(家系)

갈암 이현일은 1627 년(인조 5) 영해부(寧海府) 인량리(仁良里)에서 태어나서 1704 년(숙종 30) 안동 임하현(臨河縣) 금양(錦陽)에서 돌아가니 향년이 78 세였다. 본관은 재령(載寧), 자는 익승(翼昇)인데, 아호로는 갈암 외에 남악(南嶽)으로 불려지기도 했다.

갈암의 가계는 재령 이씨(載寧李氏) 영해파(寧海派)로서, 그는 영해 입향조(入鄕祖)인 현령 이애(李瑗)의 현손으로, 참봉 이시명(李時明)의 셋째 아들이다. 이애는 세조·성종 연간의 경화(京華) 명환(名宦)의 한 사람이었던 이맹현(李孟賢)의 여섯째 아들로써 16 세기 초 숙부 이중현(李仲賢)의 임지를 따라와 영해부의 대성(大姓) 진보 백씨(眞寶白氏)에게 장가들어 그 곳에 정착하게 된 사람이다.

영해부는 일정하게 발달한 평야를 가진 해읍(海邑)으로서 해륙 물산(海陸物產)이 풍부하여 자연 경제(自然經濟) 시대인 당시에서는 경제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곳이었다. 여기에 북쪽으로 울진·삼척·강릉 지방, 남쪽으로 영덕·영일·경주 지방, 서쪽으로 청송·안동 지방으로 통하는, 동해안의 요지로서의 이점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지리적 여건은 곧 사회·문화적 수준의 상대적 선진(先進) 가능성이기도 하다. 고려 고종 이래 이 곳 토성(土姓)의 하나인 박씨(朴氏)의 성장과 중앙 정계 진출 - 위사공신(衛社功臣) 박송비(朴松庇), 좌복야(左僕射) 박득주(朴得珠), 전법판서(典法判書) 박원계(朴元桂) 등 -, 이곡(李穀)의 이 곳 김씨가(金氏家)에로의 혼취(婚娶), 그리고 불교 시대에 있어 나옹(懶翁)과 같은 명승(名僧)의 배출 같은 것이 그 가능 여건이 실현된 단적인 사례들이다. 특히 여말 이래로 이 곳의 사회·문화적 수준은 더욱 향상·확대되었고,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다한 사족(士族) 가문의 공재(共在)는 사회·문화적 지위에 대한 선의의 경쟁 기풍을 빚어내어 갔다.

무과(武科)를 거쳐 함창·무안·울진 현령 및 경주 판관을 역임하다가 신병으로 가거(家居)하게 된 이애는 처음에는 경가(京家)로 돌아갈 계획이었으나 나중에는 그 곳에다 자손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는데, 경화(京華)의 안목·감각·의식에 통하고 있었던 이 이씨 가정은 그 곳의 위와 같은 지역적 특성 위에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여 곧바로 그 지역의 명가(名家)로 성장해 갔다. 즉 이애의 아들 이은보(李殷輔)를 거쳐 그 아들 이함(李涵)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문과(文科)에 오르게 되는 한편, 5 남 2 녀로 손세(孫勢)가 번성하고 그 곳 영해와 안동·예안의 사족 명가와 결인(結姻)하여 사회적 입지가 더욱 상승해 갔다. 그는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 형제와도 인척간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짝하여 문화 역량도 두텁게 축적되어 갔다. 그 아호가 운악(雲嶽)인 이함이 다량의 서적을 수장한 '만권서루(萬卷書樓)'를 둔 사실이 이 시기 이씨 가문의 문화 역량과 그 역량

상승에의 의지를 잘 징표해 준다. 아울러 당시 이 이씨 가문이 영해 지역의 문화 역량을 선도(先導)해 가는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씨 가문 자체의 조건 위에 특히 이함의 셋째 아들, 즉 갈암의 부친인 석계(石溪) 이시명이 전취로는 예안의 광산 김씨(光山金氏) 근시재(近始齋) 김해(金垓)의 사위가 되었고, 후취로는 안동의 안동 장씨(安東張氏) 경당(敬堂) 장흥효(張興孝)의 사위가 된 것이 이씨 가문의 문화와 학문적 역량의 비약적 상승의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서 경당에게는 석계가 사위이기 이전에 그 제자였기도 했지만 경당의 학문 역량을 잠재적으로 전수해 가졌던 그 따님이 석계의 부인, 곧 갈암 형제의 모부인이 된 사실이 그 비약적 상승의 더욱 중요한 변수(變數)로 작용했다.

(2) 생평(生平)

갈암의 생평은 대개 다섯 시기로 나누어 보는 것이 그 이해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첫째 시기는 출생~22 세까지(1627~1648)다. 당시 교육의 기초 과정을 학습하고 학문의 기초 역량을 구축해 나갔다.

갈암에게는 외부(外傳)가 없었다. 원천적으로 외부를 둘 필요가 없었다. 모부인 장씨의 세심한 교회(教誨)에 뒷받침 받으며 부친 석계와 중형 존재에게서 기초 과정을 수학하고 학문 역량을 길러 갔다. 9 세에 《십구사략(十九史略)》, 12 세에 《소학(小學)》, 13 세에 《논어(論語)》를 수학했다. 11 세에 석계에게 하도(河圖)·낙서(洛書)에 관해 질의하고, 12 세에 천지를 표상하는 방원도(方圓圖)를 그리고, 13 세에 태극에서 64 괘까지의 생출(生出) 차례를 그리고 원회(元會)의 수에 관해 설명한 것 등의 사실은 이 소년기의 수학도 단순히 몽학(蒙學)으로만 한정지을 수 없는 면이 있음을 말해 준다. 뿐만 아니라 당시 대륙에서 진행되고 있는 명(明)·청(淸) 교체 과정의 정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서, 9 세 때 형 존재가 그 포부를 물었더니 '원수(元帥)가 되어 오랑캐를 소탕하고 요동(遼東)을 수복하는 일'이라 답하고, 10 세 때 남한산성이 포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창 앞에 매화나무 네 그루, 황혼 달을 향해 피었네. 이 꽃 아래에서 술을 마시고 싶었는데, 오랑캐 놈들이 성궐을 에워쌌다네.[窓前四梅樹 開向黃昏月 欲飲花下酒 奴賊圍城闕]"라고 시를 읊기도 했다. 그리고 14 세 때에는 《손오병법(孫吳兵法)》·《무경(武經)》·《장감(將鑑)》등의 책들을 구해 읽고, 15, 6 세 때에는 실제로 마을의 또래들을 모아 진법(陣法) 연습을 하기도 했다. 18 세에 같은 지역의 명문 무안 박씨(務安朴氏) 집안의 규수, 곧 박의장(朴毅長)의 손녀를 부인으로 맞았다. 같은 해에 명(明) 승정제(崇禎帝)의 순사(殉死) 소식을 듣고 통분으로 침식을 제대로 못했다. 그리고 이 해 세제(歲除)에 자경잠(自警箴) 5 편, 즉 계태타(戒怠惰)·계희완(戒戲玩)·계부전(戒不專)·계언동(戒言動)·계금대(戒矜大)를 지어 학문에의 자세를 가다듬었다.

20 세에 아버지의 명으로 서울에 가서 응시, 대책(對策)으로 소과(小科)에 합격했으나 시제(試題)가 시회(時諱)를 범했다 해서 파방(罷榜)되었다. 22 세에 회시(會試)에 낙방하자 과거를 일단 단념했다. 그리고는 《주역(周易)》에 잠심하여 본의(本義)를 강구했다. 이 해 가을에 부친 석계를 배행하여 안동의 금계에 가서 외조 장경당의 제향에 참여하고, 장여헌(張旅軒)의 문인으로 당시 영남 사람의 영도자였던 학사(鶴沙) 김응조(金應祖)를 영주(榮州)의 본택으로 방문하여 그 학덕을 체험했다.

둘째 시기는 23 세~50 세까지(1649~1676)다. 앞 시기에서의 다분히 과거에의 유의(留意)와는 달리, 42 세 때에 서울에서의 과거에 응시한 적이 있기는 하나, 학문에 본격적으로 정진하며 현실 문제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는 가운데에 자가(自家)의 지보(地步)를 이룩해 간 시기다. 주로 그의 형 존재 및 아우 항재(恒齋) 이승일(李嵩逸)과 함께 산방(山房)·초당(草堂)으로 옮겨 다니며 학문을 강마(講磨)한 시기다. 갈암보다 8 년 연장인 존재는 갈암에게 더할 수 없는 스승이었고, 바로 다음 아우로서 갈암보다 4 년 연하인 항재는 또한 더할 수 없는 학반(學伴)이었다. 존재와 항재는 둘 다 학덕으로 명망이 높아 유일(遺逸)로 천거된 바 있다.

갈암은 기초 과정 수학 때부터 역학(易學), 특히 상수(象數)에 관심이 많았다. 이 시기에 들어와서도 26 세에 채원정(蔡元定)의 《율려신서(律呂新書)》를 고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해에 중형 존재와 함께 《홍범연의(洪範衍義)》편찬을 계획, 조목(條目)을 설정했다. 이는 갈암 형제의 경세 의지(經世意志)를 보여 주는 사실이며 그들의 상수학에의 관심과도 무관하지 않을 터다.

26 세에는 형 존재 및 아우 항재와 함께 퇴계(退溪)가 노닐던 청량산(淸涼山)에 노닐고, 27 세에는 회재(晦齋)를 봉향하는 옥산서원(玉山書院)을 봉심(奉審)하고 경주의 고적들을 유관(遊觀)하였다. 선현(先賢)과 민족사의 유적(遺跡)에의 체험을 위해서였을 것이다.

27 세에 부친 석계가 병자호란 이후 영해로부터 피지(避地)해 간 영해 서쪽 석보촌(石保村)으로부터 다시 더 깊은 산간지인 영양현(英陽縣) 수비(首比)로 피지해 가자 여기에 따라가 갈암초당(葛庵草堂)을 짓고 거주했다. 석계의 이 피지는 당시 효종의 북벌 계획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 같다. 갈암은 부친을 따라 심협(深峽)으로 피지는 했을망정 항청복명(抗淸復明)에의 의지는 강렬했다. 32 세에 홍정양간의유소후서(洪鄭兩諫議遺疏後敍)와 갈암기(葛庵記)를 써서 이러한 의지를 드러내 보이고, 38 세에는 팔진도(八陣圖)를 고구하고, 41 세에는 망명 길에 나섰다가 제주도에 표박한 명(明) 유민(遺民) 근 100 명을 조정이 연경(燕京)으로 압송하려 하자 동지들과 창의(倡義)하여 궐문(闕門)에 나아가 그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호소하려다 실패하기도 했다.

32 세에 존재, 항재와 함께 도산서원(陶山書院)에서의 《퇴계집(退溪集)》강회(講會)에 참석하여 도산 동주(陶山洞主) 김렴(金礪)의 청에 의하여 《퇴계집》을 강설하여 발명(發明)한 바가 많았다. 40 세에는 복제(服制) 시비에 관한 영남유소(嶺南儒疏)의 소본(疏本)인 변대왕대비위선왕복제소(辯大王大妃爲先王服制疏)를 지었다. 비록 택소(擇疏)는 되지 않았지만 목재(木齋) 홍여하(洪汝河)가 찬탄한 명소(名疏)다. 41 세에는 당시 영남 사림을 주도하고 있던 선배격인 홍목재와 금옹(錦翁) 김학배(金學培)와 안동 금계의 경광서재(鏡光書齋)에서 회동했다. 이 시기 영남 사림에서의 갈암의 입지가 상승 일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38 세 무렵의 《주자대전(朱子大全)》의 탐독, 자기화(自己化)에 의한 학문 역량의 큰 진전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42 세에 아버지의 명으로 서울에서의 과거에 응시하고 귀로에 당시 경기 남인(京畿南人)의 원로인 용주(龍洲) 조경(趙綱)을 포천으로 방문하였다. 이것이 영남 남인 갈암이 경기 남인 사회에 무게 있게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이 해에 갈암은 당시의 심각한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한 방략(方略) 8 가지를 논의한 정설(政說)을 저술했다.

46 세에 중형 존재와 부인 박씨의 상(喪)을 당하고, 이듬해에는 김금옹을 곡(哭)하고, 그 이듬해에는 부친 석계의 상을 당하고, 또 홍목재를 곡했다. 홍목재와 김금옹의 사거(死去)는 영남 사림 내에서의 갈암의 입지를 강화시켜 그 구심점이 되게 했다.

셋째 시기는 51 세~62 세까지(1677~1688)다. 정치 현실에서의 자기 실현을 시험하면서 학문의 완성을 지향해 가던 시기다.

48 세 때 현종이 서거하고 숙종이 즉위하면서 일어난 이른바 갑인예송(甲寅禮訟)에 따른 서인(西人)·남인(南人) 사이의 정권 교체는 갈암으로 하여금 유일(遺逸)로 천거되게 했으나 거상중이었으므로 실효는 없었다. 그래서 본격적인 출사는 51 세에 명유(名儒)로 대접받아 장악원 주부(掌樂院主簿)로 초수(超授)되면서였다. 입도(入都)하자 경기 남인의 영도자 권대운(權大運)은 “그 사람됨이 옥 같다.”고 칭찬하고, 허목(許穆)은 왕에게 “근일에 이현일을 보니 참 유자[眞儒者]이더이다. 역학(易學)에 더욱 조예가 깊다고 하니 장래의 경연(經筵)에는 이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칭도했다. 그리고 갈암 자신도 사헌부 지평으로 임명되자, ‘정학(正學)을 밝혀大本(大本)을 세울 것’, ‘기강을 진작시켜 풍속을 숙정(肅正)할 것’, ‘공도(公道)를 넓혀 왕법을 바로잡을 것’, ‘충간(忠諫)을 받아들여 막혀 가려진 것을 제거할 것’, ‘민정을 살피서 실질적 혜택[實惠]을 베풀 것’ 등 다섯 가지 일을 진언하며 의욕적이었다. 그러나 이 출사는 그의 도학자적 명절관(名節觀)이 좌절당하고 무연(無然)한 변만 당하고 끝났다. 즉 경기 남인 내의 이옥(李沃)의 동생 이발(李浣)과 유명천(柳命天)과의 사이에 일어난, 서로 사사로운 비밀을 폭로하는 내홍(內鬪)에 대해 갈암이 사헌부 지평으로서, 그들의 작태가 사대부의 체통을 손상하고 진신(摺紳)의 큰 수치가 되는 일이라 비판하며 모두 사판(仕版)에서 삭제하기를 주장하다 공박을 받고 결과적으로 체직(遞職)되고 말았다.

벼슬에서 물러나 있으면서 53 세에 《어제주수도설발휘(御製舟水圖說發揮)》를 편찬해 바쳤다. 숙종이 즉위 초에 《예기(禮記)》에 나오는, 임금과 백성과의 관계를 물에 의해 뜨기도 하지만 물에 의해 뒤엎어지기도 하는 배와 그 물과의 관계로 비유한 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설(說)을 지은 것에 대해 유관 자료를 동원하여 부연한 것이다. 갈암의 경세에의 소망을 징표해 주는 일의 일단이다.

54 세에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이 일어나 또 정권이 바뀌었다. 57 세에 응지 진언(應旨進言)이기는 하나 집권 세력의 적대(敵對) 인사로서 초야에 있으면서 당시 집권 세력의 부조리를 대담하게 비판하자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이 호역죄(護逆罪)로 논하기를 청하기까지 했다. 갈암의, 위무(威武)에 굴하지 않는 도학자로서의 드높은 자기 긍지(自己矜持)에 찬 주체성의 발현이다.

60 세에 《홍범연의》가 완성되었다. 62 세에 우담(愚潭) 정시한(丁時翰)의 내방을 받았다. 그리고 이 해에 유명한 울곡이씨논사단칠정서변(栗谷李氏論四端七情書辨)을 발표했다.

넷째 시기는 63 세~67 세까지(1689~1693)의 5 년간으로서 갈암 생애에 있어 대전환의 시기다. 즉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그가 남인 정권의 산림(山林)으로 징소(徵召)되어 경세의 포부를 펼치고자 진력한 시기이다. 그가 산림으로 징소된 것은 당시 영남 사림의 영수(領袖)였던 그가 허목·윤휴(尹鑄) 사거(死去) 이후 그 지위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63 세인 숙종 15 년 2 월에 성균관 사업(成均館司業)에 단망(單望)으로 제수되어 그 해에 사헌부 장령, 이조 참의, 성균관 좌주(成均館祭酒), 예조 참판, 사헌부 대사헌으로 쾌속 승진한 뒤 이듬해 64 세에 이조 참판, 그리고 67 세에 이조 판서에 올랐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순조로움과 영광의 이면에는 고민과 갈등이 적지 않았다. 64 세에 진대본급무소(陳大本急務疏), 65 세에 진군덕시무육조소(進君德時務六條疏), 67 세에 논진덕정속육재차(論進德正俗育才箚) 등과 같은 경세 방략(經世方略)을 체계적으로 피력한 무거운 소차(疏箚)를 위시하여 그때 그때마다 소차를 올리고 경연을 통해 건의를 했으나 실효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입조(入朝)와 환향(還鄉)을 되풀이해 마지않았다. 여기에는 숙종의 표면적으로 응수한 예우와는 다른 성의 부족, 집권 경기 남인들의 갈암에 대한 존봉(尊奉)의 이면에 움직이고 있는, 실권으로부터의 배제 책략이 그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중에 갈암은 64 세에 유형원(柳馨遠)의 《반계수록(磻溪隨錄)》의 서문을 써서 이 책이 가진 가치와 의의를 극구 칭양하고, 작자 반계가 그 경세 방략을 펴볼 기회도 가져 보지 못한 채 죽은 것을 몹시 애석해 했다.

다섯째 시기는 68 세~78 세까지(1694~1704)로 유배·강학·논변(論辯)·저술의 시기다.

68 세인 숙종 20 년 4 월에 갑술환국(甲戌換局)이 일어나자 그 즉시 사헌부의 계청에 의해 갈암은 함경도의 홍원(洪原)으로 유배되었다가, 5 월에 서울로 되잡혀 와서 신문을 받고 난 뒤 종성(鍾城)으로 이배(移配)되어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것은 숙종 15 년 재이(災異)로 인한 구언(求言)에 응한 상소에서 당시 폐비(廢妃)되어 사가(私家)에 내쳐져 있는 인현왕후(仁顯王后)를 별궁(別宮)에 거처케 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문(疏文)에 있는 몇 구절이 이 때에 와서 인현왕후를 모해(謀害) 하고자 한 것이라고 꼬투리 잡혀 마침내 '명의죄인(名義罪人)'으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이다. 상소 당시 숙종이 폐비를 두호(斗護)하는 어떠한 언론도 역률로 다스리겠다고 천명해 놓은 삼엄한 분위기였는데도 갈암이 과감하게 온당한 대우를 하도록 호소했던 것이다.

종성에서 3 년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그 곳 학자들과 도학서(道學書)를 강하는 한편으로 69 세에 《수주관규록(愁州管窺錄)》, 70 세에 독김천휴논이대유이기성정도설변(讀金天休論李大柔理氣性情圖說辨), 71 세에 《돈전최어(惇典粹語)》, 권학사사범의의(權學士士範疑義) 등을 편술하였다. 특히 《수주관규록》은 주로 선배들의 도학에 관한 견해들의 문제점을 비판한 것으로 갈암 학문의 원숙한 경지를 보여 주고 있다.

71 세 때는 5 월에 호남의 광양(光陽)으로 이배되었다가, 72 세 때 3 월에 섬진강(蟾津江) 갈은리(葛隱里)로 옮겨가 있던 중 아우 항재 이송일의 부음을 받았다. 73 세 2 월에 방귀전리(放歸田里)의 명이 있어 드디어 섬진강을 건너 진주 지경의 악양동(岳陽洞)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대계(臺啓)가 방귀전리의 명을 환수(還收)할 것을 청하였다. 74 세 2 월에 대계가 완전 정지되어 3 월 고향에 돌아오는 길에 함안·밀양의 종인(宗人)들과 회합하고 선산에 성묘한 뒤 4 월에 안동 임하현의 금소역(琴韶驛)에 우거하게 되었다. 75 세 5 월에 완전 석방[全釋]의 명이 있었으나 대간(臺諫)의 계청으로 환수되고, 심지어는 극변(極邊)의 위리안치가 계청되기도 하다가 76 세 3 월에 비로소 계청이 정지되었다.

이렇게 이배(移配)와 대명(待命)의 불안한 상황 속에 이곳 저곳 옮겨 거주 하면서도 갈암은 학문 논변을 마지않았다. 그래서 진주 지경에 있던 73 세에 울곡의 사칠이기설(四七理氣說)에 승복하고 있었던 신익황(申益愧)과의 논변이 시작되어 두어 해 동안 지속됐고, 안동의 금소역에 정착한 뒤인 75 세에는 우담(愚潭) 정시한(丁時翰)과 사칠이기에 대한 약간의 견해차로 두어 해 동안 논변했다. 그리고 74 세 가을에는 고산(孤山) 이유장(李惟禕)의 내방을 받았다.

특히 금소에 정착한 이후로는 후학들과의 강학에 더욱 주력하고, 《서애선생연보(西厓先生年譜)》의 산정(刪定), 《퇴도선생언행통록(退陶先生言行通錄)》을 편찬하기 위한 그 편목(篇目)의 설정, 《존주록(尊周錄)》의 편성에 힘을 써서 유림(儒林)의 중요 문헌을 정비했다. 어쩌면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옴을 예감하고서 한 일일 법도 하다.

운명하기 두어 달쯤 앞서 갈암은 거처의 벽에다 다음과 같은 시 한 수를 썼다. “덧없는 인간 세상, 어느덧 팔십 년이 흘렀네. 평생토록 한 일이 무엇이더냐,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자 하였을 뿐. [草草人間世 居然八十年 生平何所事 要不愧皇天]”

사후에도 전석(全釋)·복관(復官)의 명이 몇 차례 반복되다가 융희 2년(1908)에야 관작이 회복되고 시호가 내려졌다.

2) 학파적 위치

식산(息山) 이만부(李萬敷)는 갈암의 영남 유림 내 지위가 성장할 즈음의 퇴계학파의 내부 분파를 다음과 같이 기록한 적이 있다.

지금 강우(江右) 상류 지역의 논의는 서애(西厓)를 받들어 우복(愚伏)에게 미치고, 성주 이하 지역의 논의는 한강(寒岡)을 받들어 여헌(旅軒)에게 미치고 있다. 안동 일대는 서애와 학봉(鶴峯)을 아울러 칭도하나 예안 사림은 월천(月川) 조목(趙穆)을 가장 높인다.<퇴도연원필첩발(退陶淵源筆帖跋)>

식산의 이 기록에 의하면 남명학파(南冥學派)가 해체된 뒤의 17세기 영남학파는 안동·상주의 서애 계열, 성주 이하의 한강 계열, 안동의 학봉 계열, 그리고 예안의 월천 계열로 압축된다. 갈암은 이 네 계열 중 학봉 계열에 속하고, 따라서 갈암의 학통(學統)이 ‘퇴계 이황 - 학봉 김성일 - 경당 장흥효 - (석계 이시명) - 갈암 이현일’로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갈암의 학파적 위치는 이 학봉 학통에 한정되어 파악될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학통’과 ‘학파’의 개념을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학파는 다른 학문적 집단과의 횡적 관계에서 학문적 성향의 변별성에 의해 규정되는 개념이고, 학통은 다른 학문적 개체와의 종적 관계에서 학문적 성향의 공질성(共質性)에 의해 규정되는 개념이다. 이 논리에 입각하면 위의 네 계열은 어디까지나 통틀어 퇴계학파이고, 이 학파 안의 네 개의 학통일 뿐이라는 말이다. 퇴계의 학문·사상의 계승에 있어 위의 네 학통들 사이에는 서로를 하나의 학파로 변별시켜 줄 만큼 학문적으로 일정하게 배타적인 고유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갈암의 학파적 위치는 학봉 학통적 위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통을 초월하는 위상에 놓여 있다는 말이다. 그것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다.

첫째, 갈암은 퇴계 이후 퇴계의 학문·사상을 적극적으로 계승하여 정련(精鍊)하고 발전시켜 같은 학파 선배들이 일찍이 이룩하지 못한 업적을 이룩한 최초의 학자라는 점이다. 사실 갈암이 출현하기 이전과 이후 퇴계학파의 학파적 실질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학문적 생산성

과 학파적 정체성에 있어 이전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면 갈암은 매우 적극적이었다. 사실 퇴계학파는 갈암의 업적과 활동에 힘입어 그 학파적 고유성이 확고하게 수립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물론 그가 퇴계의 주리론(主理論)을 역시 퇴계의 이기호발(理氣互發)과 사칠분대(四七分對)의 논리틀에 입각하여 그 강화의 명제(命題)를 철저히 관철시킨 결과에 주로 의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퇴계 계승의 업적은 심성론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의 경세의 비전도 변화된 시대 여건에 대응한, 퇴계의 그것으로부터의 연변(演變)·발전의 형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퇴계학파 내에서의 그의 인적(人的) 관계의 총회성(總會性)이다. 퇴계학파도 그 제 1 대 제자들 사이에 이미 간극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지만 그 재전·삼전 제자 세대로 내려가면서 분화가 보다 확실해지고 계파간의 우위(優位) 경쟁도 진행되어 갔다. 그래서 갈암의 시대에 이르러 이미 후일 병호시비(屏虎是非)로 발전될 조짐이 잉태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암은 계파를 넘어 학파의 사림(士林)을 광범위하게 결집(結集)하여 학파의 구심점이 되고 영수(領袖)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그의 외조 장경당이 학봉뿐 아니라 서애·한강과도 일정한 사제 관계였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없지는 않았으나, 앞에서 본 한강·여헌 계열의 김응조, 서애 계열의 홍여하 등과의 관계를 미루어 단적으로 알 수 있듯이 역시 그 자신의 역량에 의해서다.

그의 이 학파적 위치의 성립에는 그 자신의 문도 또한 340 여 명의 성세(盛勢)였다는 사실도 물론 무관할 수 없다.

퇴계학파 = 영남학파에서의 갈암의 학파적 위치의 이러한 성취는 마침내 학봉 학통이 학파의 주류의 위상을 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퇴계 = 영남학파는 학통들의 경쟁적 공존에 의한 다양태(多樣態)의 발전보다는 주리사유(主理思惟)의 정밀화와 그 신념의 관철 과정을 역사 위에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갈암에 의한 퇴계학파의 학파적 고유성의 확고화는 한편으로는 퇴계의, 학문·사상사적 위상의 상대화(相對化)라는 역작용을 낳았다. 여기에는 물론 학문외적이지만 학문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었던 당쟁의 작용이 적지 않았지만, 퇴계학파로서는 실(失)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언급할 것은 갈암이 속한 학통의 전개에 있어서 중요하게 유의되어야 할 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다. 앞의 그의 생평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는 그의 중형인 존재 이휘일과 모부인인 장씨 부인이 그들이다. 사실 갈암의 학문의 생육(生育)은 존재라는 요람, 그리고 장씨 부인이라는 잠재 태반(潛在胎盤)이 있고서야 그렇게 출중할 수 있었다. 물론 장씨 부인의 경우 현재적(顯在的)인 지적(知的) 활동을 통해 갈암에게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적으로 일정한 온축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부친 경당을 통해 퇴계의 심학(心學)을 체득하였던 터여서 갈암의 퇴계학 계승에 유력한 매개로 작용했던 것은 의심없는 사실이다.

3. 갈암집 성립의 역사 공간(歷史空間)과 그 내용 성향

인간의 사위(事爲)치고 역사의 제약(制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어디에 있을까마는 특히 언어 행위(言語行爲)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물은 그 제약을 받는 정도가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므로 저작물이 성립되어 나온 역사 공간의 정황과의 조응(照應)에서야 그 저작물은 자기 속을 보다 밝게 드러내 보인다. 특히 행간에 숨겨져 있는 것까지 간취(看取)하고자 할 때에 이 조응은 가위 필수적이다.

《갈암집》이 성립되어 나온 역사 공간, 즉 갈암이 재세했던 17세기 역사 공간은 임진·병자 양란 이후 왕조의 중세적(中世的) 체제 전반이 동요·이완(弛緩)되어 가는 추세와 이 추세를 거슬러 체제를 다시 안정·수렴(收斂)시키고자 하는 작위(作爲), 즉 변화와 지속의 두 지향이 서로 역방향을 취해 길항(拮抗)하는 모순의 공간이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루어져 지속되던 것이 갖기 마련인 관성(慣性)에다 안정·수렴을 위한 작위의 힘이 보태져 변화의 힘보다는 아직은 지속의 힘이 더 도도한 그러한 길항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갈암집》의 내용 및 그 성향도 대체로 여기에 대응되고 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변화와 지속의 두 지향에 대해 가치론적인 속단을 개입시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변화라고 해서 모두가 다 그대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지속이라고 해서 모두 다 역리(逆理)는 아니기 때문이다.

갈암은 일차적으로는 도학자다. 그러므로 그의 문집 내용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은 역사도학 관련 문자일 수밖에 없다. 특히 퇴계의 주리적(主理的) 사단칠정(四端七情)·이기(理氣)·인심도심(人心道心)에 관한 이론을 퇴계의 논리틀에 입각하여 강화·심화시킨 것이 《갈암집》의 핵심적 내용 및 성향이다. 그의 주리 논리는 도학적 문제에 관한 직접적 내용에 대해서만 운용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예학(禮學)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사회 등에 관한 문제의 논의에서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하나의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퇴계의 주리론에 이미 그러한 성향이 함축되어 있었거니와 이(理)의 능동성이 강화된 갈암에게서의 주리론은 세계에 대한 인식 논리(認識論理)로서의 성격이 더욱 감퇴(減退)되는 반면에 세계에 대응하는 신념 논리(信念論理)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 즉 천리(天理)라는 도덕 원리의, 무위 정적(無爲靜寂)한 초월적 임재(臨在)보다는 즉현실적(卽現實的) 유위 능동력(有爲能動力)에 대한 신념이다.

그러니까 갈암은 당시 체제의 동요·이완 현상,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근원의 성격을 갖는, 호청(胡淸)의 군림과 그 아래에서의 지배계급 내부의 쟁투·부조리 등의 역사 상황을 원천적으로 도덕 원리의 무력화로 인한 소치로 인식하고, 이(理) 능동성 강화에 기초하여 현실에서의 도덕 원리의 유위적 작동(有爲的作動)을 진작(振作)시킴으로써 당시의 역사 상황에 대응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신념은 자연히 울곡의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이 이를 무력한 피동적(被動的) 존재로 인식케 하여 도덕 원리의 무력화를 조장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 배척하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헌으로서의 《갈암집》의 최대 특성은 퇴계 주리론의 17세기 상황적 체질 강화의 구현장(具現場)이라고 할 수 있다.

갈암은 도학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못지않는 비중으로 경세가(經世家)로서의 정체성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갈암집》의 내용 중에는 소(疏)·차(劄)·경연강의(經筵講義)·설(說) 등의 형식을 통해 경세 방략·시무책(時務策) 등을 피력(披瀝)해 놓은 것이 많다.

경세가로서의 갈암은 분명히 도학적 경세가다. 그래서 그의 경세론 중에는 인주 일심(人主一心)이 만화(萬化)의 근원이라는 등 전통적인 도학적 경세 논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도학적 경세 논리의 중심 주제인 도덕적 이상주의의 실현 비전이 보다 더 즉현실화(卽現實化)의 지평(地平)으로 나아간 자취가 뚜렷하다. 주리론이 비현실적 성향을 갖는다는 종래의 통념 - 이 통념은 주로 속류(俗類) 유물론(唯物論)에 바탕하여 형성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 과는 다르다.

그의 경세론의 이러한 성향은 그가 42 세경, 당시 심각한 민생고를 목격하고 그 해결 방략을 제시한 정설(政說)에 특히 선명하게 표출되어 있다. 유감스럽게도 8 가지 방략[治道八事] 중 3 가지만 남아 전하지만, 사창제(社倉制) 강화를 주내용으로 한 실혜론(實惠論), 전부부정(田賦不正)을 해결하기 위한 균전론(均田論), 군제(軍制)의 불합리를 개혁하기 위한 군제론을 통해 보건대 그의 경세론의 즉현실적 지평의 최선단(最先端)은 바로 실학파의 경세치용계(經世致用系)의 그것이다. 그의 이 경세론이 유형원의 《반계수록》과 같은 시기에 제시된 점을 우리는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호란(胡亂)을 당한 지 오래지 않은 시기라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갈암이 그의 경세관에서 무(武)를 문(文)과 대등하게 인식하고, 그 시무책에서는 국방 문제에 매우 중점을 두고 있는 점도 이 즉현실성의 발현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소·차 중에 피력된 경세의 방략 또는 방안 가운데에는 외양(外樣)으로는 도학적 입장의 일반적 논리를 보이지만 당시의 현실 문맥(現實文脈)이 행간에 은장(隱藏)되어 있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 이를테면 공도(公道)를 넓혀 왕법(王法)을 바로 세우라는 명제 같은 경우 도학 경세의 일반론이면서 실은 당시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매우 강한 현실성을 함축하고 있다. 즉 경화(京華)의 훈척(勳戚)·별열(閥閥)의 농단(壟斷)으로 권력 체제의 변방으로 밀려나 있었던 정치 세력들의 입장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갈암집》의 내용 및 그 성향을 제약한, 17 세기 역사 상황의 보다 구체적 국면과 관련하여 논의를 진전시켜 보자.

이 시대를 가장 무겁게 제약한 모순은 남한산성의 치욕 및 청(淸)과의 은비(隱祕) 속의 잠재적, 그리고 힘겨운 대치(對峙)일 터다. 이 '대치'는 물론 다분히 우리 민족만의 주관 의식, 주관 자세에서의 상황이다. 앞의 갈암의 생평에서 이미 드러난 바이지만 갈암의 의식에도 항청복명(抗淸復明)이 무겁게 과제화(課題化)되어 일생 동안 제약을 가했다. 그의 유년기의 항청복명 포부와 작고하기 1 년 전의 《존주록(尊周錄)》편찬을 연결해 보면 그의 문집의 성립에 일관되게 가해진 중요한 제약의 하나가 무엇이었던가가 자명해진다. 여기에다 아호의 '갈(葛)' 자에 '흥복한실(興復漢室)'을 도모한 제갈량(諸葛亮)을 함축해 넣고, 해배(解配)되어 돌아온 그에게 일가들이 베푼 위로연 석상에서 출사표(出師表)를 노래한 사실을 고려하면 항청복명에 대한 그의 생애의 집념의 정도를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다. 무(武)와 군략(軍略) 문제에 열성적이었던 것도 모두 이 집념의 표출이다.

그의 북벌론(北伐論)은 청 나라 내부 사정을 지나치게 자가(自家) 희망적으로 이해하는 면은 있으나, 어떠한 정략성(政略性)이 없음은 분명하다. 사실 갈암은 북벌론을 정략화할 수 있는 정치

적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요컨대 자신이 인간의 보편가치로 믿는 의리(義理)에 대한 강한 신념이 그 기본 동기다. 이런 점에서 그의 북별론은 그의 주리론 강화의 명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다음으로는 당쟁(黨爭) 모순이다. 이 점 역시 그의 생평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그의 문집의 성립에 가해진 비중 있는 제약 조건의 하나다. 무엇보다 그 자신의 드높은 영광도, 참담한 치욕도 모두 당쟁에 관련되어 있지 않았던가. 그 시대 많은 지식인들이 그러했듯이 말이다.

그런데 당쟁 당사자들의 의식에는 대개는 당쟁이 당쟁으로서가 아니라 선(善)·의(義)·군자(君子)의 악(惡)·불의(不義)·소인(小人)에 대한 투쟁으로 의식되었으므로, 문집과 같은, 주로 자기의 주관적 생각이 표출되는 저작의 내용 성향이 자연히 그런 방향에서 제약됨은 말할 것도 없다. 갈암의 경우도 물론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다. 그의 유명한 울곡이씨논사단칠정서변(栗谷李氏論四端七情書辨)은 자신의 주관 의식에서는 물론 진리·진실의 천명이다. 그러나 당시의 당쟁적 여건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 사칠·이기 문제에 대한 그의 논의 곳곳에는 실은 이미 이데올로기 투쟁적 성향이 농후하게 발현되어 있다.

앞의 그의 생평에서 논급한 바 있지만 당쟁 모순과 관련하여 그의 문집에 은미(隱微)하거나 우회적인 통로로써나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가한 것은 경기 남인과 그와의 정치적 관계다. 첫 출사(出仕) 때에 같은 당인(黨人)들의 비열성(鄙劣性)에 분개했다가 그의 순직성(純直性)만 상처받고, 두번째 출사에서는 그를 산림(山林)으로 앓힘으로써 영남 남인을 정치적 지원세력으로 이끌어들이면서 정작 정치 실권으로부터는 그를 따돌리려는, 권대운(權大運)·목내선(睦來善) 등의 경기 남인들과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관계의 내면 실상이다. 그의 선거제(選舉制) 개혁, 향약(鄉約) 실천 등의 경세 방략이 좌절된 것도 경기 남인들의 다분히 의도적인 무성의 내지는 저지 때문인 듯하다.

다음으로는 명분론(名分論)의 날로 더해 가는 발달이다. 명분론은 원래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의 사회적 조직이 요구하는 질서 부지(扶持)의 근거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성을 압제(壓制)하는데 이르면 질서 혼란이라는 모순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로서의 명분론이 도리어 새로운 모순으로 전이(轉移)된다. 17세기 역사 공간에는 이러한 추세가 강하게 흐르고 있었다. 주로 임진·병자 양란 이후 신분제의 동요·이완과 여기에 추동(推動)된 체제 전반의 동요·이완 조짐에 지배층적 입장에서 대응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다.

이 명분론 발달의 실제적 구현이 바로 이 시기 예학(禮學)·예설(禮說)의 호한(浩瀚)한 산출이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 시기에 이르러서의 도학의 이데올로기적 공고화(鞏固化) 과정의 한 표현에 다름 아니다. 갈암의 문집에도 적잖이 들어 있는 예학 관련 논의들도 역사적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러한 시각으로써의 이해 대상이다.

그러나 시각을 달리해서 관조(觀照)해 보면 인간 삶의 존재론적(存在論的) 내포(內包)의 풍부화 추구라는 적극적 의의가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인간의 사위(事爲)를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 시각(視角)을 유효하게 운용할 것이 요구되나 끝내 여기서만 머물면 사위의 역사성의 궁극에 담겨 있는 천인지제(天人之際)의 이치를 놓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역사적 시각으로서의 이해를 넘어 있는 지평을 전망하고자 하는 시각이 필요한 것은 《갈암집》의 내용에서 비단 이 예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4. 갈암집의 내용

책의 첫 부분에 있는 205 수의 시(詩)는 형제·지구(知舊)·문인(門人)들과의 창수(唱酬), 기행·영회(詠懷)의 작품들이 비교적 많은 편인데, 전반적으로 관념적 진술성(陳述性)이 농후하다.

소·차·헌의(獻議) 등이 138 편이나 되는데, 정치·사회·경제·국방·외교·예제(禮制) 등 치국(治國)에 관련되는 문제 전반에 두루 걸쳐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의논대왕대비복제소(擬論大王大妃服制疏)는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제에 관한 송시열(宋時烈)의 예설뿐 아니라 윤휴(尹鑄)·윤선도(尹善道) 같은 남인 예설의 미흡한 곳까지 비판한, 영남 유소(領南儒疏)의 소본(疏本)의 하나로 지어진 것이다. 사면지평겸진오조소(辭免持平兼陳五條疏)는 첫 출사 때 올린 것으로 그 5조의 면목은 앞의 그의 생평에 이미 제시된 바 있다. 사공조참의잉진소회소(辭工曹參議仍陳所懷疏)와 인재이언사소(因災異言事疏)는 폐출되어 있는 인현왕후(仁顯王后)의 보호를 호소한 소다. 후자에 들어 있는 “폐비 민씨가 후비의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여 스스로 하늘[남편]에게서 끊어졌다.[廢妃閔氏 不循壺儀 自絕于天]”, “방위를 베풀어 금호(禁護)를 삼가히 해야 한다.[爲設防衛 謹其糾禁]”는 구절들이 갑술환국 직후 민비를 모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 있다는 방향으로 해석되어 명의죄인(名義罪人)으로 낙인찍혀 9년의 유배 생활을 하고, 사후 200여 년 동안 복관(復官)과 이의 환수를 4·5 차례나 되풀이하는 수난을 겪었다. 진군덕시무육조소(進君德時務六條疏)는 임금이 힘쓸 진덕(進德)·입지(立志)·통변(通變)·택임(擇任)·육재(育材)·석시(惜時) 등 6가지 일을 진달한 것이다. 경연강의(經筵講義)에서는 주로 《주역(周易)》·《대학연의(大學衍義)》 등이 강의되었다.

문집 중 분량이 특히 많은 360여 편의 서(書)는 150인 가량의 사우(師友)·문인(門人)·자손들에게 준 편지로, 예설(禮說)·심성설(心性說)·시사(時事)·사사(私事) 등이 주내용을 이루고 있다. 권두경(權斗經)·황수일(黃壽一)·정만양(鄭萬陽) 등과 왕복한 예설, 정시한(丁時翰)·이동완(李東完)·신익항(申益愷)·아우 이승일(李崇逸) 등과 왕복한 심성설이 특히 두드러진다.

잡저(雜著) 중의 율곡이씨논사단칠정서변(栗谷李氏論四端七情書辨)은 서인(西人) 집권하의 62세 때 저술한 것으로, 율곡이 우계(牛溪) 성혼(成渾)과 사단 칠정 문제에 대해 왕복한 서간의 내용 중 19조목을 뽑아 내어 비판한 것이 그 내용이다. 본문에 앞서 후생 율곡이 선배 퇴계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비판한 사실을 묵과할 수 없고, 율곡의 설이 기호 지방에 성행하는 것이 우려되어 저술한다는 동기가 서술되어 있다. 율곡의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칠정사단설(七情四端說) 등을 반박하고, 퇴계의 이기호발설을 지지하면서 이유동정설(理有動靜說)·이기이물설(理氣二物說)을 주장한 것이 그 내용의 핵심이다.

《수주관규록(愁州管窺錄)》은 69세 때 유배지 종성에서 저작한 것으로 장여헌·유서애·조남명 등 우리 나라 선배 학자 6인의 도학설의 불합당한 곳, 신안 진씨(新安陳氏)·경재 호씨(敬齋胡氏) 등 중국 학자 6인의 주자(朱子)와의 차이점에 대해 비판한 것이 그 내용이다. 둔암유공수록서(遁庵柳公隨錄序)는 유형원의 《반계수록(磻溪隨錄)》의 서문으로 유형원의 ‘경세유용지학(經世有用之學)’에 대해 찬탄하고 이러한 경세 방략을 품고 있었던 유형원이 세상에 쓰이지 못한 채 죽은 데 대해 애석해한 것이 그 내용이다. 별집(別集)의 정설(政說)에 대해서는 위에서 논급한 바와 같다.

부록에는 갈암의 연보, 행장, 가전(家傳), 제문, 만장(輓章)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국역서에 추가된 속집(續集)과 《계축추보(癸丑追補)》는 갈암의 저작과 부록에 들어갈 글들로써 중간본에 빠진 것들을 모은 것이다. 그리고 《성유록(聖諭錄)》은 갈암의 소·차·계(啓)에 대한 속종의 비답(批答)·전지(傳旨) 등을 모은 것이고, 《기갑신계록(己甲辛癸錄)》은 일명 《백의편(白衣篇)》으로, 기사한국 이후 갈암이 올린 문제의 인현왕후 보호 건의소로부터 갑술한국 이후 1723년경까지 갈암의 신원(伸冤) 운동에 관한 기록을 모은 것이다.

5. 맺음말

《갈암집》은 특히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 첫째는, 퇴계에서부터 한주(寒洲) 이진상(李震相)에 이르는 퇴계 - 영남 주리론의 발전 과정의 중요한 단계로서 17세기 영남 주리론의 진경(進境)이 집약되어 있는 저작이다. 특히 기호 지방 율곡학파의 이 시기 학설의 전개와의 대응에서 그 사상사적 의의가 더욱 제고(提高)된다.

둘째는, 갈암의 주리론은 17세기적 역사 상황의 산물이다. 《갈암집》은 바로 이 주리론으로서의 상황에의 대응 논리가 피력되어 있는 곳이다. 특히 그의 경세 방략과 시무책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갈암집》은 이 17세기 영남 도학파의 경세론이 그 시기에 출현하기 시작하는 실학파의 경세론과 어떤 관계에 서며 어떤 의의를 갖는가가 탐색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최상의 문헌이다.

1999년 12월

6. 신 판교(申判校) 홍망(弘望) 에 대한 만사

동남방의 인물이 묘연해지는 이 즈음 / 東南人物眇然時
새벽이 오매 드문 별이 또 스러져 가다니 / 將曉稀星又見移
[대령](#)께선 우리 조부와 교분 두텁다 들었고 / 大令已聞於祖厚
가군께선 언제나 말씀에 공을 치켜세우셨지 / 家君每語卽公推
문하에 나아갔을 제 온화한 말씀 주셨나니 / 樞趨猥荷溫言辱
빨리 곁에서 모시지 못하여 늘 탄식하였지 / 灑掃常嗟供役遲
비천한 몸 외진 산에서 마침 병을 앓느라 / 賤跡窮山會愁疾
상여도 전송하지 못해 슬픔을 견디지 못하오 / 不堪孤負送靈輜

[주-D001] 대령(大令) :

진(晉)나라 때 왕희지(王羲之)가 중서령(中書令)을 맡았다가 물러난 뒤 왕민(王珉)이 그 후임이 되었는데, 이 두 사람이 당시에 명망이 나란하였기에 당시 사람들이 왕희지를

대령이라 부르고 왕민을 소령(小令)이라 불렀다 한다. 혹은 현관(縣官)의 경칭(敬稱)으로도 쓰이는데, 여기서는 **신흥망(申弘望)**의 부친을 가리키는 듯하다.

乎永世仰止。茲遣禮官享以盞簋。不昧惟靈庶幾歆此。

士林祭文

門人申弘望

恭惟先生受天間氣。一心向道學以爲己。眞知力踐義精仁熟。清純渾粹。不露圭角。德宇冲襟。充然自得。爲世師儒。遠紹正脈。操修之功。至衰彌篤。樂彼巖頭。爰構數椽。仁山智水。妙契心天。下有游魚。上有飛鳶。冥會狂斯。富貴浮烟。白髮韶顏。頤養幾年。一部羲經。俯讀仰息。晤昧周孔。研溪極微。沈潛涵泳。揅盡天根。吟邊風月。靜裏乾坤。優游遲暮。謝

旅軒先生續集卷十

三十二

絕塵紛。蒲輪屢至。鶴書斯勤。翻然一起。朝野拭目。咫尺天顏。言意懇惻。丹鳳暫儀。白駒難繫。遠辭脩門。婆娑初服。羣情鼓望。聖心如失。雲龍際違。霖雨色極。雖未設施。表儀家國。云胡不淑。遽至易簣。山林寂寞。吾道誰託。邦無耆龜。士失宗師。天之將喪。慟哭何追。粵我先人。分義甚厚。肆余小子。最承恩遇。瞻仰德範。何日忘之。科場汨沒。世累奔馳。不得長侍。杖屨之側。賀賀至今。禽鹿視肉。撫躬自悼。雖悔莫及。往歲之春。天地翻覆。軒車徂東。住駕龜池。拜候牀下。承誨移時。那知一辭。便成永訣。道

里阻隔。事故纏縛。歿未及斂。葬未執紼。奔赴後人。築室無因。余懷之悲。有淚霑巾。烏山我我。洛水汪汪。氣象森然。愈違難忘。茫茫宇宙。荏苒流光。初暮載屆。感念益長。田園秋晚。松菊荒涼。單杯薄奠。爲罄寸心。一慟筵前。冀賜昭臨。嗚呼痛哉。

門人韓德及

惟靈超然。造道粹乎凝德。接周程統。延晦退脈。士林冠冕。王庭扈碩。衣錦尚絅。在家必達。有聖當寧。求賢側席。時可展施。禮隆蒲壁。鳳凰乍儀。萬目爭拭。宸眷彌勤。素志難奪。丁茲不辰。禍亂孔酷。

旅軒先生續集卷十

三十三

手足倒懸。君臣蒙辱。蓋亦長往。彼巖斯託。武夷雲影。濂溪草色。吾道可傳。英材是育。域內烟塵。山中禮法。天不慙遺。忽摧樑木。國無人焉。疇任厥責。顧惟不肖。叨守弊邑。獲邇德門。浼跡仁宅。靈輻載前。已矣莫及。爲公痛甚。哭吾私切。肆薦悃悃。庶歆菲薄。

姜弘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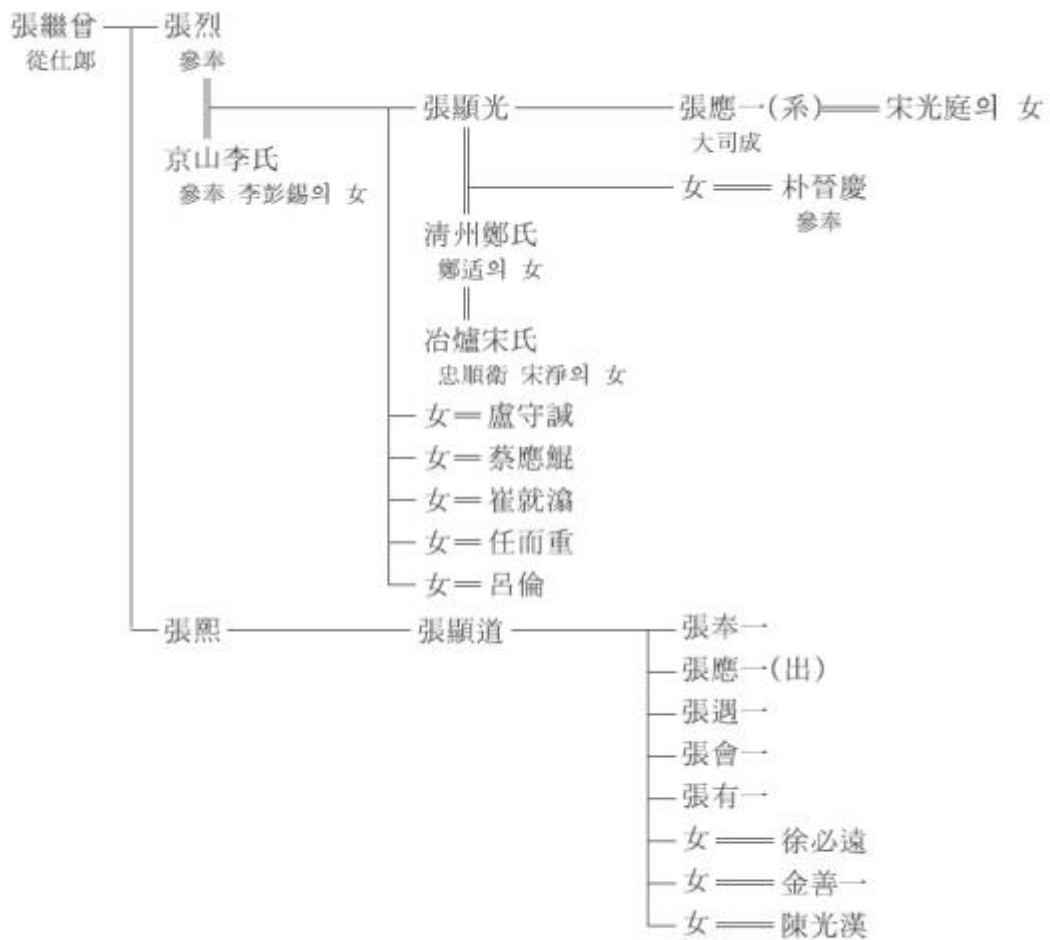
太白巍巍。峻極于天。扶輿鬱積。磅礴蜿蜒。凝精鍾淑。應期千秋。降我先生。生此青邱。金堅玉潤。德宇如春。山立淵澄。睿智若神。允矣先生。展也大成。馨

여헌집(旅軒集) 장현광(張顯光)

1. 저 자

장현광(張顯光) : 1554 년(명종 9)~1637 년(인조 15). 자는 덕회(德晦). 호는 여헌(旅軒). 본관은 인동(仁同). 시호는 문강(文康).

2. 가 계



3. 행 력

| | | | |
|----|----|----|-----|
| 왕력 | 서기 | 연령 | 기 사 |
|----|----|----|-----|

| | | | |
|------|------|----|--|
| 명종 9 | 1554 | 1 | 1 월 22 일, 인동부(仁同府) 인의방(仁義坊)에서 태어나다. |
| 16 | 1561 | 8 | 6 월, 부친상을 당하다. |
| 22 | 1567 | 14 | 상사(上舍) 장순(張畵)의 문하에서 배우다. |
| 선조 4 | 1571 | 18 | 《우주요괄첩(宇宙要括帖)》을 짓다. |
| 12 | 1579 | 26 | 청주 정씨(淸州鄭氏)와 혼인하다. |
| 16 | 1583 | 30 | 봄, 향시(鄉試) 별거(別舉)에 합격하다. |
| 18 | 1585 | 32 | 7 월, 부인상을 당하다. |
| 23 | 1590 | 37 | 야로 송씨(冶爐宋氏)와 혼인하다. |
| 24 | 1591 | 38 | 10 월, 모친상을 당하다. ◦겨울, 전옥서 참봉(典獄署參奉)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 25 | 1592 | 39 | 4 월, 왜란이 일어나자 금오산(金烏山)으로 피난하다. |
| 27 | 1594 | 41 | 봄, 예빈시 참봉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여름, 풍기(豐基)의 소백산(小白山)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 인동(仁同)과 성주(星州)의 선산(先山)을 찾다. ◦가을, 제릉 참봉(齊陵參奉)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 28 | 1595 | 42 | 7 월, 보은 현감(報恩縣監)이 되다. ◦《관물부(觀物賦)》를 짓다. |
| 29 | 1596 | 43 | 2 월, 사직만 하고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향리로 돌아오다. 다음달 이 일로 의금부에 잡혀갔다가 곧 석방되다. ◦《일식부(日食賦)》를 짓다. ◦여름, 영천(永川)의 입암(立巖)에 우거하다. |
| 30 | 1597 | 44 | 봄, 송생(松生)으로 대암(大庵) 박성(朴愷)을 찾아가다. ◦가을, 주왕산(周王山)을 유람하다. ◦《여헌설(旅軒說)》을 짓다. |
| 31 | 1598 | 45 | 봄, 봉화(奉化)의 도심촌(道心村)으로 들어가다. 근처의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을 방문하다. |
| 32 | 1599 | 46 | 봄, 선산(善山) 월파촌(月波村)으로 이거(移居)하다. ◦혼의(婚儀)를 짓다. |
| 33 | 1600 | 47 | 봄, 입암을 유람하다. ◦흥해(興海)에서 바다를 구경하고, 관해설(觀海說)을 짓다. |
| 34 | 1601 | 48 | 경서 교정의 명을 받들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 35 | 1602 | 49 | 2 월, 거창 현감(居昌縣監)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겨울, 주왕산을 유람하다. ◦11 월, 공조 좌랑이 되어 《주역(周易)》의 교정에 참여하다. 곧 형조 좌랑이 되었으나 사직하고 환향(還鄉) 하다. |
| 36 | 1603 | 50 | 2 월, 용담 현령(龍潭縣令)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9 월, 의성 현령(義城縣令)이 되어 부임하다. |
| 37 | 1604 | 51 | 문묘(文廟)의 위판(位版)이 분실된 일로 파직되어 선산 월파촌으로 돌아오다. ◦12 월, 순천 군수(順川郡守)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 38 | 1605 | 52 | 종제(從弟) 현도(顯道)의 아들 응일(應一)을 후사로 삼다. |
| 39 | 1606 | 53 | 봄, 인동으로 돌아오다. 모원당(慕遠堂)이 완성되다. |
| 40 | 1607 | 54 | 1 월, 대암 박성을 곡(哭)하다. ◦한강(寒岡) 정구(鄭逵)를 모시고 용화산 |

| | | | |
|----------|------|----|--|
| | | | (龍華山) 아래서 뱃놀이하다. ◦야은죽부(冶隱竹賦)를 짓다. |
| 41 | 1608 | 55 | 6 월, 합천 군수(陝川郡守)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 광해군 2 | 1610 | 57 | 7 월, 사헌부 지평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부지암정사(不知巖精舍)가 창건되다. |
| 5 | 1613 | 60 | 오산서원(吳山書院) 봉안의식(奉安儀式)을 정하다. |
| 7 | 1615 | 62 | 관의(冠儀)를 짓다. ◦여름, 문인 정사진(鄭四震) 등과 부지암 아래서 뱃놀이하다. |
| 인조 1 | 1623 | 70 | 4 월, 사헌부 지평으로 부르는 전지가 내렸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이후 성균관 사업, 다시 지평, 장령이 되었으나 모두 병으로 사직하다. |
| 2 | 1624 | 71 | 2 월, 장령이 되다. ◦3 월, 집의가 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곧 공조 참의가 되다. ◦4 월, 원자보양관(元子輔養官)으로 강학청에 나아가다. ◦8 월, 이조 참의가 되었으나 상소, 체직되다. ◦정구의 행장을 짓다. |
| 3 | 1625 | 72 | 8 월, 동부승지가 되었으나 상소하여 체직되다. 부호군이 되다. |
| 4 | 1626 | 73 | 3 월, 형조 참판이 되다. ◦4 월, 대사헌이 되다. 정사(呈辭)하여 체직되고 부호군이 되다. ◦6 월, 시강원에 나아가 세자를 배알하다. |
| 5 | 1627 | 74 | 호란이 일어나자 영남 호소사(嶺南號召使)의 명을 받다. |
| 6 | 1628 | 75 | 3 월, 이조 참판이 되었으나 상소하여 체직되다. ◦만학요회(晩學要會)를 짓다. |
| 7 | 1629 | 76 | 12 월, 부인상을 당하다. |
| 8 | 1630 | 77 | 4 월, 대사헌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역괘총설(易卦總說), 구설(究說)을 짓다. |
| 9 | 1631 | 78 | 원종(元宗) 추숭의 논의를 정지하도록 상소하여 청하다. |
| 10 | 1632 | 79 | 3 월, 대사헌이 되었으나 병으로 사직하다. |
| 11 | 1633 | 80 | 10 월, 응지(應旨) 상소를 올리다. |
| 12 | 1634 | 81 | 지중추부사, 공조 판서가 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
| 13 | 1635 | 82 | 5 월, 의정부 우참찬이 되었으나 병으로 사직하다. |
| 14 | 1636 | 83 | 7 월, 지중추부사로서 소명(召命)을 받고 상경(上京)하다가 병으로 사직하니, 상이 약물(藥物)을 하사하다. ◦12 월, 호란이 일어나자, 주군(州郡)의 부로(父老)에게 통유(通諭)하여 의병을 일으켜 근왕(勤王)하게 하다. |
| 15 | 1637 | 84 | 겨울, 향복 소식을 듣고 입암촌에 들어가 살다. ◦9 월 7 일, 만옥재(晩畝齋)에서 졸하다. ◦12 월, 금오산(金烏山) 아래 오산동(吳山洞)에 장사지내다. |
| 16 | 1638 | * | 문인 조임도(趙任道)가 취정록(就正錄)을 완성하다. |
| 17 | 1639 | * | 오산서원에 배향되다. |
| 20 | 1642 | * | 임고서원(臨臯書院), 천곡서원(川谷書院), 금오서원(金烏書院)에 배향되다. ◦아들 응일이 문집을 간행하다. |

| | | | |
|-------|------|---|--|
| 효종 6 | 1655 | * | 의정부 좌찬성에 추증되다. ○9 월, 부지암서원(不知巖書院)이 낙성되어 향사되다. |
| 8 | 1657 | * | 의정부 영의정에 추증되다. ○문강(文康)의 시호를 받다. ○립암서원(立巖書院), 영산서원(永山書院), 송학서원(松鶴書院)에 향사되다. |
| 숙종 2 | 1676 | * | 부지암서원이 '동락서원(東洛書院)으로 사액되다. |
| 영조 12 | 1736 | * | 신도비가 세워지다. [허목(許穆) 찬] |

4. 편찬 및 간행

저자의 시문은 사후 바로 아들 응일에 의해 수습되기 시작하였으니, 응일은 1638년 봄부터 가정(家藏) 초고를 바탕으로 유문(遺文)을 수집, 부지암에 모여 원유(院儒)들과 수교(誦校)하였다. 다음해인 1639년에 유문은 일선(一善)의 사우들이 사출(寫出)하고 역학도설(易學圖說), 성리설(性理說) 중 경위설(經緯說) 등은 영양(永陽)의 사우들이 사출하는 등 간행 준비를 해 나갔다. 이후 응일은 조임도(趙任道), 신열도(申悅道) 등과 함께 편차를 마치고 1640년 10월 문인 김응조(金應祖)가 인동 부사로 부임해 오자 그의 도움을 받아 바로 간역(刊役)에 들어갔다. 김응조의 연보에도 이 해에 《여헌집》을 교정하였다고 하였고, 1641년 초에 응일이 신열도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해동하면 곧 간역을 시작할 것인데 모두 성주(城主)의 혈성(血誠) 어린 기획(規畫)에 힘입은 것이다.' 하였다. 응일은 성리설을 1641년에 먼저 간행해 놓고, 평설(平說)과 구설(究說)은 속집으로 내기로 미루어 놓았다. 마침내 1642년에 간행을 완료, 성리설 8권 6책과 원집 11권 6책(또는 5책)의 목판본을 내놓았다.《초간본》 현재 원집(11행 22자)은 규장각(奎 11542, 1257, 1376),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D3B-706), 국립중앙도서관(한 46-가 204) 등에 소장되어 있고, 性理說은 규장각(奎 1794)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후 중간은 속집의 간행과 아울러 19세기 말경에 가서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초간된 원집에 대해서는 내용 변화 없이 11권(11행 22자)의 편차를 13권(10행 20자)으로 재편하고 권 1의 <무제(無題)> 시를 <<분포(盆蒲)>> 시로 교체하는 정도에 그쳤으며, 성리설은 제외시켰다. 속집은 초간 때 누락된 시문을 8권으로 편차하고 부록 2권을 합하여 10권으로 만들어, 원집 13권과 함께 목판으로 간행하였다.《중간본》 간행 시기는, 먼저 1796년에 완성된 《누판고(鑿板考)》에 속집이 실리지 않았고 속집 권 10에 '정종조 사제문'이 실린 것으로 볼 때, 1800년대 순조 연간 이후가 될 것이다. 또한 1924년 11대손 기상(基相)에 의해 활자로 간행된 속부록(續附錄)이 속집의 부록을 보완하는 의미로 간행되어 속집에 빠졌던 인조조 사제문과 허목의 제문 등 300여 수가 실렸고, 중간본으로 첫째 장에 '1932년 4월 8일 장택상(張澤相)씨 기증'이라 찍혀 있는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장본의 판본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 등으로 볼 때, 속집의 간행은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초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원집:811.98-장현광-여-나, 속집:811.98-장현광-여-속)에 소장되어 있고,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D3B-707), 국립중앙도서관(한 46-가 17) 등에는 속집만 따로 소장되어 있다.

한편 연보 3권 1책도 간행되었다. 초간할 때부터 연보의 편정(編定)에 관해서도 많이 언급되었으나 완성을 보지 못하였는데, 1800년대 순조 연간 이후 속집이 나오기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추측된다. '정종조(正宗朝) 사제문'이 실려 있는 데다 이미 간행되어 있어 중간 때 속집과 아울러 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규장각(奎 1315, 1316), 장서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1983년에는 인동장씨 남산파종친회(仁同張氏南山派宗親會)에서 중간본 원집 13권, 속집 10권에다 연보 3권, 성리설, 역학도설, 용사일기(龍蛇日記), 급문제현록(及門諸賢錄) 등을 합하여 《여헌선생전서(旅軒先生全書)》를 영인하였다.

5. 저 본

한국문집총간 60집 소재 여헌집을 국역대본으로 하였다.

한국문집총간의 저본은 중간본으로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여헌선생문집(旅軒先生文集). 목판본. 19세기 말경 간행. 목록, 원집 13권, 속집 10권 합 12책. 10행 20자. 21.3×17.4(cm). 상하이엽화문어미(上下二葉花紋魚尾). 원집 :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장본 <811.98-장현광-여-나>속집 :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장본<811.98-장현광-여-속>.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집은 맨 앞에 목록이 실려 있다. 서는 없다.

권 1~3은 사(詞), 부(賦), 시(詩), 소(疏)이다. <알포은선생화상사(謁圃隱先生畫像詞)>는 정몽주(鄭夢周)가 향사된 영천 임고서원을 가보고 지은 사이다. 부 5편 가운데 <야은죽부(冶隱竹賦)>는 54세 때 금오산을 유람하고 이곳에 우거하였던 야은 길재가 심은 대나무를 읊은 것이다. 저자가 이들의 학풍을 이어 임고서원과 길재를 향사한 오산서원, 금오서원에 모두 배향된 사실의 이해에 도움을 준다. 시는 오언절구, 칠언절구, 오언사운, 칠언사운, 오언장편, 칠언장편의 시체별 분류인데 각 시체 내의 분류 원칙은 불분명하다. 전체적으로 <와류당십영(臥遊堂十詠)>, <입암십삼영(立巖十三詠)> 등 영천, 선산, 인동의 경치를 읊은 시가 가장 많고, 오언사운에는 문천상(文天祥)의 시에 차운한 작품이 다수이고, 정구, 유성룡, 박성 등의 만장이 실려 있다. 초간본과는 칠언사운의 <무제(無題)> 시가 <분포(盆蒲)> 시로 교체된 차이만 있다.

소는 1603년 50세에 올린 <의사의성현령소(擬辭義城縣令疏)>부터 1636년 83세에 올린 <사사약물소(謝賜藥物疏)>까지 36편이 저작연대순으로 실려 있다. 특히 1623년 인조 반정 이후 지평, 공조 참의 등 계속된 관직 제수를 사양하는 상소가 많다. 1633년 80세에 올린 <응지진언소(應旨進言疏)>는 진변(震變)으로 인한 응지 상소로, 뒤에 정진(貞震) 8괘(卦)와 회진(悔震) 8괘의 16괘 배진(排陳)을 붙여 상의 공구수성(恐懼修省)을 촉구한 내용이다.

권 4~5는 서인데, 권 5에 문목에 답한 서를 따로 모아 놓았다. 정사진(鄭四震), 장광한(張光翰), 신열도(申悅道) 등의 문인, 오산, 임고, 정산, 천곡 서원 등에 답한 편지와 역시 이들의 문목에 답한 편지들이다. 문목에는 주로 상례와 제례에 대한 질문이 많다.

권 6~8은 잡저이다. 22편 가운데 <학부명목회통지결(學部名目會通旨訣)>, <사물론(事物論)>,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 <심설(心說)>, <도통설(道統說)> 등에서는 퇴계(退溪)나 울곡(栗谷)과는 다른 면모를 지닌 저자의 이기론(理氣論)을 읽을 수 있다. <문설(文說)>에서는 육경(六經)을 존중하

여 고문으로 돌아갈 것을 말하였고, <노인사업(老人事業)>, <모령인사(暮齡人事)>는 노인이 지켜야 할 도리를 적었고, <좌벽소원(座壁所題)>에는 평소 지닐 심법(心法)을 도표로 만들어 설명하였다. <여헌설(旅軒說)>은 44 세에 자호를 짓고서 쓴 글이고, <주왕산록(周王山錄)>도 44 세에 주왕산을 유람하고 쓴 행록(行錄)이다.

권 8~10은 서(序), 기(記), 발(跋), 론(論), 명(銘), 상량문(上樑文)이다. 서 4 편 가운데 <역학도설서(易學圖說序)>는 저자가 지은 《역학도설》의 서이다. 기 7 편에는 부지암정사와 입암정사, 모원당 등 우거하며 강학한 곳의 기문이 실려 있다. 발 13 편에는 《야은집(冶隱集)》, 《고봉집(高峯集)》, 《서애집(西厓集)》의 발 등이 있다. 논 2 편 가운데 <문무일체론(文武一體論)>에서는 문(文)은 경(經), 리(裏)가 되고 무(武)는 위(緯), 표(表)가 되어 일체임을 강조하였다.

권 11~13은 축문, 제문, 비명, 묘갈, 묘지, 행장이다. 오산서원 등의 축문, 정구, 성훈(成渾), 박성 등의 제문, 김굉필(金宏弼)의 신도비명, 하위지(河緯地), 장잠(張潛) 등의 묘갈, 정유(鄭瑜) 등의 묘지, 정구, 박성의 행장이다.

속집도 맨 앞에 목록이 실려 있다.

권 1은 사(詞), 부(賦), 시(詩)이다. 시는 오언절구, 칠언절구, 오언사운, 칠언사운, 오언장편, 칠언고시, 육언의 시체별 분류이다. 원집과 마찬가지로 문천상의 시에 차운한 작품이 많으며, 이 외에 차운시와 화운시, 만시와 증시가 원집에 비해 많이 실려 있다. 육언(六言)의 <범주부지암(泛舟不知巖)>은 62 세 때 문인 정사진 등과 부지암 아래서 뱃놀이하면서 지은 시이다.

권 2는 소(疏), 서(書), 답문목(答問目)이다. 소는 의소(擬疏)와 의차(擬筭) 1 편씩이다. 의소는 1635년 인열왕후(仁烈王后)의 상(喪) 이후 괴변의 소식을 듣고서 지은 권면의 상소이고, 의차는 연강(筵講), 성지수원대(聖志須遠大) 등 5 조로 나누어 권면한 차자이다. 서는 원집과 마찬가지로 정사진, 신열도, 김응조 등의 문인과 임고서원 등에 답한 편지가 대부분이고, 김장생(金長生)에게 답한 편지도 있다. 답문목 가운데 <답옥산서원(答玉山書院)>은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의 문집 간행과 관련하여 옥산서원 원유(院儒)의 질문에 답한 편지로 주목된다.

권 3은 장(狀), 축문(祝文), 제문(祭文), 뇌문(■文), 상량문(上樑文)이다. 장은 보은 현감과 의성 현령 때 올린 글이다. 회원서원(檜原書院) 등의 축문, 김주(金澍), 김우옹(金宇■) 등의 제문, 홍천뢰(洪天賚) 장군의 뇌문, 오산서원 충효당(忠孝堂)의 상량문이 실려 있다.

권 4~8은 잡저(雜著)이다. 명(銘), 론(論), 기(記), 설(說), 유문(諭文) 등이 실려 있다. 또 18 세에 지은 <우주요괄첩>은 회진첩(會眞帖), 일원첩(一原帖), 부양첩(俯仰帖) 등 10 첩(帖)으로 나누어 이(理), 천(天), 지(地), 인(人)의 세계를 도표로 나타내어 설명한 것이고, <만학요회>는 저자의 《성리설》에 실린 <만학요회(晩學要會)>의 초초(初草)이다. <녹의사질(錄疑■質)>은 《대학》과 《중용》의 편차나 내용 가운데 의심나는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혀 놓은 글이다. <평설(平說)>과 <구설(究說)>은 자신이 틈틈이 적어놓은 이기론을 함께 엮은 글이고, <관의(冠儀)>와 <혼의(婚儀)>는 각기 그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놓은 글이다. <갑자추조록(甲子趨朝錄)>은 1624년 인조와 원자를, <병인추조록(丙寅趨朝錄)>은 1626년 인조와 세자를 만나 문답한 내용을 적어 놓았다.

권 8 뒤부분은 비갈지명(碑碣誌銘), 행장이다. 김담(金澹)의 신도비명, 이민성(李民歲)의 묘지명 등과 조호익(曹好益)의 행장, 이규문(李奎文)의 행록이다.

권 9~10 은 부록이다. 조임도의 <취정록(就正錄)>, 신열도의 <배문록(拜門錄)>장내범(張乃範) 등의 <기문록(記聞錄)>김경장(金慶長) 등의 <경원록(景遠錄)>등 문인들의 기록과 정종조(正宗朝)의 사제문, **신흥망(申弘望)** 등이 지은 제문 등이 실려 있다.

6. 국역

국역서는 1996 년부터 간행하기 시작하여 1999 년까지 해마다 1 책씩 총 4 책으로 완간되었다. 1 집은 원집 권 1 에서 원집 권 6 까지, 2 집은 원집 권 7 에서 원집 권 13 까지, 3 집은 속집 권 1 에서 속집 권 5 까지, 4 집은 속집 권 6 에서 속집 권 10 까지이다. 국역자는 성백효이다.

1996 년 11 월 1 일

사림(士林)의 제문-문인 신흥망(申弘望)

여헌선생속집 제10권 / 제문(祭文)

앞드려 생각하옵건대 선생은 / 恭惟先生

하늘의 빼어난 기운을 받으시고 / 受天間氣

한 마음으로 도를 향하여 / 一心向道

자신을 위하는 학문을 하셨습니다 / 學以爲己

참으로 알고 힘써 실천하여 / 眞知力踐

의리가 정하고 인이 익숙하였습니다 / 義精仁熟

깨끗하고 순수하고 혼후하여 / 淸純渾粹

규각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 不露圭角

덕스러운 도량에 온화한 흥금으로 / 德宇冲襟

충만하여 스스로 즐거워하였습니다 / 充然自得

세상의 사표가 되시어 / 爲世師儒

멀리 정맥을 이으시니 / 遠紹正脈

조집(操執)하고 닦는 공부가 / 操修之功

노년에 이르러 더욱 돈독하였습니다 / 至衰彌篤

저 바위 머리를 좋아하시어 / 樂彼巖頭

몇 칸의 집을 지으니 / 爰構數椽

어진 산과 지혜로운 물에 / 仁山智水

하늘의 오묘한 이치 마음에 터득하였습니다 / 妙契心天

아래에는 뛰노는 물고기가 있고 / 下有游魚

위에는 나는 솔개가 있으니 / 上有飛鳶

마음속에 묵묵히 얹어 여기에 있어 / 冥會在斯
부귀를 뜬구름처럼 여기고는 / 富貴浮烟
홍안백발에 / 白髮韶顏
몇 년을 한가로이 수양하였습니다 / 頤養幾年
한 질의 [희경](#)을 / 一部羲經
굽어 읽고 우러러 생각하여 / 俯讀仰思
자나 깨나 주공(周公)과 공자(孔子)를 생각하며 / 寤寐周孔
깊고 은미한 진리 연구하였습니다 / 研深極微
침잠하고 함영하여 / 沈潛涵泳
하늘의 뿌리 탐구하였으며 / 探盡天根
풍월을 읊고 / 吟邊風月
조용한 가운데 세월을 보냈습니다 / 靜裏乾坤
노년에는 한가로이 노닐어 / 優游遲暮
분분한 진세(塵世)를 사절하였습니다 / 謝絕塵紛
[포륜이 여러 번 이르고](#) / 蒲輪屢至
학서가 부지런하자 / 鶴書斯勤
번연히 한 번 일어나시니 / 翻然一起
조야에서는 눈을 씻고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 朝野拭目
지척에서 성상(聖上)을 대하여 / 咫尺天顏
말씀과 뜻이 간곡하였습니다 / 言意懇惻
[붉은 봉황이 잠시 춤을 추었으나](#) / 丹鳳暫儀
흰 망아지 잡아매기 어려웠습니다 / 白駒難繫
멀리 궁궐문을 하직하고 / 遠辭脩門
한가로이 처음의 일을 하시니 / 婆娑初服
사람들 모두 서운해하고 / 群情缺望
성상은 망연자실하였습니다 / 聖心如失
[구름과 용의 만남 어그러지니](#) / 雲龍際違
장맛비의 생각 간절하였습니다 / 霖雨思極
비록 나라에 시행하지는 못하였으나 / 雖未設施
국가에 의표가 되었사운데 / 表儀家國
어찌 불행하여 / 云胡不淑
갑자기 별세하신단 말입니까 / 遽至易簣

산림이 적막하니 / 山林寂寞

우리 도를 누가 맡겠습니까 / 吾道誰託

나라에는 시초와 거북이 없어지고 / 邦無耆龜

선비들은 종사를 잃었습니다 / 士失宗師

하늘이 장차 우리 도를 망하게 하니 / 天之將喪

통곡한들 어찌하겠습니까 / 慟哭何追

아, 우리 선인과는 / 粵我先人

친분과 정의(情誼)가 매우 두터웠습니다 / 分義甚厚

이에 소자는 / 肆余小子

가장 은혜로운 대우를 받았습니다 / 最承恩遇

덕스러운 모습 우러러보오니 / 瞻仰德範

어느 날인들 잊었겠습니까마는 / 何日忘之

과장에 골몰하고 / 科場汨沒

세상의 얽매임에 달려가서 / 世累奔馳

길이 선생을 모시고 / 不得長侍

지팡이와 신의 곁에 있지 못하였습니다 / 杖屨之側

무무하여 지금에 이르오니 / 貿貿至今

금록이 고기를 보듯 하였습니다 / 禽鹿視肉

몸을 어루만지며 스스로 서글퍼하오니 / 撫躬自悼

비록 후회하나 미칠 수 없습니다 / 雖悔莫及

지난해 봄에는 / 往歲之春

천지가 번복되오니 / 天地翻覆

수레를 타고 동쪽에 가시어 / 軒車徂東

구지에 머무셨습니다 / 住駕龜池

평상(平牀) 아래에서 절하옵고 / 拜候牀下

한동안 가르침을 받들었습니다 / 承誨移時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 한 번의 하직이 / 那知一辭

곧 영결이 되을 줄을 / 便成永訣

도로가 아득히 멀고 / 道里阻隔

일과 연고가 얽히고 설켜서 / 事故纏縛

별세했을 때에는 염에 미치지 못하고 / 歿未及斂

장례 때에는 상엿줄을 잡지 못했습니다 / 葬未執紼

남들보다 뒤늦게 달려오고 / 奔赴後人
 무덤가에 집을 짓고 거상(居喪)하지 못하오니 / 築室無因
 저의 회포 슬퍼져서 / 余懷之悲
 눈물이 수건을 적시웁니다 / 有淚霑巾
 금오산(金烏山)은 우뚝이 높고 / 烏山峩峩
 낙동강은 너르게 흐르오니 / 洛水汪汪
 선생의 기상이 눈앞에 삼삼하여 / 氣象森然
 더욱 멀수록 잊기가 어렵사웁니다 / 愈遠難忘
 아득하고 아득한 우주에 / 茫茫宇宙
 세월은 유수처럼 흘러가서 / 荏苒流光
 초기가 곧 이르오니 / 初暮載屆
 감동하는 생각 더욱 깊사웁니다 / 感念益長
 전원에 가을이 깊어가니 / 田園秋晚
 소나무와 국화 황량하웁니다 / 松菊荒涼
 한 잔 술에 박한 제수로 / 單杯薄奠
 어찌 작은 마음 다하겠습니까 / 曷罄寸心
 궤연(几筵)의 앞에 한번 통곡하오며 / 一慟筵前
 밝게 강림해 주시기 바라웁니다 / 冀賜昭臨
 아, 애통하웁니다 / 嗚呼痛哉

[주-D001] 의리가 정하고.....익숙하였습니다 :

지식이 높아 의리에 대한 식별이 정밀하고, 실행이 뛰어나 인(仁)의 행실이 완숙함을 말한 것이다.

[주-D002] 희경 :

복희씨(伏羲氏)의 경서(經書)란 뜻으로 《주역》을 가리킨다. 주역의 팔괘(八卦)는 처음 복희씨가 하도(河圖)를 보고 그었다 한다.

[주-D003] 포륵이 여러 번 이르고 :

군주가 현자(賢者)를 부지런히 초빙함을 이른다. 포륵은 부들로 수레바퀴를 감싸서 폭신 폭신한 것으로 옛날 현자를 초빙할 때에 사용하였으며, 학서(鶴書)는 일명 학두서(鶴頭書)로 서체(書體)의 하나인데, 옛날 조서(詔書)를 학두서체(鶴頭書體)로 썼기 때문에 제왕의 조서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주-D004] 붉은 봉황이.....추었으나 :

붉은 봉황이 잠시 춤을 추었다는 것은 여헌이 잠시 조정에서 나온 것을 비유한 말이다. 흰 망아지는 현자가 타고 온 망아지로, 《시경》의 소아(小雅) 백구(白駒)에서 현자가 흰 망아

지를 타고 왔다가 아무리 만류하여도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떠나간 것을 읊었는데, 여헌이 곧바로 떠나갔음을 말한 것이다.

[주-D005] 구름과 용의.....어그러지니 :

구름은 신하를 비유하고 용은 군주를 비유한 것으로, 여헌이 은둔하여 군주가 어진 신하를 만나지 못하자 가뭄에 장맛비를 생각하듯 간절히 그리워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주역》 건괘(乾卦) 문언전(文言傳)에 “구름은 용을 따르고 바람은 범을 따른다.” 하였으며, 《서경》 열명(說命)에 은(殷) 나라의 고종(高宗)이 부열(傅說)에게 이르기를 “만일 가뭄이 들면 너로써 큰 장맛비가 되게 하리라.” 하였다.

[주-D006] 나라에는.....거북이 없어지고 :

시초는 주역점을 치는 산대이고, 거북은 거북점을 치는 거북껍질이며, 종사(宗師)는 스승으로 높이는 것으로, 이제 선비들 역시 추앙할 스승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주-D007] 무무하여 지금에 이르오니 :

무무는 사람이 무식하여 혼우(昏愚)함을 이르며, 금록(禽鹿)은 금수(禽獸)와 같은 말이다. 《사기(史記)》 이사열전(李斯列傳)에 “금록이 고기를 보듯 하다.[禽鹿視肉]”라고 하였는데, 《색은(索隱)》에 “금록은 금수와 같은 말고, 이는 금수가 단지 고기를 보고 먹을 줄만 알 뿐 다른 지식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 하였다.

[주-D008] 지난해 봄에는 :

지난해란 인조 15년(1637)으로, 우리 나라가 청(淸) 나라에게 항복한 일을 가리킨 것이다.



里阻隔。事故纏縛。歿未及斂。葬未執紼。奔赴後人。築室無因。余懷之悲。有淚霑巾。烏山峩峩。洛水汪洋。氣象森然。愈遠難忘。茫茫宇宙。荏苒流光。初暮載屆。感念益長。田園秋晚。松菊荒涼。單杯薄奠。爲罄守心。一慟。延前冀賜。昭臨。嗚呼痛哉。

明人韓德及

惟靈超然。造道粹乎。凝德接周。程統延晦。退脈士林。冠冕王庭。履頌衣錦。尚綱在。家必達。有聖當寧。求賢側席。時可展施。禮隆蒲璧。鳳凰乍儀。萬目爭拭。宸眷彌勤。素志難奪。丁茲不辰。禍亂孔酷。

旅軒先生續集卷十

三十三

手足倒懸。君臣蒙辱。蓋亦長往。彼巖斯託。武夷雲影。濂溪草色。吾道可傳。英材是育。域內烟塵。山中禮法。天不慙遺。忽摧樑木。國無人焉。疇任厥責。願惟不肖。叨守弊邑。獲邇德門。浼跡仁宅。靈輻載前。已矣莫及。爲公痛甚。哭吾私切。肆薦悃悃。庶歆菲薄。

姜弘重

太白巍巍。峻極于天。扶輿鬱積。磅礴蜿蜒。凝精鍾淑。應期千秋。降我先生。生此青邱。金堅玉潤。德宇如春。山立淵澄。膺智若神。允矣先生。展也大成。馨

우천집(愚川集)

형태서지

| | |
|--------|-----------------|
| 권수제 | 우천선생문집(愚川先生文集) |
| 판심제 | 우천집(愚川集) |
| 간종 | 목판본(木版本) |
| 간행년 | 1833년 간행 |
| 권책 | 7권 4책 |
| 행자 | 11행 21자 |
| 규격 | 20.6×16.4(cm) |
| 어미 | 上下二葉花紋魚尾 |
| 소장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 소장도서번호 | 奎 12275 |
| 총간집수 | 한국문집총간 속 29 |

저자

| | |
|------|--|
| 성명 | 정칙(鄭弼) |
| 생년 | 1601년(선조 34) |
| 몰년 | 1663년(현종 4) |
| 자 | 중칙(仲則) |
| 호 | 우천(愚川), 와운옹(臥雲翁) |
| 본관 | 청주(淸州) |
| 특기사항 | 이민성(李民晟)의 문인. 김응조(金應祖), 이시명(李時明), 유원지(柳元之) 등과 교류 |

행력

| | | | | | |
|----|----|----|----|----|----|
| 왕력 | 서기 | 간지 | 연호 | 연령 | 기사 |
|----|----|----|----|----|----|

| | | | | | | | |
|-----|----|------|----|----|----|----|--|
| 선조 | 34 | 1601 | 신축 | 萬曆 | 29 | 1 | 5 월 3 일, 안동(安東)에서 태어나다. |
| 광해군 | 8 | 1616 | 병진 | 萬曆 | 44 | 16 | 청주한씨 한여형(淸州韓氏 韓汝洞)의 딸과 혼인하다. |
| 광해군 | 11 | 1619 | 기미 | 萬曆 | 47 | 19 | 1 월, 부친상을 당하다. |
| 인조 | 2 | 1624 | 갑자 | 天啓 | 4 | 24 | 8 월, 부인 한씨의 상을 당하다. |
| 인조 | 5 | 1627 | 정묘 | 天啓 | 7 | 27 |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서 수학하다. |
| 인조 | 14 | 1636 | 병자 | 崇禎 | 9 | 36 | 여름, <논시사죄언 論時事罪言>을 짓다. |
| 인조 | 16 | 1638 | 무인 | 崇禎 | 11 | 38 | 천거로 장릉 참봉(章陵 參奉)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오잠 五箴>을 짓다. |
| 인조 | - | ~ | ~ | ~ | - | ~ | 남계(南溪)에 소정(小亭) ‘남간 南澗’과 소실(小室) ‘소와 笑窩’를 짓다. |
| 인조 | 26 | 1648 | 무자 | 順治 | 5 | 48 | 11 월, 모친상을 당하다. |
| 효종 | 2 | 1651 | 신묘 | 順治 | 8 | 51 | 4 월, 부친의 행장을 짓다. |
| 효종 | 3 | 1652 | 임진 | 順治 | 9 | 52 | 구성(龜城)의 남, 학가산(鶴駕山)의 북에 위치한 우천(愚川)에 이거하여 자호를 ‘우천 愚川’이라 하다. |
| 효종 | 5 | 1654 | 갑오 | 順治 | 11 | 54 | 우천정사(愚川精舍)를 짓다. |
| 현종 | 3 | 1662 | 임인 | 康熙 | 1 | 62 | 병산서원 동주(屏山書院 洞主)가 되다. |
| 현종 | 4 | 1663 | 계묘 | 康熙 | 2 | 63 | 11 월 21 일, 졸하다. |
| 현종 | 5 | 1664 | 갑진 | 康熙 | 3 | - | 안동부 어연동(安東府 魚淵洞)에 장사 지내다. |
| 순조 | 33 | 1833 | 계사 | 道光 | 13 | - | 從 6 代孫 정내천(鄭來川) 등이 목판으로 문집을 간행하다. |

기사전거 :

行狀(李裁 撰), 墓誌銘(李光庭 撰), 本集內容 등에 의함

편찬및간행

저자의 손자 정창흥, 정후흥(鄭昌興, 鄭後興)이 가첩(家牒)과 유권(遺卷)을 가지고 1703 년에 갈암 이현일(葛庵 李玄逸)(1627~1704)에게 행장과 유고의 교감을 청하였으나 이현일의 사망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716 년에 밀암 이재(密庵 李裁)(1657~1730)가 행장을 짓고, 유고를 교감한 후 1721 년에 서문을 지어 문집을 정리하였다.

그 후 1821 년에 從 6 代孫 鄭來成 등이 김시찬(金是瓚)(1754~1831)의 교정을 거쳐 저자의 백부 정사성(鄭士誠)의 「지헌집 芝軒集」과 부친 정사신(鄭士信)의 「매창집 梅窓集」을 목판으로 간행하고, 이어 1833 년에 6 대손 鄭來川과 鄭來任 등이 목판으로 7 권 4 책의 본집을 간행하였다. 《초간본》 이 본은 현재 규장각(奎 12275), 국립중앙도서관(한 46-가 623), 장서각(D3B-1440), 성균관대학교 존경각(D3B-786)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1833 년에 목판으로 간행한 초간본으로 규장각장본이다.

序(이재(李裁) 撰), 跋(유태좌(柳台佐) 撰), 識(鄭來成 撰), 本集內容 등에 의함

구성과내용

본집은 7 권 4 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권수에 1721 년에 李裁가 지은 序와 目錄이 있다.

권 1~2 는 詩(373 제)이다. 연대순으로 배열하였으며, 권 2 는 대체로 우천에 복거한 이후의 시들을 실었다. 김시침, 김도, 조명한, 장용우, 유경지, 유종지, **신흥망**(金時忱, 金燾, 趙鳴漢, 張龍遇, 柳敬之, 柳宗之, 申弘望) 등과 교유한 시가 많으며, 김봉조, 김휴, 김영조, 박瑋, 신열도(金奉祖, 金然, 金榮祖, 朴瑋, 申悅道) 등을 애도한 만시(26 제)와 자연을 완상하며 지은 시 등이 있다. 호란 후 소의 돌림병이 만연하여 지은 <정축세우온대행(丁丑歲牛瘟大行)>, 산림처사로 살기를 바라며 장릉 참봉을 사은하고 읊은 <사은후칠일(謝恩後七日)>, 1646 년에 장살(杖殺)된 임경업의 죽음을 애통해 하며 지은 <임장군사옥중 林將軍死獄中>, 남급(南磔)의 ‘유유헌, 반월당, 쌍매단 由由軒, 半月塘, 雙梅壇’ 등을 읊은 <차남공탁보유유헌십이영운 次南公卓甫由由軒十二詠韻>, 학가산 광흥사로 봄나들이하며 지은 <유광흥사정제익 遊廣興寺呈諸益>, 平海로 유배 가는 **신흥망**(申弘望)을 安東에서 추송(追送)하며 지은 <신지평망구부 申持平望久赴>, 1651 년에 박선(朴璿)이 세운 이오당에 부친 <기제박계헌이오당 寄題朴季獻二五堂>, 우천정사를 지을 즈음 학가산 용추의 풍광을 노래한 <과직곡룡추 過直谷龍湫> 등이 있다. 산과 호수로 둘러싼 우천에서 自樂하는 모습을 읊은 <우천잡영팔절 愚川雜詠八絕>, 즐하기 2 년 전에 仙界로 오게 되리라는 예지몽을 꾸고 지은 <우천기몽 愚川記夢>, 병산서원에 있을 때 지은 <첨병산원임 忝屏山院任>, 天災는 人災로 말미암음을 읊고 백성의 고통을 아파하며 읊은 <민한구점 悶旱口占>, <홍수탄 洪水嘆>, <음우탄 霖雨嘆>, 즐년에 죽음을 예감하며 지은 <칠석후일일 七夕後一日>, <야반부성면 夜半不成眠> 등이 있다.

권 3 은 賦(2), 箴(1), 銘(4), 文(2), 疏(1), 書(22)이다. 楊州 남쪽에 있는 도봉서원을 읊은 부 <도봉서원 道峯書院>, 한유가 38 세에 오잠을 지은 것을 본떠 ‘언, 욕, 교, 치, 명, 言, 慾, 交, 侈, 名’에 대해 지은 자경구(自警句(自警句) <오잠 五箴>, 1645 년 겨울에 한유의 송궁문을 의고하여 의인화한 文神과 과거낙방 후의 심경 등을 대화체로 읊은 <의송궁문 擬送窮文>, 金應祖·김시침·朴璿·李尙彦·**신흥망** 등과 주고받은 편지가 있다.

권 4 는 雜著(63)이다. 奇放한 내용의 「莊子」를 바르게 이해하고 읽는 법에 대한 <독장 讀莊>, 私意에 급급해 自強을 도모하지 못하는 時流를 통박하여 호란이 일어나자 先見으로 회자된 <논시사죄언 論時事罪言>, 「통감절요 通鑑節要」의 소략함을 지적하고 ‘산용보유 刪冗補遺’할 뜻을 밝힌 <관소미통감 觀少微通鑑> 등이 있다.

권 5 는 說(7), 跋(9), 序(4), 記(12), 傳(1)이다. 당 고종에게 장공예(張公藝)가 집안이 화목하게 된 비결로 ‘忍’ 字를 써서 올린 고사에 대한 <서진백인자설 書進百忍字說>, 내종제 이정기(李廷機)가 1646 년에 쓴 금강산 유력일록(遊歷日錄)에 부친 <제내제이자신유김강권후 題內弟李子慎遊金剛卷後>, 1637 년에 김도(金燾), 김시침과의 수창시 모음에 쓴 <수창시서 酬唱詩序>, 이정기의 연어정, 배유화의 령천암(鳶魚亭, 裴幼華의 泠泉菴), 김도의 葛溪 등에 부친 記와 「南華經」을 즐겨 읽으며 ‘無榮, 無得, 無求’로 일관한 삶에 대한 자전 <愚川隱者傳>이 있다.

권 6 은 辨(3), 祝文(1), 祭文(22), 墓誌(6), 碣銘(2)이다. 고려 말 일체의 관직을 버리고 고향 안동에 은거하다 조선 개국 후 자결한 桑村 金自粹를 「여지승람」에 ‘仕本朝’라고 기록한 것에 대한 분별인 <고려좌도관찰사김공자수사적변 高麗左都觀察使金公自粹事蹟辨>, 노림서원(魯林書院)에 제향된 분지 남치이(賁趾 南致利)에 대한 상향축문, 김봉조·鄭侏·鄭侗·김휴·김영조 등을 애도한 제문, 父·兄·母·妻 등에 대한 묘지와 호연하게 삶을 마친다는 내용의 자찬 <지갈명誌 碣銘> 등이 있다.

권 7 은 附錄으로 李裁가 지은 行狀, 李光庭이 지은 墓誌銘, 柳元之 등이 쓴 祭文(3), 金應祖 등이 쓴 輓辭(18)가 있다.

권미에 柳台佐가 쓴 跋, 1833 년에 從 6 代孫 鄭來成이 쓴 識와 遺墨 2 판이 있다.

輓辭[申弘望]

愚川先生文集卷之七 / 附錄

以才華旣賦君。胡爲落魄卧江濱。書樓日覺光陰促。司命還疑好惡分。脩夜卽今沈璧彩。此生何處襲蘭薰。惟餘篋裏珠璣在。留待侯巴識子雲。

申弘望 孤松



동계집(東溪集) 조형도(趙亨道)

형태서지

| | |
|--------|------------------------|
| 권수제 | 동계문집(東溪文集) |
| 판심제 | 동계집(東溪集) |
| 간종 | 목판본(木版本) |
| 간행년 | 미상(1845년 이후 간행) |
| 권책 | 목록(目錄), 원집(原集) 5권 합 3책 |
| 행자 | 10행 20자 |
| 규격 | 19.6×16.2(cm) |
| 어미 | 上黑魚尾 |
| 소장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
| 소장도서번호 | 古 3428-738 |
| 총간집수 | 한국문집총간 속 15 |

저자

| | |
|------|--|
| 성명 | 조형도(趙亨道) |
| 생년 | 1567년(명종 22) |
| 몰년 | 1637년(인조 15) |
| 자 | 경달(景達), 대이(大而) |
| 호 | 동계(東溪), 청계도사(淸溪道士) |
| 본관 | 함안(咸安) |
| 일명 | 원도(遠道) |
| 특기사항 | 정구(鄭述), 장현광(張顯光)의 문인. 오여벌(吳汝撥), 박이장(朴而章) 등과 교류 |

행력

| 왕력 | 서기 | 간지 | 연호 | 연령 | 기사 | |
|-----|----|------|----|-------|----|---|
| 명종 | 22 | 1567 | 정묘 | 隆慶 1 | 1 | 5월 20일, 안덕현(安德縣) 집에서 태어나다. |
| ~ | ~ | ~ | ~ | ~ | ~ | 백부 조우(趙堉)의 후사가 되다. |
| 선조 | 9 | 1576 | 병자 | 萬曆 4 | 10 | 겨울, 부친상을 당하다. |
| 선조 | 14 | 1581 | 신사 | 萬曆 9 | 15 | 조부상을 당하다. |
| 선조 | 16 | 1583 | 계미 | 萬曆 11 | 17 | 安德에서 민추(閔樞)에게 수학하다. |
| 선조 | 20 | 1587 | 정해 | 萬曆 15 | 21 | 咸安에서 한강 정구(寒岡 鄭逵)의 문하에 유학하다. ○ 이후 3 차례 향시(鄉試)에 합격하다. |
| 선조 | 25 | 1592 | 임진 | 萬曆 20 | 26 | 곽재우(郭再祐) 진영에 나아가 많은 공을 세워 특별히 훈련원 주부(訓練院 主簿)가 되다. |
| 선조 | 27 | 1594 | 갑오 | 萬曆 22 | 28 | 무과에 합격하다. ○ 겨울, 선전관 겸 비국랑(宣傳官 兼 備局郎)이 되고 이어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초자(超資)되다. |
| 선조 | 28 | 1595 | 을미 | 萬曆 23 | 29 | 7월, 청하 현감(淸河 縣監)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겨울, 경산 현령(慶山 縣令)이 되다. |
| 선조 | 32 | 1599 | 기해 | 萬曆 27 | 33 | 겨울, 生父喪을 당하다. |
| 선조 | 39 | 1606 | 병오 | 萬曆 34 | 40 | 가을, 고성 현령(固城 縣令)이 되다. |
| 선조 | 41 | 1608 | 무신 | 萬曆 36 | 42 | 가을, 창원 소모장(昌原 召募將)이 되다. |
| 광해군 | 1 | 1609 | 기유 | 萬曆 37 | 43 | 겨울, 김명윤(金明胤)의 참소와 강첨(姜籤)의 무고로 진양옥(晉陽獄)에 갇혔지만 이듬해 무죄임이 밝혀져 풀려나다. |
| 광해군 | 2 | 1610 | 경술 | 萬曆 38 | 44 | 겨울, 生母喪을 당하다. |
| 광해군 | 3 | 1611 | 신해 | 萬曆 39 | 45 | 가을, 모친상을 당하다. |
| 광해군 | 9 | 1617 | 정사 | 萬曆 45 | 51 | 9월, 토포장(討捕將)이 되어 탈옥수 이경기(李景祺) 일당을 소탕하다. |
| 광해군 | 14 | 1622 | 임술 | 天啓 2 | 56 | 겨울, 순변사 유비(巡邊使 柳斐)의 從事官이 되었다가 곧 경덕궁 위장(慶德宮 衛將)이 되다. |
| 인조 | 1 | 1623 | 계해 | 天啓 3 | 57 | 4월, 특명으로 보성 군수(寶城 郡守)가 되고, 해창(海倉)의 逋米 2800 석을 특별히 건감받다. |
| 인조 | 2 | 1624 | 갑자 | 天啓 4 | 58 | 李适의 난으로 인조가 公州로 파천하자 정예병을 이끌고 달려가다. |
| 인조 | 3 | 1625 | 을축 | 天啓 5 | 59 | 여름, 호위별장(扈衛別將)이 되었으나 겨울에 사직하다. |
| 인조 | 5 | 1627 | 정묘 | 天啓 7 | 61 | 4월, 부인상을 당하다. ○ 6월, 진주 영장, 상주 영장(晉州 營將, 尙州 營將)이 되었으나 곧바로 |

| | | | | | | | |
|----|----|------|----|----|----|----|--|
| | | | | | | | 사직하다. ○ 7 월, 槐山 郡守에 부임하였으나 겨울에 정사(呈辭)하여 사직하다. |
| 인조 | 7 | 1629 | 기사 | 崇禎 | 2 | 63 | 慶州 營將이 되다. |
| 인조 | 14 | 1636 | 병자 | 崇禎 | 9 | 70 | 12 월, 호란이 일어나자 관찰사 沈演의 忠原(忠州) 진영에 나아가다. |
| 인조 | 15 | 1637 | 정축 | 崇禎 | 10 | 71 | 2 월 8 일, 최명길(崔鳴吉)의 강화(講和) 소식을 듣고 우분(憂憤)에 등창이 나서 졸하다. ○ 8 월, 河陽縣 八公山 本寺洞에 장사 지내다. |

기사전거 :

行狀(李秉夏 撰), 墓誌銘(申楫 撰), 遺事(趙基永 撰) 등에 의함

편찬및간행

저자가 생전에 창석 이준(蒼石 李竣)(1560~1635), 오봉 신지제(梧峯 申之梯)(1562~1624) 등과 수창(酬唱)한 詩를 수록(手錄)한 사고(私稿) 약간 권이 가장(家藏)되어 있었다. 1812년에 5 세손 조윤창, 조응창(趙胤昌, 趙應昌)이 가장유고(家藏遺稿)를 등서(謄書)하여 4 책으로 만들었으나 간행하지는 못하였다.

그 뒤 7 대손 조기서, 조기평(趙基緒, 趙基平) 등이 저자 사후 수백 년이 지나면서 왕복 서한이나 상소, 조지(朝旨) 및 당시 제현들이 실상을 기술한 것들이 전해지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여 신즙(申楫)이 지은 묘지(墓誌)와 후손 집안에 있던 제현들의 挽詩를 모으고, 방손 趙基永(1764~1841)으로 하여금 遺事를 찬차(纂次)하게 하였으며, 1845년에 李秉夏가 행장을 지었다. 그리고 柳致明에게 서문을 받고 趙基祿의 발문을 실어 목판으로 문집을 간행하였다.《초간본》정확한 간행 연도는 미상이나 이병하가 행장을 지은 연도를 고려할 때 간행시기는 1845년 이후로 추정할 수 있다. 이 본은 규장각(古 3428-738), 국립중앙도서관(古 3648-文 72-97),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경남대학교 중앙도서관, 대구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1989년에 경상북도 청송군 소재 동계정 동계집국역편집위원회(東溪亭 東溪集國譯編輯委員會)에서 국역서를 간행한 바 있다.

본서의 저본은 1845년 이후에 7 대손 趙基緒 등이 목판으로 간행한 초간본으로 규장각장본이다. 본 영인 저본은 권 5는 板次 ‘四十’~‘四十一’이 중복되어 있다.

行狀(李秉夏 撰), 墓誌銘(申楫 撰), 遺事(趙基永 撰), 序(柳致明 撰), 跋(趙基祿 撰), 本集內容 등에 의함

구성과내용

본집은 目錄, 原集 5 권 합 3 책으로 되어 있다. 권두에 柳致明의 序와 전체 목록이 실려 있다.

권 1~3은 1 편의 賦와 443題의 詩이다. <추야제북두부 秋夜祭北斗賦>는 촉한(蜀漢)의 부흥을 위해 자신의 목숨이 조금 더 연장되기를 북두칠성에 기원하는 등의 제갈량(諸葛亮)의 절절한 심정

을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다. 시는 신지제, 오여벌, 박력, 신여섭(申之梯, 吳汝櫟, 朴櫟, 申汝涉) 등에게 보낸 것, 소유정, 하한정, 쌍계정, 망운정(小有亭, 夏寒亭, 雙溪亭, 望雲亭) 등에서 심경을 읊은 것 등과 북쪽 오랑캐에 대해 憤激한 마음에 지은 <문노적패맹옥동창래갈조정송신득연칙유 聞奴賊敗盟欲東搶來喝朝廷送申得淵敕諭>, <탄김로칭참호 歎金虜稱僭號>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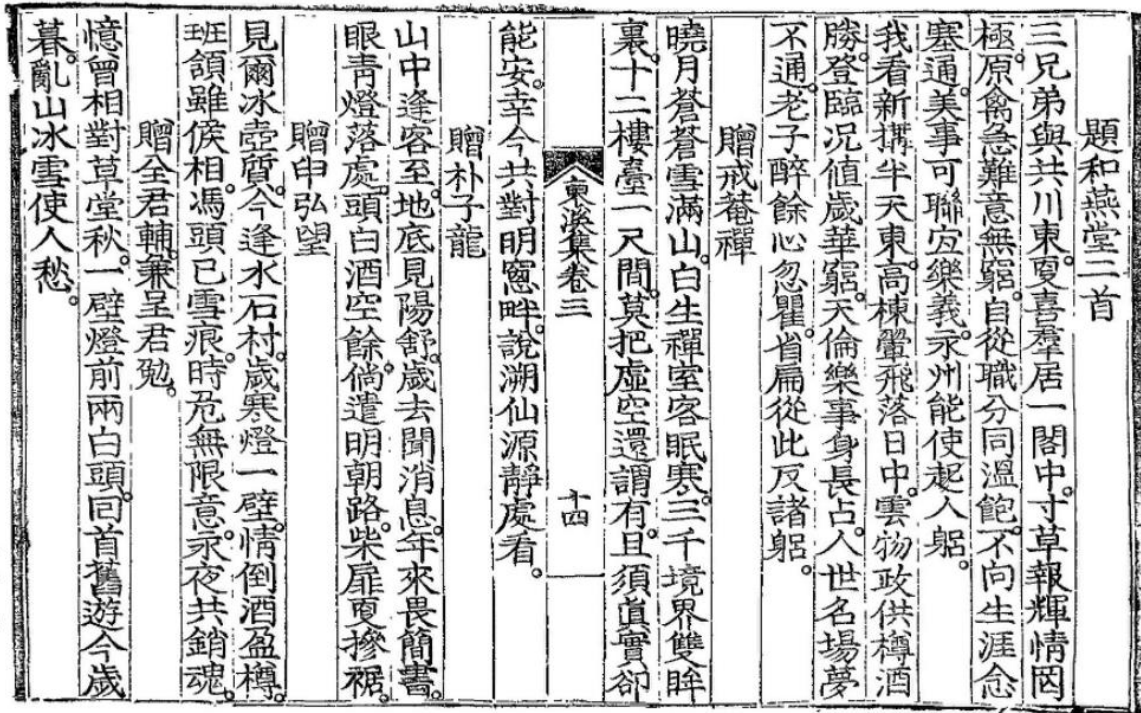
권 4는 疏(1), 書(11), 序(3), 記(2), 祭文(9), 行狀(1)이다. <사괴산군수소 辭槐山郡守疏>는 정묘호란 직후 과분하게 괴산 군수직을 받았으니 체차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명, 오운, 권응수(李溟, 吳漣, 權應銖)에게 보내는 편지는 시국에 관한 것이고, 손처눌, 채선길, 김세렴, 이준, 장내범(孫處訥, 蔡先吉, 金世濂, 李埈, 張乃範)과는 안부를 주고받은 편지글이다. 서와 기는 망운정(望雲亭)과 화연당, 오선동과 풍수당(和燕堂, 五仙洞과 風樹堂)에 대한 감회를 적은 내용이다. 제문은 장인 오운, 민추(吳漣, 閔樞), 매제 신지제, 김종효, 이준성, 권익(申之梯, 金宗孝, 李俊成, 權翊), 조부모개장, 숙부 조식(趙埴), 다섯째 아들 조함연(趙咸衍)에 대한 것이고, 행장은 吳漣에 대한 것이다.

권 5는 부록으로 全湜 등이 지은 輓詞 57 편과, 1845년에 李秉夏가 지은 행장, 申楫의 묘지명, 방손 趙基永의 遺事, 柳致皜가 지은 <덕봉사봉안문 德峯祠奉安文>, 洪良浩가 지은 <십삼충록서 十三忠錄序>이다.

권말에 이종상(李鍾祥)과 7대손 조기록(趙基祿)이 지은 跋이 실려 있다.

증신흥망 贈申弘望

見爾冰壺質。今逢水石村。歲寒燈一壁。情倒酒盈樽。班頷雖候相。馮頭已雪痕。時危無限意。永夜共銷魂。



만사[신흥망] 輓詞[申弘望]

東溪文集卷之五 / 附錄

惟我外先世。金羅冠冕族。一時文武才。赫赫聳耳目。吾舅挺英特。聲華早超俗。詩書是其業。弓馬非所欲。男兒有大志。少年厭局束。搶攘一投筆。介冑同馳逐。操毫如有神。豈但控鳴鏑。取譽名相門。汗 P 流文儒屬。平生宦路間。不肯隨涼燠。牛刀試割雞。歷典四郡牧。白首將營兵。薄官非推轂。時命乃大謬。拂衣辭榮祿。歸來水石鄉。高臥便幽獨。親近惟几杖。晚契存松竹。弟兄從談讕。遲暮慰寂寞。往者封豕突。陰風隨鐵木。江漢化為血。烽火被山岳。公卿草間啼。聖主園中辱。于時送舅氏。遠逐戎馬足。干戈阻起居。悵望山川遯。俄聞戰陣敗。逢人懼消息。生還幸慰意。時事驚翻覆。未試馬鞍據。誰知范疽劇。難望藥餌效。冀賴神明力。天胡降禍酷。奄忽於床褥。櫪馬似戀主。壁弓空留羈。瓢棄樽無綠。 P 魚乾書幾軸。音容難再奉。顧步涕橫臆。人生固有涯。世事又異昔。衣冠陷塗炭。文武為猿鶴。子遺日騷屑。稅駕焉所薄。滿目悲生事。公歸有何戚。餘生失依仰。往事思如昨。高堂奉鶴髮。獨愁西日迫。常存渭陽情。矧今便永隔。崆峒之山麓。卜得萬歲宅。香火定不缺。永賴安體魄。幽明自此訣。拜辭長慟哭。

三四六

下霍嫖姚。人生此日無如死。願作山河壯本朝。

又 全尊性

初年投筆志頗雄。當作干城捍海東。已老馮唐徒撫劔。可憐仁貴竟抱弓。如生惜死慙非義。惟命成疽發自忠。倚馬兵前誰草檄。秋空落日射長虹。

又 申弘望

惟我外先世。金羅冠冕族。一時文武才。赫赫聳耳目。吾舅挺英特。聲華早超俗。詩書是其業。弓馬非所欲。男兒有大志。少年厭局束。搶攘一投筆。介冑同馳逐。操毫如有神。豈但控鳴鏑。取譽名相門。汗流文儒屬。平生宦路間。不肯隨涼燠。牛刀試割雞。歷典四郡牧。白首將營兵。薄官非推轂。時命乃大謬。拂衣辭榮祿。歸來水石鄉。高臥便幽獨。親近惟几杖。晚契存松竹。弟兄從談讕。遲暮慰寂寞。往者封豕突。陰風隨鐵木。江漢化為血。烽火被山岳。公卿草間啼。聖主園中辱。于時送舅氏。遠逐戎馬足。干戈阻起居。悵望山川遯。俄聞戰陣敗。逢人懼消息。生還幸慰意。時事驚翻覆。未試馬鞍據。誰知范疽劇。難望藥餌效。冀賴神明力。天胡降禍酷。奄忽於床褥。櫪馬似戀主。壁弓空留羈。瓢棄樽無綠。

東溪集卷五 六

魚乾書幾軸。音容難再奉。顧步涕橫臆。人生固有涯。世事又異昔。衣冠陷塗炭。文武爲猿鶴。子遺日騷屑。稅駕馬所薄。滿目悲生事。公歸有何減。餘生失依仰。往事思如昨。高堂奉鶴髮。獨愁西日迫。常存渭陽情。矧今復永隔。崆峒之山麓。卜得萬歲宅。香火定不斂。永賴安體魄。幽明自此訣。拜辭長慟哭。

又

張乃範

四十年前識。四十年來昵。相逢口發笑。吐懷情密勿。每恨居相遠。盍簪也未數。青鳥雲水外。我忠兄

東溪集卷五

七

曰篤。洛水風月邊。兄憶我。應切情。書尚在案。七八載前札。筆力猶不老。卻羨精神矍。自謂吾兄壽。七十加三十。不欲觀世乎。是何幽行促。幽行者世皆。孰如吾兄福。二品極人爵。崇禎時。除級志願斯畢矣。于何嗟大耋。若使余臨喪。鼓缶歌送紼。

又

鄭四勿

文兼武并用。齒與爵俱尊。庭茁芝蘭茂。樓輝棗萼繁。浮雲過大昊。寒月鎖秋原。世事堪無覺。不亾者是存。

又

郭衛國

경정집(敬亭集) 이민성(李民成)

형태서지

| | |
|--------|--------------------------------|
| 권수제 | 경정선생집(敬亭先生集) |
| 판심제 | 경정집(敬亭集) |
| 간종 | 목판본(木版本) |
| 간행년 | 原集 1664年頃刊, 續集 正祖末頃刊. |
| 권책 | 目錄, 原集 14권, 續集 4권 합 10책 |
| 행자 | 10행 19자 |
| 규격 | 19.9×15(cm) |
| 어미 | 上下二葉花紋魚尾 |
| 소장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
| 소장도서번호 | 도서번호 : 4-5744, 필름번호 : M35-1741 |
| 총간집수 | 한국문집총간 76 |

저자

| | |
|------|--------------------------------|
| 성명 | 이민성(李民成) |
| 생년 | 1570년(선조 3) |
| 몰년 | 1629년(인조 7) |
| 자 | 관보(寬甫) |
| 호 | 경정(敬亭) |
| 본관 | 영천(永川) |
| 특기사항 | 김성일(金誠一), 정구(鄭述), 장현광(張顯光)의 문인 |

행력

| 왕력 | 서기 | 간지 | 연호 | 연령 | 기사 |
|------|------|----|------|----|------------------------------------|
| 선조 3 | 1570 | 경오 | 隆慶 4 | 1 | 11월 8일, 의성현 소시랑리(義城縣 蘇侍郎里)에서 태어나다. |

| | | | | | | | |
|---------|----|------|----|----|----|----|---|
| 선조 | 19 | 1586 | 병술 | 萬曆 | 14 | 17 | 양양권씨(襄陽權氏)와 혼인하다. |
| 선조 | 21 | 1588 | 무자 | 萬曆 | 16 | 19 | 봄, 학봉 김성일(鶴峯 金誠一)의 문하에 나아가다. |
| 선조 | 22 | 1589 | 기축 | 萬曆 | 17 | 20 | 9월, 모친상을 당하다. |
| 선조 | 25 | 1592 | 임진 | 萬曆 | 20 | 23 | 봄, 부친을 모시고 강릉 임소(江陵 任所)로 가다. |
| 선조 | 27 | 1594 | 갑오 | 萬曆 | 22 | 25 | 9월 부인 權氏의 상을 당하다. |
| 선조 | 28 | 1595 | 을미 | 萬曆 | 23 | 26 | 2월, 南以仁의 女 의령남씨(宜寧南氏)와 혼인하다. ○ <봉황래의부 鳳凰來儀賦>를 짓다. |
| 선조 | 30 | 1597 | 정유 | 萬曆 | 25 | 28 | 4월, 정시(庭試)에 합격하다. 승문원 권지부정자가 되어 춘추관 기사관을 겸하다. |
| 선조 | 32 | 1599 | 기해 | 萬曆 | 27 | 30 | 부친을 모시고 忠州 任所에 다녀오다. |
| 선조 | 33 | 1600 | 경자 | 萬曆 | 28 | 31 | 12월, 正字가 되다. |
| 선조 | 34 | 1601 | 신축 | 萬曆 | 29 | 32 | 1월, 著作이 되고, 奉常寺 直長, 博士를 역임하다. |
| 선조 | 35 | 1602 | 임인 | 萬曆 | 30 | 33 | 윤 2월, 승정원 주서가 되다. ○ 4월, 시강원 설서를 거쳐 사서가 되다. ○ 10월, 전적 겸 감찰이 되고, 왕세자책봉주청사 서상관(王世子冊封奏請使 書狀官)으로 北京에 가다. |
| 선조 | 36 | 1603 | 계묘 | 萬曆 | 31 | 34 | 1월, 孤竹城에 도착하다. ○ 5월, 돌아오다. ○ 6월, 예조 좌랑, 병조 좌랑이 되다. ○ 겨울, 張顯光을 따라 빙계서원(冰溪書院)으로 가서「周易」을 강하다. |
| 선조 | 37 | 1604 | 갑진 | 萬曆 | 32 | 35 | 2월, 전적이 되다. ○ 12월, 병조 정랑이 되다. |
| 선조 | 38 | 1605 | 을사 | 萬曆 | 33 | 36 | 3월, 제주 점마어사(濟州 點馬御史)로 나가다. |
| 선조 | 39 | 1606 | 병오 | 萬曆 | 34 | 37 | 여름, 동생 자암공 이민환(紫巖公 李民奐)과 함께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오다. |
| 선조 | 41 | 1608 | 무신 | 萬曆 | 36 | 39 | 2월, 선조가 승하하고, 곧 持平이 되다. ○ 6월, 시강원 문학이 되다. ○ 겨울, 사가독서(賜暇讀書)하다. |
| 광해 군 | 1 | 1609 | 기유 | 萬曆 | 37 | 40 | 봄, 弘文錄에 들다. ○ 7월, 부친상을 당하다. |
| 광해 군 | 4 | 1612 | 임자 | 萬曆 | 40 | 43 | 봄, 冷泉亭을 짓다. |
| 광해 군 | 5 | 1613 | 계축 | 萬曆 | 41 | 44 | 5월, 예조 정랑이 되다. ○ 6월, 교리가 되다. 23일, 상차(上筮)하여 정조, 윤인(鄭造, 尹訥) 등이 모후(母后)를 폐(廢)하려 모의한 죄를 논하다. ○ 9월, 이덕형(李德馨)을 논구(論救)하다가 파직되다. |
| 광해 군 | 6 | 1614 | 갑인 | 萬曆 | 42 | 45 | 7월, 부수찬이 되다. ○ 9월, 關西 京試官이 되다. ○ 10월, 교리가 되었다가 일로 파직되다. ○ 崔暉과 修淨寺에 노닐다. |
| 광해 | 7 | 1615 | 을묘 | 萬曆 | 43 | 46 | 1월, 司果가 되다. ○ 8월, 李元翼을 伸救하다가 때 |

| | | | | | | | |
|-----|----|------|----|----|----|----|--|
| 군 | | | | | | | 마침 일어난 金尙憲이 지은 賀箋 문제로 삭탈관작되다. 이후 두문불출하며 性理學에 전념하다. |
| 광해군 | 12 | 1620 | 경신 | 泰昌 | 1 | 51 | 1 월, 鄭逵를 곡하다. ○ 동생 李民寅을 만나러 關西에 다녀오다. |
| 광해군 | 13 | 1621 | 신유 | 天啓 | 1 | 52 | 4 월, 張顯光을 따라 冰溪書院에서 經義를 講論하다. |
| 인조 | 1 | 1623 | 계해 | 天啓 | 3 | 54 | 3 월, 仁祖 反正이 일어난 뒤 奏聞使 書狀官이 되어 宗簿寺 正의 벼슬로 중국에 가다. |
| 인조 | 2 | 1624 | 갑자 | 天啓 | 4 | 55 | 4 월, 돌아와 司成 兼 執義가 되다. ○ 5 월,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연차창수집(燕槎唱酬集)을 편집하다. |
| 인조 | 3 | 1625 | 을축 | 天啓 | 5 | 56 | 5 월, 등부승지가 되다. <상현서원기 象賢書院記>를 짓다. |
| 인조 | 4 | 1626 | 병인 | 天啓 | 6 | 57 | 2 월, 우승지가 되다. <논김포장산제살법헌의계 論金浦葬山制殺法獻議啓>, <백홍관일계사 白虹貫日啓辭>와 <청침배원계사 請寢拜園啓辭>를 올린다. |
| 인조 | 5 | 1627 | 정묘 | 天啓 | 7 | 58 | 봄, 胡亂이 일어나자 영남소호사 장현광(嶺南召號使 張顯光)의 추천으로 慶尙左道 義兵大將이 되다. ○ 3 월, 江都 행재소로 가서 호가(扈駕)하여 환조(還朝)하다. ○ 4 월, 고향으로 돌아오다. ○ 11 월, 좌승지, 우승지가 되다. |
| 인조 | 6 | 1628 | 무진 | 崇禎 | 1 | 59 | 1 월, 좌승지가 되다. ○ 4 월, 명을 받고 江陵에 가서 집경전 영정(集慶殿 影幀)을 봉심하고 論啓하다. ○ 6 월, 좌승지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 인조 | 7 | 1629 | 기사 | 崇禎 | 2 | 60 | 4 월, 형조 참의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7 월, 冰溪에 가서 張顯光의 講會에 참석하다. ○ 8 월 15 일, 병으로 冰月堂에서 졸하다. ○ 11 월 3 일, 義城縣 서쪽 霞峴에 장사 지내다. |
| 현종 | 5 | 1664 | 갑진 | 康熙 | 3 | - | 이즈음 아들 李廷機가 문집을 간행하다.(鄭斗卿의 序) |
| 현종 | 13 | 1672 | 임자 | 康熙 | 11 | - | 士林이 장대서원(藏待書院)에 位版을 봉안하다. |
| - | - | 1928 | 무진 | - | - | - | 義城 冷泉亭에서 續集, 年譜, 附錄 등을 모두 합쳐서 문집을 重刊하다. |

기사전거 :

年譜, 朝鮮王朝實錄 등에 의함

편찬및간행

저자의 시문은 생전에 편집해 둔 연차창수집(燕槎唱酬集) 등이 가장(家藏)되어 있었으나 많은 작품이 산일(散佚)되었고, 남은 것들을 동생 이민환(李民奐)이 수습하여 수천 首를 선사(繕寫)해서 정고본(定稿本)을 만들고 판각하려 하였다. (행상, 신열도 찬 行狀, 申悅道 撰) 실제 그는 1630년에 張顯光에게 광명(曠銘)을 부탁하여 받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가 1649년에 세상을 떠남으로써 간행을 보지는 못하였다.

그 후 李民奐의 아들이자 저자의 양자인 이정기(李廷機)가 1659년 順天 府使로 나가게 되면서 문집을 간행하려고 조경(趙綱)에게 序文을 받았으나 이루지 못하고, 다시 1664년 서흥 부사(瑞興 府使)로 나가게 되면서 재차 정두경(鄭斗卿)에게 序文을 받아 간행하려 하였다. 실제 이때 문집이 간행되었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현재 13 권으로 남아 있는 原集이 이때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李廷機가 권 13의 끝에 붙인 보유(補遺) 〈옥당처치차 玉堂處置筭〉의 識에 “편차(編次)한 뒤에 수습하였기에 문집의 맨 끝에 기록한다.”고 하였으니, 13 권으로 편차한 자가 李廷機임을 알 수 있다. 또 국립중앙도서관장본(한 46-가 1083)의 13 권 4 책 목판본의 印記에 송시열(宋詩烈)(1607~1689)의 印이 찍혀 있으니, 늦어도 1689년 이전에는 간행된 것인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1664년경에 곧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李廷機는 李民奐이 만들어 놓았던 定稿本을 그대로 살리고 다시 詩 2 권을 別集과 續集으로 첨가하여 권 10과 11로 편차하였다. 권 12와 13의 賦와 文도 새로 편차한 것이다. 현재 규장각(奎 5348)과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본이 이때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원집 초간본》

그런데 1739년에 玄孫 李命天이 지은 家狀에는 “文集 12 권이 세상에 통행하고 朝天錄 5 권이 家藏되어 있다.” 하였고, 1794년에 丁範祖(1723~1801)가 지은 行狀에도 “敬亭集 12 권이 세상에 통행하고 있다.” 하였다. 그리고 1796년에 완성된 「루판고 鑲板考」에도 敬亭集 12 권의 판목이 義城 藏待書院에 소장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12 권과 13 권이라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 남아 있는 원집은 모두 목판본 13 권뿐이다. 위의 두 본과 장서각장본(4-5744),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장본(D1-A837), 연세대 중앙도서관장본 등이 다 그렇다. 또한 이헌경(李獻慶)(1719~1791)의 「良翁集」에 나오는 〈경정선생유집발 敬亭先生遺集跋〉에는 구체적인 간행 경위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고, 다만 그의 詩에 대하여 극찬하고 詞·賦·序·記 등도 훌륭하다고 평하였다. 현존본에는 1~11 권이 詩이고, 12 권이 賦·辭·表, 13 권이 記·序·論·議啓 등이다. 따라서 李獻慶이 본 것도 이 13 권본이었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결론지어 말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서의 원집 저본은 장서각장본인데, 규장각장본과 비교하였을 때 字體가 다르고 補刻한 흔적이 역력하다. 따라서 이는 보각후쇄본(補刻後刷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속집이나 연보의 字體와도 달라 보각의 시기를 정확히 잡을 수 없다. 다만 장서각장본에는 규장각장본과는 달리 原集의 目錄이 붙어 있고, 거기에 年譜와 附錄을 권 14로 편차해 놓았다. 이로 미루어 보면 혹 年譜와 續集이 간행된 시기를 즈음하여 補刻이 이루어지고, 이 목록도 집어넣어 인쇄한 것이 아닐까 짐작된다.

이 年譜와 續集의 간행은 저자의 玄孫 李命天에 의해 시도되고 그의 손자 李祥發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李命天은 1739년에 家藏 文字와 日記를 모아 家狀을 만들었고, 李祥發은

丁範祖에게 行狀을, 채제공(蔡濟恭)에게 墓誌銘을 부탁하여 받았다. 丁範祖와 蔡濟恭이 이를 지어준 것은 그 말미의 관직명으로 미루어 볼 때 1794 년경이었던 것으로 보이니, 실제 간행은 1794 년 이후에 된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1796 년에 완성된「鏤板考」에 속집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1796 년 이후 正祖 末年 즈음에 간행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때는 이미 李命天이 졸한 뒤이므로 李祥發의 주도로 年譜 2 권, 續集 4 권의 목판본이 정조 말년 즈음에 간행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이즈음에 원집도 보각, 후쇄되어 속집, 연보와 함께 결책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장서각, 연세대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본이다.《연보와 속집 초간》

그 후 1928 년에 義城 冷泉亭에서 原集 13 권과 續集 4 권, 年譜 1 권, 附錄 1 권을 합하여 19 권 9 책으로 重刊하였는데, 그 간행 경위는 자세하지 않다.《중간본》 현재 국립중앙도서관(한 46-가 1047)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위에서 설명한 장서각장본(4-5744)이고, 이를 촬영한 同館所藏 마이크로필름(M35-1741)을 썼다. 다만 원집, 속집, 연보의 순으로 結冊되어 있는 것을 目錄에 따라 원집, 연보, 속집의 순으로 바로잡았고, 연보를 원집 권 14 로 편차하였다.

序(趙綱·鄭斗卿 撰), 行狀(申悅道·丁範祖 撰), 家狀(李命天 撰) 등에 의함

구성과내용

본집은 目錄, 原集 14 권, 續集 4 권 합 10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目錄은 原集의 것이고, 續集 目錄은 속집 권두에 따로 실려 있다.

原集은 원집 13 권과 補遺, 年譜로 되어 있다.

권 1~11 은 詩이다. 1592 년에 江陵 任所로 부친을 모시고 갔을 때 지은 <배등북성 陪登北城>을 시작으로 대체적으로 저작 연대순으로 편차하였다. 권 1~4 는 1592 년의 작품부터 1623 년 인조반정으로 다시 관직에 나오기 전까지의 작품이다. 여기에는 <알이제묘 謁夷齊廟> 등 1602 년 왕세자책봉주청사 서상관(王世子冊封奏請使 書狀官)으로 중국에 다녀오면서 지은 시들이 다수 들어 있고, <浮海> 등 1605 년 濟州의 점마어사(點馬御史)로 다녀오면서 지은 시들도 있다. 1617 년에 지은 <打麥詞>는 崔岾으로부터 “文力이 아건(雅健)하니 今人の 口氣가 아니다.”는 극찬을 받기도 한 작품이다. 권 5 에는 명 나라 大復 何景明의 七言律에 和韻한 시 150 여 수가 실려 있는데, 저작 연대순 편차 원칙으로 볼 때 1623 년 전후 고향에 있으면서 독서에 전념할 때 지어진 것 같다.

권 6~8 은 연차창수집(燕槎唱酬集) 上·中·下로, 인조반정 후 奏聞使 書狀官으로 중국에 다녀오는 동안 지은 시들을 모은 것인데, 함께 갔던 副使 白沙 尹暄과 나눈 시가 다수이다. 저자는 중국인들로부터 ‘李謫仙先生’이라 불리울 정도로 시에 있어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1624 년 이후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있을 때 편집한 것이다. 권 9 는 1624 년 4 월 중국에서 돌아온 이후 1629 년 졸할 때까지의 작품이다. 권 10 은 詩의 別集으로 月課와 문신정시(文臣庭試)때 지은 작품 등이 실려 있고, 권 11 은 詩의 續集으로 연대가 불분명한 시들을 따로 모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권은 아들 李廷機가 原集을 간행하면서 새로 편차한 것으로 보인다.

권 12는 賦 11 편, 辭 2 편, 表 6 편이다. 賦 가운데는 <봉황래의 鳳凰來儀>가 유명한데, 1595년 26세에 지은 작품이다. 辭는 <화귀거래사 和歸去來辭>와 月課로 지은 <조혼돈사사 弔混沌死辭>가 있다. 表에는 月課로 지은 <의송감남악묘 擬宋監南嶽廟> 등과 <령의정리항복사도부윤비답 領議政李恒福四度不允批答>, <연어정상량문 鳶魚亭上樑文>, <사륙정수서 四六精粹序> 등과 잡려문(雜儷文)이 실려 있다. 上樑文이나 序는 권 13의 雜著나 序에 함께 실어도 될 듯한데 굳이 여기에 실은 것은 권 12까지를 韻文 성격의 글을 모은 것으로 구분하려 한 것 같다.

권 13은 기, 서, 론, 제문, 명, 찬, 의계, 제발, 잡저(記, 序, 論, 祭文, 銘, 讚, 議啓, 題跋, 雜著)를 모아 놓았다. 記에는 1609년에 선위사(宣慰使)를 대신하여 현소(玄蘇)에게 지어준 <정암기 酇庵記>, 1604년 관서백 김신국(關西伯 金薰國)을 위하여 지어준 <망일헌기 望日軒記> 등이 있다. 序는 送序 3편으로 권 12에 실린 序와 구분되어 있다. 論은 <동해무조석론 東海無潮汐論>, <맹자부존주론 孟子不尊周論>, <계백론 階伯論> 등이다. <동해무조석론 東海無潮汐論>은 1609년 弘文錄에 든 뒤 課題로 지은 것으로, 東海에 潮汐이 없다 하는 것은 見聞이 편벽한 소치임을 논하였다. 議啓는 <政院白虹貫日啓辭> 등 1625년에 올린 계사 3편과 1628년에 集慶殿을 봉심하고 온 뒤 올린 계사가 실려 있다. 雜著 가운데는 1623년 인조반정 뒤 중국에 올린 <변무정문 辨誣呈文>과 太極의 動靜 등을 논한 策問이 주목된다.

또한 여느 문집과는 달리 疏筭가 실려 있지 않은데, 이는 자신의 자취를 남기지 않으려 한 저자의 의도 때문이었다. 이에 아들 李廷機가 政院日記에서 수습하여 권 13의 끝에 補遺로 계축년 6월 23일의 玉堂處置筭를 넣었던 것이다.

권 14는 年譜와 附錄이다. 원래 2권으로 되어 있던 것을 본 총간에서는 목록에 따라 원집 14권으로 합하여 편찬한 것이다. 附錄에 행상, 광명, 묘지명, 가상(行狀, 壙銘, 墓誌銘, 家狀), 기타 祭文과 만사, 장대서원 봉안문(挽詞, 藏待書院 奉安文) 등이 들어 있다.

續集은 4권으로, 朝天錄 上·中·下 3권과 奏本, 啓辭와 拾遺를 모은 1권이 그 내용이다. 朝天錄은 인조반정 이후 주문사 서상관(奏聞使 書狀官)으로 중국에 다녀올 때의 기록으로, 1623년 4월부터 1624년 4월까지의 旅程과 활동 사항을 적었다. 1624년 5월 이후 고향으로 돌아와 있는 동안 편집한 것이다. 奏本과 啓辭 모두 이 시기에 올린 公文이다. 습유(拾遺)로는 교, 계, 기, 제발(教, 啓, 記, 題跋) 한 두 편씩이 실려 있다.

만사[진사신흥망] 輓詞[進士申弘望]

敬亭先生集年譜卷之二 / 附錄

玉壺秋水炯無塵。流俗頽波獨自珍。華國清文追雅頌。匡君直筆炳彝倫。儒林方切依歸望。邦 P 運還逢殄瘁辰。叫向蒼穹何奪速。聖朝難得棟梁臣。

三道泰誰構 兩宮仇政亂綱常廢權移趙孟
偷公時扶大義憤筆護長秋直道歸三黜閒情
付七休風塵宦海遠松桂故山幽十載仍丹悃
餘生欲白頭幸逢王者作方展學而優舊德繼
衣敝新恩墜履收嚴程荷擔重危命等毛輜一
札龍墀奏千年燕翼謀功光應在此勳業竟歸
曠腐鼠方爭赫祥鸞恐實儔楓宸猶注意樞密
幾司喉大任天將降賢才鬼必讎蛇年嗟易感
駒隙悵難留邦殄關時運人亡之遠猶異時蒙
一許同氣得相求朽木從繩直癡繩託驥遊德

敬亭集附錄

四十五

音心已會明訓骨堪鏤往事思如昨遺芳挹莫
由公私俱涕淚魂魄倘知不

又

進士崔東巢

申甫生周嶽降精酉酉符彩振家聲吹噓勳業
青冥上補黻文章白日明憂國一心猶進退愛
君丹悃是平生謂言抱負終施設天奪如何夢
兩楹

又

進士申弘望

玉壺秋水炯無塵流俗頽波獨自珍華國清文
追雅頌匡君直筆炳彝倫儒林方切依歸望邦

運還逢殄瘁辰叫向蒼穹何奪速聖朝難得
棟梁臣

藏待書院奉安文

郡守金啓光

懿德之好無間哲愚寔出彝彙神明之享報侑
是圖賈由誠敬至行敦薄高風激偷在古罕並
柯則匪遠粉榆接區粵有先正山嶽我鎮星斗
我盱我思則求有儼書屋略備規模依如壇杏
俎豆斯設聲氣相孚公議已定追惟往躅誦其
典謨若接咳聲顯允梧峯天賦特殊孝家餘慶
塤唱箴和規步端趨惕若三省戒色之年目不
視姝淫邪自逆大鳴王庭初闢晉途專城即
請遭亂忘身周躬恤孤義烈炳炳烏府避駭合
浦還珠冰清桂勁時運一變憂樂江湖惟安義
命終慕蓼莪老篤烏哺曾閔之行推而友愛一
視髮膚祥覽之性卓彼敬亭玉衡冰壺風儀峻
整學窮天人才駕王蘇大名早騁獨立昏辰正
論是扶羣小縮頸藝苑高馳無與齊驅望屬文
柄退之祭纓李札觀周夷夏播詠素性不在世
路崎嶇曲難和郢一室蕭然左右圖書跡謝李
孟樂行憂違聞與道俱不容何病知命之陶獨

敬亭集附錄

四十六

孟樂行憂違聞與道俱不容何病知命之陶獨

수은유집(睡隱遺集) 이홍조(李弘祚)

형태서지

| | |
|--------|------------------------|
| 권수제 | 수은선생유집(睡隱先生遺集) |
| 판심제 | 수은선생유집(睡隱先生遺集) |
| 간종 | 목판본(木版本) |
| 간행년 | 간행 연도 미상(1771 년 이후 간행) |
| 권책 | 2 권 1 책 |
| 행자 | 10 행 18 자 |
| 규격 | 19.9×15.3(cm) |
| 어미 | 上下二葉花紋魚尾 |
| 소장처 | 국립중앙도서관 |
| 소장도서번호 | 한 46-가 1329 |
| 총간집수 | 한국문집총간 속 25 |

저자

| | |
|------|------------------------------------|
| 성명 | 이홍조(李弘祚) |
| 생년 | 1595 년(선조 28) |
| 몰년 | 1660 년(현종 1) |
| 자 | 여확(汝廓) |
| 호 | 수은(睡隱) |
| 본관 | 한산(韓山) |
| 특기사항 | 이재욱(李再煜), 유인배(柳仁培), 김시온(金是榘) 등과 교유 |

행력

| 왕력 | 서기 | 간지 | 연호 | 연령 | 기사 |
|-------|------|----|-------|----|---------------------------------|
| 선조 28 | 1595 | 을미 | 萬曆 23 | 1 | 10 월 17 일, 피난 중 전라도 咸悅郡에서 태어나다. |

| | | | | | | | |
|-----|----|------|----|----|----|----|---|
| 선조 | 31 | 1598 | 무술 | 萬曆 | 26 | 4 | 11 월, 부친상을 당하다. |
| 선조 | 35 | 1602 | 임인 | 萬曆 | 30 | 8 | 모친과 함께 河上으로 가서 외조 柳成龍을 만나다. 책을 읽고 칭찬을 받다. |
| 선조 | 40 | 1607 | 정미 | 萬曆 | 35 | 13 | 3 월, 유성룡이 졸하자 모친을 따라 분상(奔喪)하다. ◦ 외숙 柳珍에게 수학하다. |
| 광해군 | 4 | 1612 | 임자 | 萬曆 | 40 | 18 | 영양남씨 남황(英陽南氏 南煌)의 딸과 혼인하다. ◦ 상경하여 유진을 만나다. |
| 광해군 | 7 | 1615 | 을묘 | 萬曆 | 43 | 21 | 7 월, 모친상을 당하다. |
| 광해군 | 9 | 1617 | 정사 | 萬曆 | 45 | 23 | 9 월, 상을 마치다. ◦ 폐모론이 일어나자 일직현 원동리(一直縣 院洞里)에 우거하다. ◦ 溪堂을 짓고 서재로 삼다. |
| 광해군 | 13 | 1621 | 신유 | 天啓 | 1 | 27 | 聞韶(義城) 氷溪書院에서 독서하다. ◦ 심원록(尋院錄)에서 鄭造의 이름을 도삭(刀削)하다. |
| 인조 | 1 | 1623 | 계해 | 天啓 | 3 | 29 | 반정이 일어나자 처음으로 과거에 응시하다. |
| 인조 | 2 | 1624 | 갑자 | 天啓 | 4 | 30 | 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정경세, 이준(鄭經世, 李俊)과 起義를 논의하다. |
| 인조 | 9 | 1631 | 신미 | 崇禎 | 4 | 37 | 5 월, 옥연서원(玉淵書院)을 유람하다. ◦ 8 월, 상경하여 別科에 응시하다. |
| 인조 | 13 | 1635 | 을해 | 崇禎 | 8 | 41 | 1 월, 유진을 곡하다. ◦ 상경하여 과거에 응시하다. |
| 인조 | 14 | 1636 | 병자 | 崇禎 | 9 | 42 | 상경하여 과거에 응시하다. ◦ 12 월,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義兵將으로 추대되다. |
| 인조 | 15 | 1637 | 정축 | 崇禎 | 10 | 43 | 2 월, 三太師를 제향하다. ◦ 聞慶에서 嶺南都義將 全湜과 합류하여 남한산성으로 진군하려 하였으나 화의가 성립되자 의병을 해산하다. ◦ 겨울, 宣敎郎 自如道 察訪이 되다. ◦ 안동 유생들과 함께 張顯光을 제향하다. |
| 인조 | 16 | 1638 | 무인 | 崇禎 | 11 | 44 | 1 월, 상경하여 사은하고 임소로 가다. ◦ 8 월, 말미를 받아 안동으로 돌아오다. ◦ 9 월, 差使員으로 상경하다. ◦ 12 월, 承訓郎이 되다. |
| 인조 | 17 | 1639 | 기묘 | 崇禎 | 12 | 45 | 7 월, 승의랑(承議郎)이 되다. ◦ 봉직랑(奉直郎)이 되다. |
| 인조 | 18 | 1640 | 경진 | 崇禎 | 13 | 46 | 1 월, 형 이창조를 곡하다. ◦ 병으로 사직하다. ◦ 7 월, 통선랑 상의원 직장(通善郎 尙衣院 直長)이 되다. |
| 인조 | 19 | 1641 | 신사 | 崇禎 | 14 | 47 | 10 월, 영접도감 량청(迎接都監 郎廳)이 되다. |
| 인조 | 20 | 1642 | 임오 | 崇禎 | 15 | 48 | 12 월, 通德郎 義禁府 都事가 되다. |
| 인조 | 21 | 1643 | 계미 | 崇禎 | 16 | 49 | 4 월, 朝奉大夫가 되다. ◦ 11 월, 懷仁 縣監이 되다. |
| 인조 | 22 | 1644 | 갑신 | 順治 | 1 | 50 | 4 월, 奉列大夫가 되다. |
| 인조 | 23 | 1645 | 을유 | 順治 | 2 | 51 | 2 월, 中直大夫가 되다. ◦ 5 월, 부인상을 당하다. ◦ 9 월, 通訓大夫가 되다. |

| | | | | | | | |
|----|----|------|----|----|----|----|---|
| 인조 | 24 | 1646 | 병술 | 順治 | 3 | 52 | 2 월, 관직을 그만두고 낙향하다. |
| 인조 | 25 | 1647 | 정해 | 順治 | 4 | 53 | 김시은(金是楹)에게 편지를 보내 「학봉집 鶴峯集」 간행에 대해 의논하다. |
| 인조 | 26 | 1648 | 무자 | 順治 | 5 | 54 | 2 월, 청성서원(靑城書院)에서 이정수(李庭秀)를 만나 「학봉집」 간행에 대해 의논하다. |
| 인조 | 27 | 1649 | 기축 | 順治 | 6 | 55 | 4 월, 「학봉집」을 간행하다. |
| 효종 | 1 | 1650 | 경인 | 順治 | 7 | 56 | 11 월, <영남유생소 嶺南儒生疏>를 짓다. |
| 효종 | 4 | 1653 | 계사 | 順治 | 10 | 59 | 2 월, 장인 南煌을 곡하다. |
| 효종 | 5 | 1654 | 갑오 | 順治 | 11 | 60 | 「가례주해 家禮註解」를 편찬하다. |
| 효종 | 6 | 1655 | 을미 | 順治 | 12 | 61 | 3 월, 柳元定을 곡하다. ○ 4 월, 석문정사(石門精舍)를 유람하다. |
| 효종 | 7 | 1656 | 병신 | 順治 | 13 | 62 | 司圃署 別提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9 월, 金時忱, 이설(李潑)과 광흥사(廣興寺)를 유람하다. |
| 현종 | 1 | 1660 | 경자 | 順治 | 17 | 66 | 3 월 13 일, 졸하다. ○ 義城縣 北長洞에 장사 지내다. |
| 영조 | 47 | 1771 | 신묘 | 乾隆 | 36 | - | 安東 西山影堂에 배향되다. |

편찬및간행

李光庭의 서문에 의하면 저자는 평소 시문을 일삼지 않았기에 저자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시문 약간을 수집하여 본집을 편찬하였다고 한다. 원래 저자의 증손 李泰和는 본집의 감정(勘定)과 序文을 이재(李裁)에게 맡기고자 하였는데 이재가 세상을 떠나자 이광정에게 부탁하였던 것이다. 본집의 부록에 실린 행장은 이재가 지은 것인데 이재가 세상을 떠난 뒤 저자의 행적이 추가로 밝혀지자 이태화는 이광정에게 부탁하여 그 내용을 後敍로 덧붙이도록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아 문집의 편찬을 주도한 인물은 이태화로 추정된다. 그러나 본집의 간행 시기를 감안하면 이태화는 간행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던 것으로 보인다.

본집에 수록된 저자의 年譜를 살펴보면 행장, 묘갈명, 축문 등이 문집의 부록에 실려 있다는 언급이 보인다. 따라서 연보는 본집의 편찬을 마무리한 뒤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연보의 마지막 기사는 1771년 저자를 安東의 西山影堂에 배향하였다는 내용으로 연보의 작성 및 본집의 간행은 1771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초간본》이 본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한 46-가 1329),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550), 장서각(D3B-538)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저자의 증손 이태화가 수집 편찬하여 1742년 이광정의 교감을 거친 후 1771년 이후 목판으로 간행된 초간본으로 국립중앙도서관장본이다.

序(李光庭 撰), 後敍(李光庭 撰), 年譜 등에 의함

구성과내용

본집은 2권 1책으로 되어 있다. 권두에 이광정의 서문이 있다.

권 1은 詩(49題), 書(10), 雜著(5), 祭文(8), 墓誌(3), 行蹟(2) 등이다. 詩는 대부분 만년작으로 저자가 46세 되던 1640년 이후의 것이다. 挽詩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수창한 이들은 이재욱, 이민순, 이호, 유인배, 이설, 김단, 이이송, 김시침, 권산립(李再煜, 李民淳, 李皞, 柳仁培, 李潑, 金煥, 李爾松, 金時忱, 權山立) 등

안동 지역의 인사들이다. 책의 수신자는 김시은(金是榘), 장인 남황(南煌), 아들 이효제(李孝濟), 조카 이효준(李孝濟) 등이다. 「鶴峯集」 간행에 관한 내용도 보인다. 雜著의 <김진사묘표개조후기사 金進士墓表改造後記事>는 1658년 영해부(寧海府)에 소재한 金澤의 묘소를 정비한 경위를 기록한 글이다. 김택은 저자의 선조인 稼亭 李穀의 장인이다. <영호루중창권유문 映湖樓重創勸諭文>은 1605년 홍수로 무너진 안동 영호루를 재건하기 위해 지역인들의 원조를 독려하는 글이다. <서선고증승지부군시편후 書先考贈承旨府君詩篇後>는 선친이 18세 때 지은 시 4편을 발견하고 쓴 글이다. <書日記後>는 저자가 44세를 맞이하여 일기를 쓰기 시작한 이유를 기록한 글이다. <日記銘>을 덧붙였다. 祭文은 의병 출신시 安東 삼태사묘(三太師廟)에 고한 제문, 외숙 柳疹, 형 李昌祚, 벗 柳元慶, 朴敦復, 李嶠 등에 대한 것이다. 墓誌는 남호문, 남황, 남서(南好問, 南煌, 南恕)에 대한 것으로 모두 저자의 처가인 영양남씨의 인물들이다. 行蹟은 李昌祚, 柳元定에 대한 것이다.

권 2는 附錄으로 李玄逸이 지은 墓誌銘, 李裁가 지은 行狀, 여기에 덧붙인 李光庭의 後敘, 趙德鄰이 지은 墓碣銘, 柳元之와 李時成이 지은 祭文, 李敏求를 비롯한 17인이 지은 挽詞, 그리고 저자를 安東 蘇湖의 西山影堂에 봉안할 때 현손 李象靖이 지은 <西山影堂奉安文>이 실려 있다.

만사[고송신홍망] 挽詞[孤松申弘望]

睡隱先生遺集卷二 / 附錄

吾友當時傑。才名戰藝初。鸞棲曾枳棘。蠖屈久泥淤。論議令人服。醇真孰子如。安貧尋古道。避世卜幽居。雲樹三年別。存亡萬事虛。淒涼留寶帙。慘惻返靈輿。哀壑霜風動。荒原落木疎。無因漬酒送。瞻望淚霑裾。



계서일고(溪西逸稿) 성이성(成以性)

형태서지

| | |
|--------|----------------|
| 권수제 | 계서선생일고(溪西先生逸稿) |
| 판심제 | 계서선생일고(溪西先生逸稿) |
| 간종 | 활자본(木活字) |
| 간행년 | 1863 년 간행 |
| 권책 | 2 권 1 책 |
| 행자 | 10 행 20 자 |
| 규격 | 22.3×15.1(cm) |
| 어미 | 上二葉花紋魚尾 |
| 소장처 |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
| 소장도서번호 | 811.98/성이성 |
| 총간집수 | 한국문집총간 속 26 |

저자

| | |
|------|------------------------|
| 성명 | 성이성(成以性) |
| 생년 | 1595 년(선조 28) |
| 몰년 | 1664 년(현종 5) |
| 자 | 여습(汝習) |
| 호 | 계서(溪西) |
| 본관 | 창녕(昌寧) |
| 특기사항 | 신유(申濡), 김응조(金應祖) 등과 교류 |

행력

| 왕력 | 서기 | 간지 | 연호 | 연령 | 기사 |
|-------|------|----|-------|----|---------------------|
| 선조 28 | 1595 | 을미 | 萬曆 23 | 1 | 2 월 1 일, 榮川에서 태어나다. |

| | | | | | | | |
|---------|----|------|----|----|----|----|--|
| 선조 | 40 | 1607 | 정미 | 萬曆 | 35 | 13 | 부친의 南原 임소로 가는 도중 鄭經世를 방문하다. ○ 全州의 강복성(康復誠)에게 수학하다. |
| 광해 군 | 8 | 1616 | 병진 | 萬曆 | 44 | 22 | 생원시에 합격하다. |
| 인조 | 2 | 1624 | 갑자 | 天啓 | 4 | 30 | 李适의 난이 일어나자 부친과 公州로 가서 어가를 호종하다. ○ 난이 평정되자 성균관에 입학하다. |
| 인조 | 5 | 1627 | 정묘 | 天啓 | 7 | 33 | 문과에 합격하여 승문원 부정자가 되다. |
| 인조 | 7 | 1629 | 기사 | 崇禎 | 2 | 35 | 부친상을 당하다. |
| 인조 | 9 | 1631 | 신미 | 崇禎 | 4 | 37 | 7 월, 주서가 되다. ○ 11 월, 설서가 되다. |
| 인조 | 11 | 1633 | 계유 | 崇禎 | 6 | 39 | 10 월, 사서가 되다. |
| 인조 | 12 | 1634 | 갑술 | 崇禎 | 7 | 40 | 1 월, 병조 좌랑, 겸춘추가 되다. ○ 8 월, 정언이 되다. 원종 추송(元宗 追崇)에 반대하다가 체직되다. ○ 겨울, 사서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 인조 | 13 | 1635 | 을해 | 崇禎 | 8 | 41 | 4 월, 사서가 되다. ○ 6 월, 부수찬이 되다. 仁城君의 자손을 신구(伸救)하는 상소를 올리다. ○ 8 월, 지평이 되다. ○ 9 월, 부교리가 되다. ○ 10 월, 정언이 되다. ○ 12 월, 문학이 되다. |
| 인조 | 14 | 1636 | 병자 | 崇禎 | 9 | 42 | 1 월, 수찬이 되다. ○ 2 월, 정언, 부교리가 되다. ○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경상도 관찰사 沈演의 참모가 되다. |
| 인조 | 15 | 1637 | 정축 | 崇禎 | 10 | 43 | 2 월, 경상도 진휼어사가 되다. ○ 7 월, 호서 암행어사가 되다. ○ 9 월, 상소하여 윤방 · 김류 · 침기원 · 김자점 · 이민구(尹昉 · 金塗 · 沈起遠 · 金自點 · 李敏求)를 논죄하다. ○ 10 월, 교리가 되다. ○ 12 월, 헌납이 되다. |
| 인조 | 16 | 1638 | 무인 | 崇禎 | 11 | 44 | 3 월, 교리가 되다. ○ 4 월, 헌납, 교리가 되다. ○ 6 월, 수찬이 되다. ○ 8 월, 부수찬이 되다. |
| 인조 | 17 | 1639 | 기묘 | 崇禎 | 12 | 45 | 1 월, 직강이 되다. ○ 2 월, 병조 정랑이 되다. ○ 3 월, 수찬이 되다. ○ 4 월, 장령이 되다. ○ 5 월, 교리가 되다. ○ 6 월, 사간이 되다. ○ 10 월, 집의가 되다. ○ 12 월, 합천현감(陝川 縣監)이 되다. |
| 인조 | 22 | 1644 | 갑신 | 順治 | 1 | 50 | 파직되어 돌아오다. ○ 10 월, 보덕이 되다. |
| 인조 | 23 | 1645 | 을유 | 順治 | 2 | 51 | 서장관으로 북경에 가다. ○ 6 월, 복명하다. 부교리가 되다. ○ 8 월, 사간이 되다. ○ 9 월, 종부시 정이 되다. ○ 12 월, 부수찬이 되다. |
| 인조 | 24 | 1646 | 병술 | 順治 | 3 | 52 | 1 월, 사간이 되다. ○ 3 월, 보덕이 되다. ○ 5 월, 수찬, 집의가 되다. ○ 6 월, 교리가 되다. 別試 參考官이 되었다가 호司의 출제 잘못에 연루되어 파직되다. |
| 인조 | 25 | 1647 | 정해 | 順治 | 4 | 53 | 7 월, 교리가 되다. ○ 겨울, 호남 암행어사가 되다. |
| 인조 | 26 | 1648 | 무자 | 順治 | 5 | 54 | 2 월, 집의가 되다. ○ 3 월, 응교가 되다. ○ 윤 3 월, 부수 |

| | | | | | | | |
|----|----|------|----|----|----|----|---|
| | | | | | | | 찬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5 월, 담양 부사(潭陽府使)가 되다. |
| 효종 | 1 | 1650 | 경인 | 順治 | 7 | 56 | 여사가 치적을 아뢰어 표리(表裏)를 하사받다. 교리가 되다. ○ 여름, 집의가 되다. ○ 10 월, 부응교가 되다. ○ 윤 11 월, 사간이 되다. |
| 효종 | 2 | 1651 | 신묘 | 順治 | 8 | 57 | 1 월, 사간이 되다. 이명익(李溟翼)을 옹호하다가 상의 진노를 사서 사직하다. ○ 「인조실록 仁祖實錄」 편찬 후 자급을 받지 않아 상의 진노를 사다. |
| 효종 | 4 | 1653 | 계사 | 順治 | 10 | 59 | 3 월, 창원 부사(昌原府使)가 되다. |
| 효종 | 5 | 1654 | 갑오 | 順治 | 11 | 60 | 10 월, 모친상을 당하다. |
| 효종 | 8 | 1657 | 정유 | 順治 | 14 | 63 | 1 월, 군기시 정이 되다. ○ 2 월, 평주 牧使가 되다. |
| 효종 | 9 | 1658 | 무술 | 順治 | 15 | 64 | 봄, 선정을 인정받아 표리를 하사받다. ○ 8 월, 교리가 되다. |
| 효종 | 10 | 1659 | 기해 | 順治 | 16 | 65 | 4 월, 교리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5 월, 국장도 감 도청(國葬都監 都廳)이 되다. ○ 6 월, 사간이 되다. ○ 7 월, 교리가 되다. ○ 10 월, 인산(因山)이 지나자 체직되어 낙향하다. ○ 겨울, 집의, 교리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 현종 | 1 | 1660 | 경자 | 順治 | 17 | 66 | 1 월, 응교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4 월, 江界 府使가 되다. ○ 12 월, 만포 첨사 한휴(滿浦 僉使 韓休)의 무고를 받고 이듬해 丹陽에 유배되다. |
| 현종 | 2 | 1661 | 신축 | 順治 | 18 | 67 | 11 월, 사면되다. |
| 현종 | 4 | 1663 | 계묘 | 康熙 | 2 | 69 | 겨울, 서용되다. |
| 현종 | 5 | 1664 | 갑진 | 康熙 | 3 | 70 | 1 월 4 일, 졸하다. ○ 榮川에 장사 지내다. |
| 숙종 | 21 | 1695 | 을해 | 康熙 | 34 | - | 7 월, 淸白吏에 선발되다. |
| 정조 | 10 | 1786 | 병오 | 乾隆 | 51 | - | 봉화 梧川書院에 제향되다. |
| 철종 | 14 | 1863 | 계해 | 同治 | 2 | - | 후손 성종진(成鍾震)이 木活字로 문집을 초간하다. |
| - | - | 1976 | 병진 | - | - | - | 후손 成德基, 成忠植이 石板으로 문집을 중간하다. |

편찬및간행

저자는 평소 文藝를 자처하지 않아 저술이 많지 않았으며 저자 사후 家藏되어 있던 저술은 燕行錄 1 권뿐이었다고 한다. 이후로도 저자의 유고는 한동안 정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문집 간행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저자가 봉화 梧川書院에 제향된 지 30여 년이 지나서였다. 서원의 선비들은 섬학고(瞻學庫)의 재물을 내어 후손 成鍾震에게 문집 간행을 권유하였다. 이에 성종진은 저자의 시문을 수습하였으나 저자가 평소 지은 것이 드물었던 데다 잇달아 병란을 겪어 남은 것이 거의 없었다. 수습한 것은 저자가 17세에 지은 해양창수(海陽唱酬) 4~5 수, 10수에 못 미치는 만뢰(輓誄), 안부를 묻는 편지 3~4 편, 敎書와 批答 각 1 편, 祭文 3 편, 疏 2 편, 啓辭 7

편, 書啓 2 편뿐이었다. 이것으로는 책을 만들 수가 없어 書狀官으로 재직시 지은 日錄을 합편하여 1 권으로 엮고 1863 년 활자로 인행하였다. 《초간본》 이 본은 현재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811.98/성이성), 국립중앙도서관(古 3648-文 36-68), 성균관대학교 존경각(D3B-59)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후 1976 년 후손 成德基, 成忠植이 변시연(邊時淵)의 서문을 받아 長城의 문원편간회(文苑編刊會)에서 석판으로 인행하였다. 《중간본》 이 본은 현재 장서각(D3B-1047)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저자의 8 대손 성종진이 1863 년 활자로 인행한 초간본으로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장본이다. 본 영인저본 중 권 2 의 제 1 판은 상태가 불량하여 동일본인 성균관대학교 존경각장본으로 대체하였다.

行狀(權斗寅 撰), 識(成鍾震 撰) 등에 의함

구성과내용

본집은 2 권 1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두에 목록이 있다.

권 1 은 詩(16), 敎書(2), 祭文(3), 疏(2), 啓辭(7), 書啓(2), 書(14), 燕行日記이다. 시에는 李景武, 金廷哲, 李汝翊, 姜瑜 등과 주고받은 것이 6 수가 있는데 저자가 17 세 때 부친의 임소인 光州에 내려가 수창한 것과 시강원에서 숙직할 때 지은 것이다. 나머지 10 수는 만시이다. 敎書는 1648 년 경상도 관찰사에 제수된 李暹에게 내린 것과 1647 년 남이웅이 올린 두 번째 사직상소에 대한 불윤비답이다.

祭文은 1659 년 효종이 승하하였을 때 지은 진향제문(進香祭文)과 목성선(睦性善)과 최진립(崔震立)에게 내린 賜祭文이다. 疏의 <쟁론원종추송소 爭論元宗追崇疏>는 1634 년 인조의 생부 定遠君을 元宗으로 추송하는 데 반대하는 상소이다. <사수찬소 辭修撰疏>는 1635 년 인성군의 자손을 석방한 일로 물의가 일어나자 사직을 청하는 상소이다. 계사(啓辭)는 김자점, 윤방, 김류(金自點, 尹昉, 金塗)를 논죄하는 계사가 4 편, 피혐계사가 3 편이다. 書啓는 각각 1637 년과 1647 년 충청도와 전라도에 암행어사로 다녀와 올린 것으로 지방관들의 공과, 각 지역의 作況과 民瘼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였다. 書의 <상대인공서 上大人公書>는 병자호란 직후 부친에게 보낸 편지로 劄州의 分朝로 가도록 권하는 내용이다.

<여김흥해서 與金興海書>는 외숙 김선(金塗)에게 안부를 전하는 내용이다. <답모인서 答某人書>는 저자가 강계 부사 재직시 월경(越境)하여 채삼(採蔘)하는 일을 허락하였다는 만포 첨사 한휴(滿浦 僉使 韓休)의 무고를 반박하는 내용이다.

<상관찰사서 上觀察使書> 역시 강계 부사 재직시 관찰사에게 기민(飢民)을 구제할 대책을 의논하는 내용이다.

<여이수봉서 與李秀峯書> 4 편은 陝川 縣監으로 재직시 양산 군수 이여익(梁山 郡守 李汝翊)과 정사를 의논하는 내용이다.

<여곽박사서 與郭博士書>는 곽언숙(郭彦淑)에게 보낸 편지로 1639 년 일어난 窟人의 저주 사건에 대한 내용이다.

<여김서서 與金孀書>는 사위 김한규(金漢奎)에게 안부를 전하고 미역, 생선, 부채 따위를 보낸다는 내용이다.

<기아서 寄兒書>는 아들 成用夏에게 국장도감 도청에 제수된 경위와 山陵의 선정에 관해 설명하는 내용이다.

<기량아서 寄兩兒書>는 강계 부사로 부임할 무렵 4남 成用夏와 5남 成文夏에게 보낸 편지로 장남의 과거 합격을 기뻐하고 나머지 아들들에게 공부에 힘쓰라고 당부하는 내용이다.

<기아서 寄兒書>는 역시 강계 부사 재직시 成用夏에게 보낸 편지이다. 흉년을 당한 백성의 곤란을 설명하고 喪祭를 간략히 치르라고 당부하는 내용이다.

<기량아서 寄兩兒書>는 조정의 동향과 과거 일정 등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연행일기 燕行日記>는 1645년 사은 겸 진하사(謝恩 兼 進賀使)의 서장관으로 연행한 기록이다. 소현세자가 돌아오자 조정에서는 인평대군(麟坪大君)을 정사, 정세규(正使, 鄭世規)를 副使, 저자를 서장관으로 삼아 연경으로 보냈다. 3월 17일 한양을 출발하여 윤 6월 12일 복명하기까지의 경위가 자세하다. 현지인들에게 들은 淸國의 정세와 승정황제의 최후 등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권 2는 부록이다. 저자의 손서 권두인(孫婿 權斗寅)이 지은 行狀, 吳光運이 지은 墓碣銘, 成文夏가 지은 墓誌 및 34인의 輓詞가 있다.

이 밖에 金宗準이 지은 祭文 및 저자를 梧川書院에 봉안할 때 李仁行이 지은 奉安文, 蔡濟恭이 지은 <계서초당기 溪西草堂記>, 저자가 지방관으로 재직한 담양, 창원, 강계의 <청백인 정비명 淸白仁政碑銘>이 있다. 증유(贈遺)로 신유, 김응조, 이응시, 강백년, 김성휘, 최응천(申濡, 金應祖, 李應蓍, 姜栢年, 琴聖徽, 崔應天)이 저자에게 준 시가 실려 있다. 말미의 의정부계(議政府啓)는 1696년 南九萬이 올린 계사로 저자를 비롯한 청백리의 자손 중 관록(官祿)이 없는 자에게 주급(周急)하기를 청하는 내용이다.

권미에 1863년 8대손 成鍾震이 지은 識가 실려 있다.

만사[신흥망] 輓詞[申弘望]

溪西先生逸稿卷之二 / 附錄

小白山前一別離。嶺雲湖月幾相思。宦途榮辱何須說。暮境存亡獨自悲。百歲桐鄉留惠在。三朝蓬閣令名垂。如公合置儒林傳。借問當今秉筆誰。

又

孫必大

嶺南詩禮擅名家。簪組傳芳淑譽華。風儀雍容春
鼓律。官銜清切錦成窠。青松耐雪年猶大。白髮承
貂位幾多。才子續徽餘慶在。謝庭文采不蹉跎。

又

呂甫載

與君初結少年場。已閱人間七十霜。每恨邇來多
聚散。那堪今日隔存亡。清名終始心如水。共理西
南政最良。浮世升沉都夢幻。緘哀千里不成章。

又

李崇彥

天道冥冥苦不常。時危况復哲人亡。三朝經懼

溪西先生逸稿卷之二 二十一

匡君坊。百里銅章共理良。紫陌塵埃聯窘步。清
秋江漢惱離觴。人間白首身猶在。欲寫哀詞涕自
洶。

又

申弘望

小白山前一別離。嶺雲湖月幾相思。宦途榮辱何
須說。暮境存亡獨自悲。百歲桐鄉留惠在。三朝
蓬閣令名垂。如公合置儒林傳。借問當今秉筆誰。

又

金宗一

世上相知零落盡。聞君又逝倍銷魂。古來賢達人
誰在。生死榮衰不足云。

쌍봉집(雙峯集) 정극후(鄭克後)

형태서지

| | |
|--------|----------------|
| 권수제 | 쌍봉선생문집(雙峯先生文集) |
| 판심제 | 쌍봉집(雙峯集) |
| 간종 | 목판본(木版本) |
| 간행년 | 1809 년 간행 |
| 권책 | 5 권 3 책 |
| 행자 | 10 행 20 자 |
| 규격 | 21.5×17.2(cm) |
| 어미 | 上下二葉花紋魚尾 |
| 소장처 | 국립중앙도서관 |
| 소장도서번호 | 한 46-가 873 |
| 총간집수 | 한국문집총간 속 18 |

저자

| | |
|------|--|
| 성명 | 정극후(鄭克後) |
| 생년 | 1577 년(선조 10) |
| 몰년 | 1658 년(효종 9) |
| 자 | 효익(孝翼) |
| 호 | 쌍봉(雙峯) |
| 본관 | 영일(迎日) |
| 특기사항 | 장현광(張顯光), 정구(鄭逵)의 문인. 이안눌(李安訥), 목장흠(睦長欽) 등과 교류 |

행력

| | | | | | |
|----|----|----|----|----|----|
| 왕력 | 서기 | 간지 | 연호 | 연령 | 기사 |
|----|----|----|----|----|----|

| | | | | | | | |
|-----|----|------|----|----|----|----|--|
| 선조 | 10 | 1577 | 정축 | 萬曆 | 5 | 1 | 1 월 20 일, 慶州에서 태어나다. |
| 선조 | 14 | 1581 | 신사 | 萬曆 | 9 | 5 | 모친상을 당하다. |
| ~ | ~ | ~ | ~ | ~ | ~ | ~ | 종조부 정윤김(從祖父 鄭胤金)의 후사가 되다. |
| 선조 | 27 | 1594 | 갑오 | 萬曆 | 22 | 18 | 慶州李氏 이홍각(李弘燾)의 딸과 혼인하다. |
| 선조 | 28 | 1595 | 을미 | 萬曆 | 23 | 19 | 5 월, 장남 정호(鄭鑿)가 태어나다. |
| 광해군 | 7 | 1615 | 을묘 | 萬曆 | 43 | 39 | 5 월, 생부상을 당하다. |
| 광해군 | 12 | 1620 | 경신 | 泰昌 | 1 | 44 | 경주 안강현 하곡동(安康縣 霞谷洞)에 별장 수재정(水哉亭)을 짓다. |
| 인조 | 12 | 1634 | 갑술 | 崇禎 | 7 | 58 | 유행(儒行)으로 천거되어 동몽교관(童蒙敎官)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 인조 | 14 | 1636 | 병자 | 崇禎 | 9 | 60 | 선릉 참봉(宣陵 參奉)이 되다. |
| 인조 | 15 | 1637 | 정축 | 崇禎 | 10 | 61 | 김정도 찰방(金井道 察訪)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4 월, 아우 鄭四端의 상을 당하다. |
| 인조 | 20 | 1642 | 임오 | 崇禎 | 15 | 66 | 「西岳志」를 편찬하다. |
| 인조 | 21 | 1643 | 계미 | 崇禎 | 16 | 67 | 王子師傅가 되다. ○ 형 鄭四勿이 흥해 도화동(興海 桃花洞)에 세운 二宜亭에서 강학하다. |
| 인조 | 22 | 1644 | 갑신 | 崇禎 | 17 | 68 | 「제왕력년통고 帝王歷年通考」를 편찬하다. |
| ~ | ~ | ~ | ~ | ~ | ~ | ~ | 安康縣 三聖山 아래에 형 鄭四勿과 함께 살 집을 짓고 강학하며 후진을 양성하다. |
| 인조 | 27 | 1649 | 기축 | 順治 | 6 | 73 | 2 월, 형 鄭四勿의 상을 당하다. |
| 효종 | 5 | 1654 | 갑오 | 順治 | 11 | 78 | 회혼연(回婚宴)이 열리고, 自號를 ‘雙峯’이라 하다. |
| 효종 | 9 | 1658 | 무술 | 順治 | 15 | 82 | 3 월 14 일, 졸하다. |
| 효종 | 10 | 1659 | 기해 | 順治 | 16 | — | 1 월, 영일현 운제산(迎日縣 雲梯山)에 장사 지내다. |
| 숙종 | 5 | 1679 | 기미 | 康熙 | 18 | — | 「文廟享祀志」가 간행되다. |
| 순조 | 9 | 1809 | 기사 | 嘉慶 | 14 | — | 경주 하계정사(慶州 霞溪精舍)에서 문집을 간행하다. |
| 순조 | 14 | 1814 | 갑술 | 嘉慶 | 19 | — | 8 대손 鄭來永이 경주 안강현 하곡리에 聖山祠를 세워 추모하다. |

편찬및간행

저자는 여헌 장현광(旅軒 張顯光)과 한강 정구(寒岡 鄭逵)에게 형 정사물(鄭四勿)과 함께 수학하였으며, 저술로는 우리나라 역대의 국가 변천을 연표 형식으로 중국의 역년을 덧붙여 편찬한 「제왕력년통고 帝王歷年通考」와 文廟에서의 제사 지내는 절차를 기록한 「문묘향사지 文廟享祀志」, 설총·김유신·최치원 삼현(薛聰·金庾信·崔致遠 三賢)의 사적과 경주 서악서원(慶州 西岳書院)의 建院 시말 등을 정리한 「서악지 西岳志」가 있다.

저자의 시문은 遺稿 3 책이 家藏되어 있었다. 4 대손 鄭相文(1673~1720)이 가장유고(家藏遺稿)를 바탕으로 문집을 편차하여 1708 년에 李衡祥에게 序文을 받았으나 간행하지는 못하였다.

6 대손 鄭忠弼(1725~1789)과 鄭東弼(1740~1820) 형제가 蔡濟恭에게 받은 墓碣銘 등을 추가하여, 1809 년에 慶州 霞溪精舍에서 목판으로 5 권 3 책을 간행하였다.《초간본》 이 본은 국립중앙도서관(한 46-가 873), 장서각(D3B-867, D3B-867A),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1087),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장본과 장서각본(D3B-867)에는 별록으로 「문묘향사지 文廟享祀志」 1 책이 합부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1809 년에 6 대손 정동필 등이 하계정사에서 목판으로 간행한 초간본으로 국립중앙도서관장본이다. 이 중 부집인 「文廟享祀志」는 본 총간의 편집 방침에 따라 수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序·墓誌銘(李衡祥 撰), 墓碣銘(蔡濟恭 撰), 本集內容 등에 의함

구성과내용

본집은 5 권 3 책으로, 권두에 李衡祥이 1708 년에 지은 序와 목록이 있다.

권 1 은 시 100 題이며, 목장흠·이안눌·유숙·홍득일(睦長欽·李安訥·柳瀟·洪得一) 등과 수창한 시 및 윤효전·정구·이의활(尹孝全·鄭述·李宜活) 등을 애도하는 挽詩 29 제 등을 詩體 구분 없이 실었다. <경차목명부로상운 敬次睦明府路上韻.....>은 1635 년 가을에 목장흠이 安康 紫玉山 霞谷洞 山家로 저자를 방문하여 수창한 것이며, <득졸구인서후어증정전부 得拙句因書後語贈鄭典簿>는 정습명, 정몽주(鄭襲明, 鄭夢周) 등 선조의 충절을 받들어 후손들에게 ‘수신존심 수사선도 수정안빈 守身存心 守死善道 守靜安貧’ 할 것을 당부하며 族人 鄭儁에게 지어 준 것이다. <봉송동악리상공귀경사 奉送東嶽李相公歸京師>는 1614 년에 경주 부윤에서 파직되어 서울로 돌아가는 이안눌에게 준 송시이며, <등학사대억최고운 登學士臺憶崔孤雲>은 가야산(伽倻山) 학사대를 찾아 세속을 피해 유랑의 길을 걸은 崔致遠을 회상하며 읊은 것이다.

권 2 는 疏(8), 書(2)이다. <정보호릉침수졸소 請保護陵寢守卒疏>는 宣陵 參奉 때에 올린 것으로, 침삭(侵削)된 陵卒을 보호할 것과 陵享이 停止된 잘못을 논하였다. 편지 중 <여옥산서원제생 與玉山書院諸生>에서는 李彦迪의 立心과 道德을 본받아 면학할 것을 강조하고, <대서약서원유생상 오방백 代西岳書院儒生上吳方伯>은 오숙(吳翮)에게 설총·김유신·최치원 삼현(薛聰·金庾信·崔致遠 三賢)의 사적을 수집하여 出刊하여 줄 것을 청한 것이다.

권 3 은 雜著(15)이다. <서장선생우주요괄첩후 書張先生宇宙要括帖後>는 장현광의 사후에 <우주요괄첩 宇宙要括帖>을 등사하고 선생의 標題를 모아 家傳하려 하면서 선생을 추모하며 지은 識이며, 이어 「제왕력년통고 帝王歷年通考」와 「西岳志」를 편찬하고 지은 識가 있다. <곡강종가회어식 曲江宗家會語識>는 1639 년에 곡강(興海)에서 宗會를 갖고, 家法을 지키고 친족 간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 3 조의 약조를 정한 내용이며, <삼읍동종계절목 三邑同宗契節目>은 1651 년에 永川, 興海, 安康에 살고 있는 친족의 同宗契를 조직하고 10 조의 相助 절목을 정한 것이다.

권 4는 序(3), 記(3), 銘(1), 頌(1), 上樑文(3), 祝文(13), 祭文(11), 碑銘(5), 墓誌(1), 墓碣(3)이다. 서는 李景湖 등에 대한 송별서이다. 기의 <부계서당기 缶溪書堂記>는 1638년에 太守 洪再亨의 도움으로 7년 만에 완공을 하게 된 八公山 부계서당에 대한 기문이며, <松壇記>는 1655년에 지은 것으로, 경주 文廟의 중건에 힘쓴 李時發, 李安訥의 興學 공적을 기리고, 孫起陽이 심은 소나무를 55년 만에 베어 송단을 지은 시말을 기록하였다. 축문에는 설총, 김유신, 최치원과 이언적, 정몽주, 장현광(薛聰, 金庾信, 崔致遠과 李彦迪, 鄭夢周, 張顯光) 등에게 올리는 것과 祈雨文 등이 있으며, 제문에서는 정구, 장현광, 정경세, 윤효전, 목장흠(鄭述, 張顯光, 鄭經世, 尹孝全, 睦長欽) 등을 애도하였다. 그 외에 최진립, 조호익(崔震立, 曹好益) 등에 대한 비명과, 홍진경(洪眞卿)의 묘지와 정안번, 주락, 이준(鄭安藩, 朱洛, 李浚)의 묘갈이 있다.

권 5는 부록으로 1692년에 李玄逸이 지은 行狀, 1708년에 李衡祥이 지은 墓誌銘, 蔡濟恭이 지은 墓碣銘과 李暉 등이 지은 祭文(5), 崔東嶠 등이 지은 輓詞(15)가 있다.

끝 부분에 ‘송정후삼기사하계정사개간 崇禎後三己巳霞溪精舍開刊’이라는 刊記가 있다.

만사[장령신홍망] 挽詞[掌令申弘望]

雙峯先生文集卷之五 / [附錄○挽詞]

嶺外耆英獨數公。暮年雲海一冥鴻。壽樽方動蟠桃影。仙馭催歸閬苑風。恩及丘樊官豈薄。澤流蘭玉慶無窮。清芬寶唾終難泯。誰置儒林後傳中。



雙峯集 卷五

하음집(河陰集) 신증(申楫)

형태서지

| | |
|--------|----------------|
| 권수제 | 하음선생문집(河陰先生文集) |
| 판심제 | 하음집(河陰集) |
| 간종 | 목판본(木版本) |
| 간행년 | 1835년 간행 |
| 권책 | 9권 5책 |
| 행자 | 10행 21자 |
| 규격 | 21.3×17.2(cm) |
| 어미 | 上下二葉花紋魚尾 |
| 소장처 |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
| 소장도서번호 | D3B-2336 |
| 총간집수 | 한국문집총간 속 20 |

저자

| | |
|------|--|
| 성명 | 신증(申楫) |
| 생년 | 1580년(선조 13) |
| 몰년 | 1639년(인조 17) |
| 자 | 여섭(汝涉) |
| 호 | 하음(河陰) |
| 본관 | 영해(寧海) |
| 특기사항 | 정경세(鄭經世)의 문인. 이준(李俊), 조형도(趙亨道), 홍호(洪鎬) 등과 교류 |

행력

| 왕력 | 서기 | 간지 | 연호 | | 연령 | 기사 |
|-------|------|----|----|---|----|----------------------------|
| 선조 13 | 1580 | 경진 | 萬曆 | 8 | 1 | 5월 15일, 外家인 安東 松村里에서 태어나다. |

| | | | | | | | |
|-----|----|------|----|----|----|----|---|
| 선조 | 32 | 1599 | 기해 | 萬曆 | 27 | 20 | 고응척, 박성(高應陟, 朴愷) 등과 交遊하다. |
| ~ | ~ | ~ | ~ | ~ | ~ | ~ | 柳成龍을 찾아뵈다. ○ 栗村으로 鄭經世를 찾아가 집지(執贄)하고 玉成書堂에서 머물며 수업을 받다. |
| 선조 | 37 | 1604 | 갑진 | 萬曆 | 32 | 25 | 4 월, 周房山을 유람하다. ○ 5 월, 李彦迪을 辨誣하는 일로 上京하다. ○ 宣祖가 儒生들을 위해 課題를 設行하여 13 인을 선발하였는데, 그 안에 들다. |
| 선조 | 38 | 1605 | 을사 | 萬曆 | 33 | 26 | 洪鎬, 金是柱, 鄭侗 등과 廬江書院에서 讀書하다. |
| 선조 | 39 | 1606 | 병오 | 萬曆 | 34 | 27 | 10 월, 文科에 합격하다. |
| 선조 | 41 | 1608 | 무신 | 萬曆 | 36 | 29 | 三陟 教授가 되다. |
| 광해군 | 1 | 1609 | 기유 | 萬曆 | 37 | 30 | 正字가 되다. |
| 광해군 | 2 | 1610 | 경술 | 萬曆 | 38 | 31 | 著作이 되다. |
| 광해군 | 3 | 1611 | 신해 | 萬曆 | 39 | 32 | 정경세가 柳活 등의 무함(誣陷)을 받아 仕版에서 削去되자 상소를 지어 올리려고 하였으나, 정경세의 만류로 그만두다. |
| 광해군 | 4 | 1612 | 임자 | 萬曆 | 40 | 33 | 博士가 되다. ○ 겨울, 典籍이 되다. |
| 광해군 | 5 | 1613 | 계축 | 萬曆 | 41 | 34 | 永昌大君의 獄事가 일어나자 落鄕하여 咸寧의 栗리에 寓居하다. |
| 광해군 | 7 | 1615 | 을묘 | 萬曆 | 43 | 36 | 趙亨道, 權翊 등과 李垞을 모시고 紫霞洞을 유람하다. |
| 광해군 | 10 | 1618 | 무오 | 萬曆 | 46 | 39 | 이준을 모시고 招鶴臺를 유람하다. |
| 광해군 | 12 | 1620 | 경신 | 泰昌 | 1 | 41 | 8 월, 모친상을 당하다. ○ 모친을 龍宮 河豐에 장사 지내고 ‘河陰’이라 自號하다. |
| 인조 | 1 | 1623 | 계해 | 天啓 | 3 | 44 | 求禮 縣監이 되다. |
| 인조 | 2 | 1624 | 갑자 | 天啓 | 4 | 45 | 2 월, 부인 흥씨의 상을 당하다. |
| 인조 | 4 | 1626 | 병인 | 天啓 | 6 | 47 | 형조 좌랑이 되다. ○ 8 월, 江原 都事가 되다. |
| 인조 | 5 | 1627 | 정묘 | 天啓 | 7 | 48 | 1 월, 胡亂의 소식을 듣고 原州營으로 달려가다. ○ 北關에 가서 張晩과 鄭忠信의 軍營에 軍糧을 조달하다. 鐵原에 가서 李景奭과 軍糧의 조달에 대해 상의하다. 伊川에 가서 흠어졌던 거주민을 安集시키다. ○ 5 월, 兼鹽鐵使 從事官으로서 嶺東을 순찰하다. |
| 인조 | 6 | 1628 | 무진 | 崇禎 | 1 | 49 | 공조 정랑, 형조 정랑이 되다. ○ 柳孝立 逆獄의 推鞠에 참여한 공으로 寧社 原從功臣에 녹훈되다. ○ 4 월, 兪承 道사가 되다. ○ 5 월, 동생 申柁의 상을 당하다. |
| 인조 | 8 | 1630 | 경오 | 崇禎 | 3 | 51 | 務安 縣監이 되다. |
| 인조 | 13 | 1635 | 을해 | 崇禎 | 8 | 56 |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다. |
| 인조 | 14 | 1636 | 병자 | 崇禎 | 9 | 57 | 호란이 다시 발발하자 龍宮에서 舉義하다. |
| 인조 | 15 | 1637 | 정축 | 崇禎 | 10 | 58 | 5 월, 漢城府 庶尹이 되었다가 곧 형조 정랑이 되다. ○ 7 월, 點馬를 위해 경상도에 다녀오다. ○ 10 월, 다시 |

| | | | | | | | |
|----|----|------|----|----|----|----|---|
| | | | | | | | 한성부 서윤, 형조 정랑이 되다. |
| 인조 | 16 | 1638 | 무인 | 崇禎 | 11 | 59 | 2월, 司藝가 되다. ○7월, 公州 牧使가 되었으나, 병으로 부임하지 않다. |
| 인조 | 17 | 1639 | 기묘 | 崇禎 | 12 | 60 | 4월, 司僕寺 正이 되다. 表裏, 廐馬와 「近思錄」 등을 하사받다. ○8월, 密陽 府使가 되다. ○9월 24일, 부임하기 앞서 勤親하러 고향에 갔다가 갑자기卒하다. ○12월, 龍宮의 夢美에 장사 지내다. |
| 순조 | 25 | 1825 | 을유 | 道光 | 5 | — | 文集이 初刊되다. |
| 헌종 | 1 | 1835 | 을미 | 道光 | 15 | — | 7대손 申弘佐가 문집을 重刊하다. |

편찬및간행

저자의 遺文으로는 遺稿를 비롯하여 燕覽, 公行錄, 雜述 등과 아들 申光夏가 지은 저자의 年譜가 남아 있었다. 이것들은 모두 신광하가 收拾하고 編次하여 도합 30여 권으로 정리해 두었던 것인데, 그 후 喪亂을 겪으면서 태반이 散逸되었다. 1800년경에 이르러 權徹과 申鼎周가 다시 校正과 편찬을 하였다. 刊行을 염두에 두고 정리를 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간행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문집의 初刊은 1825년에 이루어지는데, 저자의 후손들이 앞서 권찬 등이 편찬한 유문을 가지고 柳晦文과 柳致明 父子의 교정을 받아 不分卷 1冊으로 간행한 것이다. 이 초간본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일부의 詩文만을 대상으로 삼아 간행되었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이 매우 희귀한 것으로 보아 소량만을 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초간본》이 본은 현재 慶尙北道 漆谷郡의 李敦柱씨가 소장하고 있다.

그 후 저자의 유고가 다시 화재를 겪어 초간본에 수록되지 못하고 남아 있던 시문의 상당수가 소실되었고, 미간행으로 남아 있던 연보 또한 이때에 함께 유실되고 말았다. 1835년에는 저자의 7대손 柳弘佐가 초간본에 수록되지 못하고 남아 있던 시문과 초간본에 수록된 시문을 통합하여 再編하고, 輓詞, 祭文, 行狀, 墓碣銘 등을 附錄으로 편찬하여 목판으로 9卷의 문집을 간행하였다. 《중간본》 본서의 저본 책 표지 안쪽에는 ‘松鶴書院印送’이라고 筆寫되어 있는데, 송학서원은 靑松에 있는 서원이고 저자의 근거지도 청송인 것인 점을 근거로 추정해 보면, 청송의 송학서원이 중간본의 간행 장소로서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된다. 이 본은 현재 성균관대학교 존경각(D3B-2336)에 소장되어 있다.

본서의 저본은 1835년에 7대손 申弘佐가 木板으로 간행한 중간본으로 성균관대학교 존경각장본이다.

跋(柳致明·申弘佐 撰) 등에 의함

구성과내용

본집은 9권 5책이다. 卷首에는 目錄이 수록되어 있다.

권 1~3은 賦 2편, 詩 399題, 詞 3편이다. 부 2편 가운데 <貧賦>는 어느 선비와 摺紳先生 간의 貧窮과 富貴에 대한 問答을 통해 君子의 守身과 樂道, 出處에 대해 논한 글이고, <種松賦>는 소나무가 歲寒의 志操가 있음을 찬양하고, 자신의 뜰에 옮겨 심게 된 경위와 감회를 읊은 글이다. 시는 1598년 19세 때에 지은 것부터 즐한 해인 1639년에 지은 것까지가 연대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시를 주고받은 대표적인 인물로는 洪鎬, 全以性, 趙亨道, 李民成, 高用厚, 柳軫, 金世濂, 權濤 등이 있다. 권 1은 1598년부터 1616년까지의 시이다. 맨 앞에 실려 있는 <贈別陳差官>은 1598년 4월 中國 南京 출신의 陳差官 등 4인이 저자의 집에 와서 머물 때 지어 준 시로서, 진 차관의 原韻이 附記되어 있다. <越松途中>부터 <穿川>까지의 11제는 1608년 三陟 教授로 재직할 때에 지은 것이고, <叢竹>은 玉山 李瑀가 선물한 대나무의 貞苦한 節概를 노래한 시이다. 권 2는 1618년부터 1627년까지의 시이다. 이 가운데 <題雲峯荒山大捷碑>부터 <罷官歸別崔汝凝>까지의 19제는 求禮 縣監으로 재직하면서 지은 것이고, <龍津偶吟> 이하는 關東錄으로서, 1626년 강원 도사로 부임한 이후부터 1627년 정묘호란을 겪고 난 후 兼鹽鐵使 從事官으로서 嶺東을 순찰할 때 지은 것이다. 권 3은 1628년부터 1639년까지의 시이다. <將赴綿城留別申晉甫趙景行>부터 1635년 <寄徐善伯林伯圭兩秀才>까지의 시는 綿城錄으로서, 務安 縣監으로 재직할 때에 지은 것인데, 林堧에게 지어 준 시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詞 3편은 모두 洪鎬와 이별하며 지어 준 것이다.

권 4는 疏 1편, 狀啓 3편, 呈文 2편, 狀 9편이다. 이 가운데 <擬愚伏先生伸冤疏>는 1611년 정경세가 柳活 등의 誣陷을 받아 仕版에서 削去되자 스승의 辨誣를 위해 지은 것이었으나, 정경세의 만류로 올리지는 못한 상소이다. <呈備邊司陳弊文>은 1622년에 靑松의 鄉民을 대신하여 지은 것으로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田賦와 軍役을 과도하게 부과하여 백성이 流亡하게 되고 侵徵까지 발생하게 된 폐단을 시정해 주기를 청한 글이다.

권 5는 書 83편, 序 1편이다. 書는 鄭經世, 張顯光, 崔暉, 全湜, 權泰一, 李貴, 趙纘韓, 동생 申柁·申櫟, 조카 申光喆, 아들 申光夏 등에게 보낸 편지이다. 정경세에게 보낸 편지는 喪禮에 대한 질문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1624년 권태일에게 보낸 편지는 구레 현감으로서 李适의 亂을 토벌하기 위해 兵士를 調發하여 전주 부윤으로 있던 권태일에게 보내면서 쓴 것이다. 1633년 아들 신광하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이 장마로 막히지 않을까 염려하고 항상 물을 조심하라고 당부하는 내용으로서,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심정이 잘 드러난 글이다. <望雲亭詩序>는 咸安趙氏의 정자인 望雲亭에서 趙亨道 형제들과 시를 짓고 그 詩帖에 쓴 서문이다.

권 6~7은 箋 2편, 上樑文 2편, 頌 1편, 雜著 8편, 錄 3편이다. <平倭頌>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명나라 황제의 은덕과 大義를 지켜 外敵을 막아낸 宣祖의 공덕을 찬양하는 내용이고, <記劉海事>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명나라 提督 劉綎의 養子가 되어 중국에 들어간 劉海라는 사람의 일화를 기록한 글이다. <遊周房山錄>은 1604년 4월 周房山 즉 지금의 周王山을 유람하고 지은 기행문이고, <關東錄>은 1626년 8월부터 12월까지 강원 도사로 있을 때의 기록인 兼掌選錄, 1627년 1월부터 4월까지 關北 등지에서 軍糧을 조달할 때의 기록인 管餉錄, 1627년 5월에 兼鹽鐵使 從事官으로서 嶺東을 순찰할 때의 기록인 兼鹽鐵使從事官錄, 같은해 6월부터 9월까지 金剛山을 유람한 기록인 遊金剛錄으로 되어 있다.

권 8은 祭文 20 편, 墓誌 6 편, 行狀 1 편이다. 제문은 柳成龍, 鄭宗溟, 韓浚謙, 鄭經世, 鄭介清, 張顯光 등에 대한 것이다. 묘지는 先祖 申演, 先妣 申慶男妻 權氏, 亡室 洪氏, 亡弟 申柁 등에 대한 것이고, 행장은 金蕃에 대한 것이다.

권 9는 附錄이다. 全湜, 李景奭, 金榮祖 등이 지은 輓詞 25 편, 鄭榮邦, 洪鎬, 申適道 등이 지은 祭文 10 편, 鄭宗魯가 지은 行狀略, 李野淳이 지은 行狀, 韓致應이 지은 墓碣銘 등이 수록되어 있다.

卷尾에는 柳致明과 7 대손 申弘佐가 지은 발이 있는데, 모두 1835 년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만사[군수신홍망] 輓詞[郡守申弘望]

河陰先生文集卷之九 / 附錄

南州自昔儒林盛。醇厚如公最老成。佇見盤根須利器。驚聞卓蓋變丹旌。風塵生意人間少。詩酒名流地下傾。別有親知長慟處。倚門黃髮淚交橫。



노암집(魯庵集) 김종일(金宗一)

형태서지

| | |
|--------|----------------|
| 권수제 | 노암집(魯庵集) |
| 판심제 | 노암문집(魯庵文集) |
| 간종 | 목판본(木版本) |
| 간행년 | 1850 년 간행 |
| 권책 | 4 권 2 책 |
| 행자 | 10 행 20 자 |
| 규격 | 21.3×17.9(cm) |
| 어미 | 上下二葉花紋魚尾 |
| 소장처 |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
| 소장도서번호 | 811.98/김종일/노-판 |
| 총간집수 | 한국문집총간 속 27 |

저자

| | |
|------|----------------------------------|
| 성명 | 김종일(金宗一) |
| 생년 | 1597 년(선조 30) |
| 몰년 | 1675 년(숙종 1) |
| 자 | 관지(貫之) |
| 호 | 노암(魯庵) |
| 본관 | 경주(慶州) |
| 특기사항 | 신지제(申之悌), 정경세(鄭經世), 이명준(李命俊)의 문인 |

행력

| | | | | | |
|----|----|----|----|----|----|
| 왕력 | 서기 | 간지 | 연호 | 연령 | 기사 |
|----|----|----|----|----|----|

| | | | | | | | |
|---------|----|------|----|----|----|----|---|
| 선조 | 30 | 1597 | 정유 | 萬曆 | 25 | 1 | 12월 27일, 慶州 安康縣 沙里洞에서 태어나다. |
| 선조 | 38 | 1605 | 을사 | 萬曆 | 33 | 9 | 부친상을 당하다. |
| 선조 | 41 | 1608 | 무신 | 萬曆 | 36 | 12 | 梧峯 申之悌에게 수학하다. |
| 광해 군 | 5 | 1613 | 계축 | 萬曆 | 41 | 17 | 驪州李氏 李宜澍의 딸과 혼인하다. ○ 가을, 향시에 합격하다. |
| 광해 군 | 10 | 1618 | 무오 | 萬曆 | 46 | 22 | 愚伏 鄭經世를 찾아보다. |
| 광해 군 | 13 | 1621 | 신유 | 天啓 | 1 | 25 | 潛窩 李命俊을 찾아보다. |
| 인조 | 3 | 1625 | 을축 | 天啓 | 5 | 29 | 8월, 別試에 장원으로 합격하다. 선무랑 성균관 전적이 되다. ○ 10월, 공조 좌랑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 인조 | 4 | 1626 | 병인 | 天啓 | 6 | 30 | 6월, 호조 좌랑에 제수되었으나 사직하고 귀향하다. |
| 인조 | 5 | 1627 | 정묘 | 天啓 | 7 | 31 | 2월,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서울로 가던 중 尙州에 이르러 순찰사 金時讓의 종사관이 되다. ○ 5월, 예조 좌랑이 되다. ○ 7월, 仁同으로 旅軒 張顯光을 찾아보다. ○ 10월, 良才道 察訪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 인조 | 6 | 1628 | 무진 | 崇禎 | 1 | 32 | 1월, 형조 좌랑이 되다. ○ 7월, 사간원 정언이 되다. ○ 8월, 상소하여 引避하고 귀향하다. 이조 좌랑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 인조 | 7 | 1629 | 기사 | 崇禎 | 2 | 33 | 4월, 예조 좌랑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9월, 예조 정랑, 병조 좌랑이 되다. |
| 인조 | 8 | 1630 | 경오 | 崇禎 | 3 | 34 | 2월, 특명으로 淸州 判官이 되어 舊弊 12건을 혁파하다. ○ 10월, 병사 李楡의 무고를 받고 사직하다. |
| 인조 | 9 | 1631 | 신미 | 崇禎 | 4 | 35 | 1월, 예조 정랑이 되다. ○ 3월, 지평이 되다. |
| 인조 | 10 | 1632 | 임신 | 崇禎 | 5 | 36 | 1월, 모친상을 당하다. |
| 인조 | 12 | 1634 | 갑술 | 崇禎 | 7 | 38 | 5월, 지평이 되다. ○ 9월, 金郊道 察訪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
| 인조 | 13 | 1635 | 을해 | 崇禎 | 8 | 39 | 5월, 사간원 정언이 되다. ○ 6월, 상경하여 사은하고 鄭蘊, 趙翼과 함께 “濟州에 유배중인 仁城君의 세 아들 李佶, 李億, 李健을 석방하라”는 명을 거두라는 양사의 의견에 대해 피험하여 謝啓하다. ○ 8월, 尹絳, 鄭斗卿 등 벗들과 同庚稷案을 만들다. ○ 10월, 시강원 문학이 되다. |
| 인조 | 14 | 1636 | 병자 | 崇禎 | 9 | 40 | 2월, 평안 도사가 되다. ○ 10월, 휴가를 받고 집에 있던 중 12월 22일 청나라가 침략한 소식을 듣고 종군하여 군량을 調發하는 임무를 행하다. |
| 인조 | 15 | 1637 | 정축 | 崇禎 | 10 | 41 | 2월, 성균관 직강, 병조 정랑이 되다. ○ 3월, 지평이 |

| | | | | | | | |
|----|----|------|----|----|----|----|---|
| | | | | | | | 되다. 강화도를 잘 지키지 못한 金自點을 죄줄 것을 상소하자 옥당이 出仕시킬 것을 청하므로 呈病하고 귀향하다. ○ 7 월, 시강원 사서가 되다. 立巖으로 장현광을 찾아보다. ○ 10 월, 볼모가 된 昭顯世子를 모시고 상사 崔鳴吉, 부사 金南重, 서장관 李時樸와 함께 瀋陽으로 들어가다. |
| 인조 | 17 | 1639 | 기묘 | 崇禎 | 12 | 43 | 4 월, 鄭雷卿과 함께 譯官 鄭命壽 등의 비리를 들추다가 도리어 이들의 모함을 받아 국내로 拿處되어 돌아오고 정뇌경은 사사되다. ○ 5 월, 胤德 배소에 도착하다. |
| 인조 | 22 | 1644 | 갑신 | 順治 | 1 | 48 | 1 월, 赦免되어 돌아오다. |
| 인조 | 25 | 1647 | 정해 | 順治 | 4 | 51 | 6 월, 홍문관 교리, 順天 府使가 되다. |
| 인조 | 27 | 1649 | 기축 | 順治 | 6 | 53 | 1 월, 부인 이씨의 상을 당하다. ○ 의정부 검상, 사인이 되다. |
| 효종 | 1 | 1650 | 경인 | 順治 | 7 | 54 | 2 월, 尙州 牧使가 되다. |
| 효종 | 2 | 1651 | 신묘 | 順治 | 8 | 55 | 7 월, 三陟 府使가 되다. ○ 9 월, 豐壤趙氏 趙璋의 딸과 혼인하다. |
| 효종 | 4 | 1653 | 계사 | 順治 | 10 | 57 | 아들 金世卞이 태어나다. |
| 효종 | 5 | 1654 | 갑오 | 順治 | 11 | 58 | 7 월, 예빈시 정이 되다. ○ 10 월, 星州 牧使가 되다. |
| 효종 | 8 | 1657 | 정유 | 順治 | 14 | 61 | 9 월, 蔚山 府使가 되다. |
| 현종 | 1 | 1660 | 경자 | 順治 | 17 | 64 | 봄, 慈懿大妃의 孝宗 喪服에 대한 邦禮가 정해지지 않으므로 許穆과 함께 <儀禮辨說>을 지어 3 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해 반대파의 공격을 받고 平海로 귀양가다. |
| 현종 | 2 | 1661 | 신축 | 順治 | 18 | 65 | 7 월, 용서받고 돌아오다. |
| 현종 | 5 | 1664 | 갑진 | 康熙 | 3 | 68 | 10 월, 錦山 郡守가 되다. |
| 현종 | 8 | 1667 | 정미 | 康熙 | 6 | 71 | 榮川으로 移居하다. |
| 숙종 | 1 | 1675 | 을묘 | 康熙 | 14 | 79 | 5 월, 慶州 舊居에서 즐하다. ○ 윤 5 월, 이조, 도승지에 증직되다. ○ 12 월, 경주 錢畝에 장사 지내다. |
| 철종 | 1 | 1850 | 경술 | 道光 | 30 | - | 6 대손 金熙永이 목판으로 문집을 간행하다. |

편찬및간행

저자의 유문은 발문에서 말했듯이 후손들이 嶺·湖南을 넘나들며 여러 차례 거처를 옮기고 집에 화재까지 나는 통에 남은 시문이 거의 없었다.

저자의 6 대손 金熙永이 여러 문집과 「政院日記」 등에서 약간의 유문을 수습하고 부록문자를 첨부하여 1850 년에 木板으로 간행하였다. 《초간본》 이 본은 현재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811.98/

김종일/노-판), 규장각(奎 15173),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1019), 장서각(D3B-1014) 등에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문집 맨 뒤에 “저자 검 발행자 金周燮, 昭和 11 年 인쇄·발행”의 版權紙가 있는 4 권 2 책의 국립중앙도서관장본(한 46-가 1142)이 있는데, 이는 인쇄된 판의 마모 정도로 볼 때 초간본의 후쇄본으로 보인다.

본집과는 별도로 石版으로 간행된 「魯庵續集」이 있는데, 이는 「魯庵集」에 실리지 않고 누락된 輓詩, 書, 祭文, 疏 등을 여러 사람의 문집에서 뽑아 싣고, 「政院日記」·「實錄」 등에서 抄錄하여 엮은 「魯庵先生續集」과 附集인 「洛南公實記」로 되어 있다. 洛南은 저자의 아들 金世平으로, 小識와 跋의 내용으로 볼 때 9 대손 金憲洙·金憲稷 등이 從叔인 金玟燮·金周燮 등의 도움을 받아 1950 年 이후 10 대손 金亨鎭에게 謄寫하게 한 것이다.

본서의 저본은 저자의 6 대손 金희영이 1850 年에 4 권 2 책의 목판으로 간행한 초간본으로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장본이다.

序(鄭鴻慶 撰), 跋(柳致明·姜時永 撰), 後識(李鍾祥·金熙永 撰) 등에 의함

구성과내용

본집은 4 권 2 책으로, 권수에 1848 年 鄭鴻慶이 쓴 서문과 目錄, 年譜가 있다.

권 1 은 詩(25)이다. 대부분 輓詩로 張顯光, 申之梯, 李命俊, 鄭雷卿, 郭再祐, 申悅道, 李民晟, 李宜活, 權應生, 張慶遇, 鄭瑒, 崔東亮, 權炆, 李暉, 李景漢, 趙亨道 등에 대한 것이다. <奉呈李東岳紅桃韻>은 1614 年 18 세 때, 경주 부윤이었던 이안눌이 저자의 명성을 듣고 兄江에서 함께 노닐 것을 청하였는데, 벼슬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사양하면서 지어 올린 것이다.

권 2 는 疏(6), 啓(5), 書(2), 祭文(4), 碣銘, 墓誌銘, 行狀이다. <論江都失守疏>는 1637 年 병자호란 때 尹昉, 金自點, 呂爾徵, 金慶徵 등이 종묘사직을 지키지 못한 것을 논죄하여 올린 것이다. <邦禮辨說疏>는 1660 年에 효종이 승하하자 자의대비가 입을 상복에 대해 1 年복으로 할 것인지 3 年복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는데, 「儀禮」를 인용하여 3 年복을 입어야 한다는 견해를 진술하였다. 이 일로 인해 平海로 귀양까지 갔는데 1666 年 봄에 道儒들이 이 문제에 대해 상소하는 일이 일어나자 다시 이 상소를 올린 것이다. <請還仁城君三子啓>는 1635 年 濟州에 유배 중인 仁城君의 세 아들을 석방하라는 하교에 대해 이를 거두어줄 것을 아뢴 兩詞의 의견에 반대하며 引避하여 謝啓한 것이다. 書는 申悅道와 그의 아들 申堪에게 써준 것이다. 祭文은 이준명, 신지제, 신열도, 이의활에 대한 것이다. 碣銘은 효자 孫錫後에 대한 것이고, 墓誌銘은 부인인 淑人 驪州李氏에 대한 것이며, 行狀은 內從兄 李尙一에 대한 것이다.

권 3 은 策, 雜著이다. 雜著의 <瀋陽日乘>은 1637 年 7 月 19 일부터 1639 年 4 月 15 일까지 시강원 사서가 되어 淸에 볼모로 가는 소현세자를 따라 심양에 들어가 일어났던 일들과 본국으로 송환되어 盈德으로 유배가기까지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野城問答>은 1639 年 가을, 유배지 영덕에 있으면서 寧海 府使 趙廷虎와 나눈 문답이다.

권 4는 附錄이다. 李衡祥이 지은 行狀, 李萬運이 지은 묘갈명, 李漢膺이 지은 묘지명, 李塚가 지은 家狀後敍, 金建準이 지은 家狀後跋, 權尙矩·李塚·任勉·李堉 등이 지은 만사, 黃克俊·李明徵·申徽錫 등이 지은 제문이 실려 있다.

권미에는 柳致明이 지은 跋, 李鍾祥이 지은 後識, 金熙永이 1849년에 지은 후지, 姜時永이 1850년에 지은 발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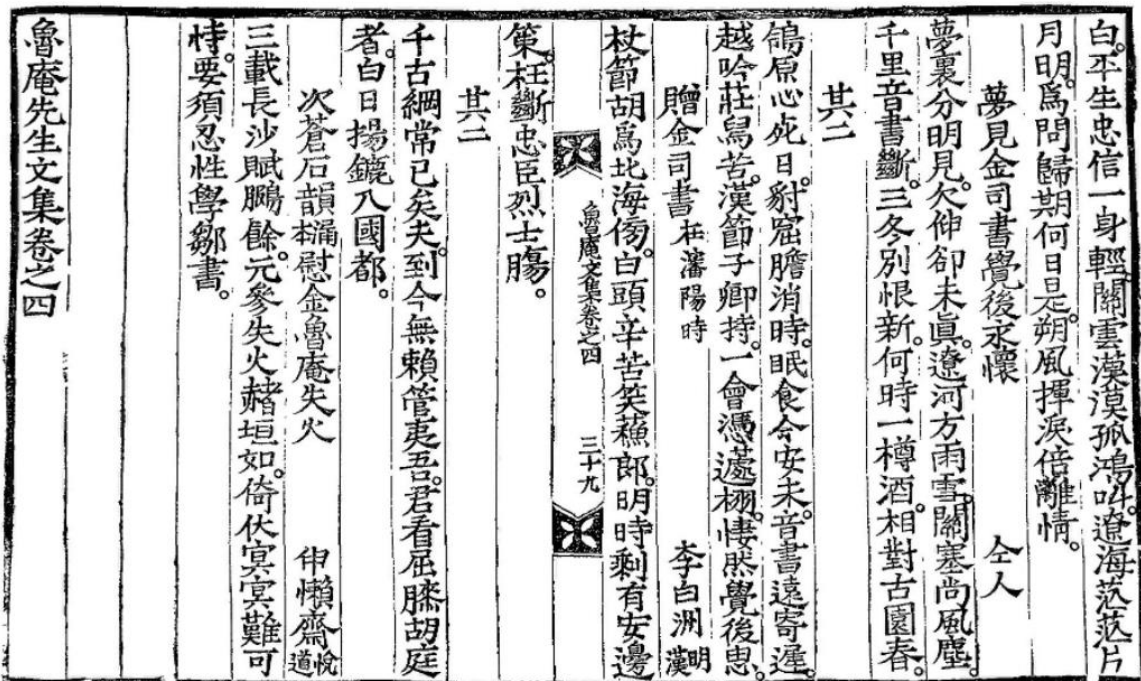
몽견김사서각후영희[신흥망] 夢見金司書覺後永懷[申弘望]

魯庵先生文集卷之四 慶州金宗一字貫之甫著 / 附錄

夢裏分明見。欠伸卻未眞。遼河方雨雪。關塞尙風塵。千里音書斷。三冬別恨新。何時一樽酒。相對古園春。

其二

鴿原心死日。豺窟膽消時。眠食今安未。音書遠寄遲。越吟莊鳥苦。漢節子卿持。一會憑蘧榻。悽然覺後思。



만회당선생문집(晩悔堂先生文集) 장경우(張慶遇)

서지정보

| | | |
|------|------|---|
| 제목정보 | 대표제목 | 만회당선생문집(晩悔堂先生文集) |
| | 권수제 | 만회당선생문집(晩悔堂先生文集) |
| | 표지제 | 만회당집 건(晩悔堂集 乾) |
| | 판심제 | 만회당선생문집(晩悔堂先生文集) |
| 분류정보 | 사부분류 | 집부 - 별집류 |
| | 내용분류 | 고도서 - 영남사림문집 |
| 저자정보 | 저자 | 성명 : 장경우(張慶遇) / 자 : 태래(泰來) / 호 : 만회당(晩悔堂) / 성씨 : 장(張) |
| 간행정보 | 간행년 | 세기: 19 세기 |
| | 발간일 | 세기: 19 세기 |
| 소장정보 | 현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 형태정보 | 책수 | 2 |
| | 권수 | 4 |
| | 책크기 | 16×25.5 cm |
| | 판사항 | 木版本 |
| | 판심 |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
| | 광곽 | 四周雙邊, 半郭;15×17.5 cm, 有界, 10行19字 |
| | 서발문 | 序;...李鍾祥. 跋;壬戌...張斗鉉 |
| | 내용주기 | 晩悔堂 張慶遇의 시문집 |
| | 인기 | 印記 |

해제

만회당(晩悔堂) 장경우(張慶遇)의 시문집, 조선 말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4 권 2 책의 목판본이다.

장경우(張慶遇 ; 1581-1656)

본관은 옥산(玉山), 자는 태래(泰來)이며 호는 만회당(晩梅堂)이다. 아버지는 내범(乃範)이며, 어머니는 한산이씨(韓山李氏)이니 진위장군 운배(雲培)의 딸이다. 장현광(張顯光)의 문하에서 학업을 닦았다.

1592 년(선조 25 년) 임진왜란 때에는 10 여세의 나이로 할머니를 모시고 금오산(金烏山), 청송(靑松)등지를 전전하면서 피란하였다. 1608 년 난 후 학교를 부흥시키고자 [학교의식]을 지어서 학교교육의 지침으로 삼았다. 이듬해 향시에 합격하였으나 서울에서 시행하는 식년과에 응시하지 않고 학문에만 몰두하였다. 정구(鄭逵)가 반대파의 모해로 관직을 삭탈당하자 경상도 내 유생들을 권유하여 함께 변무소(辨誣疏)를 올렸다.

1612 년(광해군 4 년) 어지러워져가는 조야의 모습을 바로잡고자 『저법육설(著法六說)』을 지어 시행하였고, 1621 년 이이첨(李爾瞻)의 행패가 심해지자 「청참이이첨소(請斬李爾瞻疏)」를 올려 이이첨을 참수할 것을 주장하였다.

1627 년(인조 5 년)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며,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는 인동의 병장에 차정되기도 하였다. 효성이 지극하여 어머니의 상에 3 년간 시묘하였다. 『여헌문집(旅軒文集)』을 간행하고 『제선의절(祭先儀節)』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권장하였으며, 화산서당(花山書堂)을 건립하여 후진 교육에 힘썼다. 1654 년(효종 5 년) 학행으로 천거되어 영릉참봉(英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저서로는 『만회당집(晩梅堂集)』이 있으며 후에 옥계사(玉溪祠)에 제향되었다.

『만회당집(晩梅堂集)』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일 먼저 만회선생세계도(晩梅先生世系圖)가 수록되어 있으며 권 1 에는 2 편의 부(賦)와 9 편의 한시, 8 편의 서간문, 3 편의 서문, 4 편의 잡저(雜著), 6 편의 제문이 수록되어 있으며, 권 2 와 권 3, 권 4 에는 부록(附錄)이 수록되었는데, 권 2 의 부록에는 연보범례(年譜凡例)와 연보(年譜)로 구성되어 있고 권 3 의 부록에는 제문(祭文), 뇌문(誄文), 만사(輓詞) 등으로 구성되었고, 권 4 의 부록에는 가장(家狀), 묘지명(墓誌銘), 묘갈명(墓碣銘), 화산강당상량문(花山講堂上樑文), 묘우상량문(廟宇上樑文)과 발문(跋文)이 수록되어 있다. 이종상(李鍾祥)이 지은 서문과 9대손인 장두현(張斗鉉)이 지은 발문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만회당 장경우는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의 고제(高弟)로 시문의 저술에는 치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시와 문장은 수록된 양이 그리 많지 않고 영성한 편이다. 그러나 그의 9대손인 장두현(張斗鉉)은 그 서문에서 장경우의 문장은 문사가 간략하고 이치가 구비되어 있으므로 참다운 마음과 행실이 제대로 드러난 참다운 말이므로 수식과 기묘함을 숭상하는 문사들의 그것과는 구별됨을 특서하고 있다.

우(만사). 신흥망(又(輓詞). 申弘望)

만회당선생문집권지삼(晩梅堂先生文集卷之三) / 부록(附錄)

憶昔從公洛水濱, 搆衣同上杏壇春. 別來悵悵音塵闊, 老去依依夢想頻. 每祝神明扶愷悌, 還驚知

舊漸凋零. 恩霑山野官非薄, 天佑家庭慶未湮.

僊字忍題丁卯榜, 夜臺長閉乙酉辰. 白頭病弟鵝

洲子, 在世猶為一旅人.

明倫彙編 家範典 卷之三

一三

立雪南山下 掘衣泗水濱 畱心明禮樂 憂道志君
民 該博三千牘 藏修七十春 題詩無限淚 吾黨有
何人

又

申弘望

憶昔從公洛水濱 掘衣同上杏壇春 別來怙悵音
塵濶老去依稀夢 想頻每祝神明扶 愷悌還驚知
舊漸凋零 恩霑山野官非薄 天佑家庭慶未湮
僊字忍題丁卯榜 夜臺長閉乙酉辰 白頭病弟鵝
洲子在世猶為一旅人

又

李元圭

운재세고(雲齋世稿) 박중윤 외(朴仲胤 外)

서지정보

| | | |
|------|----------|---|
| 제목정보 | 대표제목 | 운재세고(雲齋世稿) |
| | 권수제 | 운재세고(雲齋世稿) |
| | 표지제 | 운재세고 전(雲齋世稿 全) |
| | 판심제 | 운재세고(雲齋世稿) |
| 분류정보 | 사부분류 | 집부 - 별집류 |
| | 내용분류 | 고도서 - 영남사람문집 |
| 저자정보 | 저자 | 성명 : 박중윤 외(朴仲胤 外) / 자 : 경술(景述) / 호 : 심운(深雲) / 성씨 : 박(朴) |
| | 편자(18세기) | 성명 : 박제황(朴齊璜) / 본관 : 박(朴) / 성씨 : 박(朴) / 생년 : 17세기 / 몰년 : 17세기 |
| 간행정보 | 간행년 | 1880세기: 19세기 |
| | 발간일 | 1880세기: 19세기 |
| | 간행지 | 安東 |
| 소장정보 | 현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 형태정보 | 책수 | 1 |
| | 권수 | 2 |
| | 책크기 | 29.3×20.1 cm |
| | 판사항 | 木版本 |
| | 판심 | 上下內向二葉花紋魚毛 |
| | 광곽 | 四周雙邊, 半郭;19.1×15.8 cm, 有界, 10行 20字, 註雙行 |
| | 서발문 | 序;1880...李敦禹. 跋;金興洛 |
| | 내용주기 | 심운 박중윤 외의 시문집 |

해제

『운재세고』는 반남박씨(潘南朴氏) 박중윤(朴仲胤 ; 1562~1633)과 그의 아들 박정(朴? ; 1590~1653)의 시문 집을 모아 놓은 것이다. 이 문집은 후손 박승규(朴勝珪)가 편집했다.

박중윤의 자는 경술(景述), 호는 낙애(洛厓)·심운(深雲)이다. 아버지는 장사랑 렬(濂)이다. 그는 김언기(金彦機) 문인이다. 1603년(선조 36)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류진(柳軫)·김령(金?)·이준(李竣)·김식(金湜) 등과 교유하였다.

박정의 자는 회숙(晦叔), 호는 표암(漂巖)이다. 중윤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의성김씨로 참봉 사현(士賢)의 딸이다. 권창익(權益昌)의 문인이다. 1627년(인조 5)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참봉에 임명되어 잠시 부임했다가 이내 물러났다. 병자호란 당시 의병으로 출정하다가 도중에 남한산성이 함락되므로 도중에서 한탄하고 돌아왔다. 1638년(인조 16) 강릉참봉(江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았다. 류의남(柳義男)·정칙(鄭?)·김시온(金是?) 등과 김성일(金誠一)·류성룡(柳成龍)·정구(鄭逵)의 문집을 교정하였다.

우(신홍망)(又(申弘望))

淸福古云小如公今孰踰中年滄泮水晚節卧江
 湖安命貧猶樂傳家世有儒佳城曾已卜餘慶驗
 青嶂
 蓮榜才名三十春居鄉重厚衆稱賢驚聞飛雀穿
 瓶穀忍道停輿叫檻前寂寞堂封空四尺淒涼夜
 月幾重圓從今欲信三生語少慰幽明痛纏綿
 又
 憶昔陞堂謁先君下榻時挑燈聞笑語欵膝侍風
 申弘望

儀檣酒逢迎臨江湖歲月移久知筋力健誰料死
 生離忽忽傷陳迹依依起後患書拋當日宅梅發
 去年校路月悲前晚霜風動蕙帷泉臺從此閉如
 海雲哀詞
 又
 上舍南州彦云何遽至斯七旬非不壽雙璧豈無
 兒先執獨零盡餘生倚仗誰年來人事絕回首淚
 沾頤
 又
 學舍江村屢茲暮暮年還恨隔商參翻雲不負平
 辛弘立

갈봉선생문집(葛峯先生文集) 김득연(金得研)

서지정보

| | | |
|------|------|---|
| 제목정보 | 대표제목 | 갈봉선생문집(葛峯先生文集) |
| | 권수제 | 갈봉선생문집(葛峯先生文集) |
| | 표지제 | 갈봉선생문집 건(葛峯先生文集 乾) |
| | 판심제 | 갈봉선생문집(葛峯先生文集) |
| 분류정보 | 사부분류 | 집부 - 별집류 |
| | 내용분류 | 고도서 - 영남사림문집 |
| 저자정보 | 저자 | 성명 : 김득연(金得研) / 자 : 여정(汝精) / 호 : 갈봉(葛峯) / 성씨 : 김(金) |
| 간행정보 | 간행년 | 1792 세기: 18 세기 |
| | 발간일 | 1792 세기: 18 세기 |
| 소장정보 | 현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 형태정보 | 책수 | 2 |
| | 권수 | 4 |
| | 책크기 | 29.1×18.7 cm |
| | 판사항 | 木版本 |
| | 판심 | 內向二葉花紋魚尾 |
| | 광곽 | 四周雙邊, 半郭;19.9×13.3 cm, 有界, 10 行 22 字, 註雙行 |
| | 서발문 | 序;1755...李光庭, 跋;1792...柳張源 |
| | 내용주기 | 갈봉 김득연의 시문집 |

해제

『갈봉집』은 김득연(金得研 ; 1555~1637)의 시문집이다. 김득연의 본관은 광산(光山), 자는 여정(汝精), 호는 갈봉(葛峯)이다.

이 책은 4권 2책으로 석인본이다.

권1에서 권3의 대부분이 시이다. 시는 600여 편 이상이 된다. 권1에는 그가 살았던 주변의 경관, 특히 청량산(淸涼山) 주변의 경관이 시로 묘사되어 있다. 그 외 서원 등에 찾아갔을 때의 감회, 혹은 회암의 시에 차운 한 내용, 계모임에서의 시, 화수회에서 시, 여러 벗들과의 만남의 시 등이 서술되어 있다.

권2에는 계절의 바뀜, 설날 그믐, 새해 첫날, 등의 소재로 자신의 감흥을 서술한 시가 많이 보이고, 만시도 일부 보인다.

권3에는 만시나 주변의 사소한 경물, 혹은 입춘, 대설, 비, 벗 생각들을 소재로 자신의 감흥을 나타낸 시가 많이 보인다. 권4의 서(書)는 단 하나인데 「답교중사임서(答校中士林書)」이다. 그는 이 서간에서 송소 권우의 학덕을 칭송하면서 비지 남치리와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잡저로 「청량산유록(淸涼山遊錄)」이 있는데 기묘년 8월 26일부터 일주일 간의 기록이다. 그는 월천 조목, 또 여러 벗들과 청량산을 유람하였는데 그 동안에 잡영 97수, 청량산 관련 시 백여 편을 지었다하니 대단한 문장이 아닐 수 없다.

그 외에 「지수정기(止水亭記)」, 「용동정사기(龍洞精舍記)」가 있다. 또한 명 장수들이 지은 글이 붙어 있다. 발로는 송소 권우의 문집에 대한 후발이 있고, 「서권동지경참용학고서후(書權同知景慙龍鶴鼓序後)」의 발이 있다. 권4 부록에는 권공(權宏), 이이송(李爾松), 권귀중(權貴中), 김시강(金是口), 김령(金口) 등의 만사가 있다. 그 뒤에 이광정(李光庭)의 행장, 김공(金士宏)의 묘갈명, 허훈(許薰)의 묘갈명후지(墓碣銘後誌)가 붙어 있다. 특이한 것은 별집으로, 별집에는 한글 시가와 시조가 실려 있는데, 시가로는 「지수정가(止水亭歌)」가 있고 시조로는 「산중잡곡(山中雜曲)」이 있다.

김득연은 유일재(惟一齋) 김언기(金彦璣)의 큰아들이고, 어머니는 주부(主簿) 영양(英陽) 남세용(南世容)의 따님이다. 1555년 2월 1일에 안동(安東) 와룡(臥龍) 가야동(佳野洞)에서 태어났고, 1637년 9월 28일 돌아가니 83세였다. 그는 유학자라기보다는 문학자에 가깝다. 특히 시에 능하였던 것 같고, 또한 83세의 장수로 많은 시를 남겼다.

그는 여러 벗과 사귀었는데, 남치리·송소·권우와는 학문을 절차탁마하였으며, 노천 권태일·금역 배용길과는 문예로 서로 권면하였으며 북애 김기·계암 김령과는 절의의 행실을 같이 닦았다. 이러한 바탕으로 그가 만일 그 뜻한 바를 행할 수 있었으면 그 수립한 바가 헤아릴 수 없을 터이지만 그는 끝내 뜻을 지니고 산림 속에서 지냈다. 그러나 혼란한 조정과 썩은 세상을 만나 빈 골짜기에 자취를 감추고 고상한 무리와 숨어 지내며 시와 술로서 서로 선왕의 도를 노래하며 지내면서 욕심 없이 생을 마쳤으니 이른바 온 세상이 더러운데 깨끗함을 지켜간 한 선비라 할 수 있다.

우 [신흥망](又 [申弘望])

葛峯先生文集卷之四(葛峯先生文集卷之四) / 附錄(附錄)

又逝此生懷抱向誰據

又

申弘望

早歲優遊詩禮園平生翰墨浩詞源蹉跎白首蓮
花傍寂寞青山桂樹村一閤諸孫祥鷓峙百年
壽老星尊直緣恩義從先世和淚封章送九原

祭文

柳稷

嗚呼永嘉山河淑氣氤氳篤生羣彥世有聞人尚
矣前輩無以為議我公之生接武而起儒素家風
長物詩書玉貌端潔可想襟裾髻齡典學才地有
餘涉獵諸家咀嚙六經榻穿管膝囊貯車螢糠粃

남고선생문집(南臯先生文集) 박응형(朴應衡)

서지정보

| | | |
|------|------|---|
| 제목정보 | 대표제목 | 남고선생문집(南臯先生文集) |
| | 권수제 | 남고선생문집(南臯先生文集) |
| | 표지제 | 남고문집 천(南臯文集 天) |
| | 판심제 | 남고문집(南臯文集) |
| 분류정보 | 사부분류 | 집부 - 별집류 |
| | 내용분류 | 고도서 - 영남사림문집 |
| 저자정보 | 저자 | 성명 : 박응형(朴應衡) / 자 : 첨백(詹伯) / 호 : 남고(南臯) / 성씨 : 박(朴) |
| 간행정보 | 간행년 | 1871 세기: 19 세기 |
| | 발간일 | 1871 세기: 19 세기 |
| 소장정보 | 현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 형태정보 | 책수 | 3 |
| | 권수 | 6 |
| | 책크기 | 30×20.4 cm |
| | 판사항 | 木活字本 |
| | 판심 | 內向二葉花紋魚尾 |
| | 광곽 | 四周雙邊, 半郭;19.5×15.2 cm,有界,10行 21字,註雙行 |
| | 내용주기 | 남고의 박응형의 시문집 |

해제

『남고문집』은 박응형(朴應衡 ; 1605~1658)의 시문집이다. 박응형의 자는 첨백(詹伯), 호는 남고(南臯), 본관은 고령(高靈)이다.

이 책은 1871년(고종 8)에 7대손 시원(時源)등에 의하여 간행되었다. 그후 1939년 경상도 고령의 남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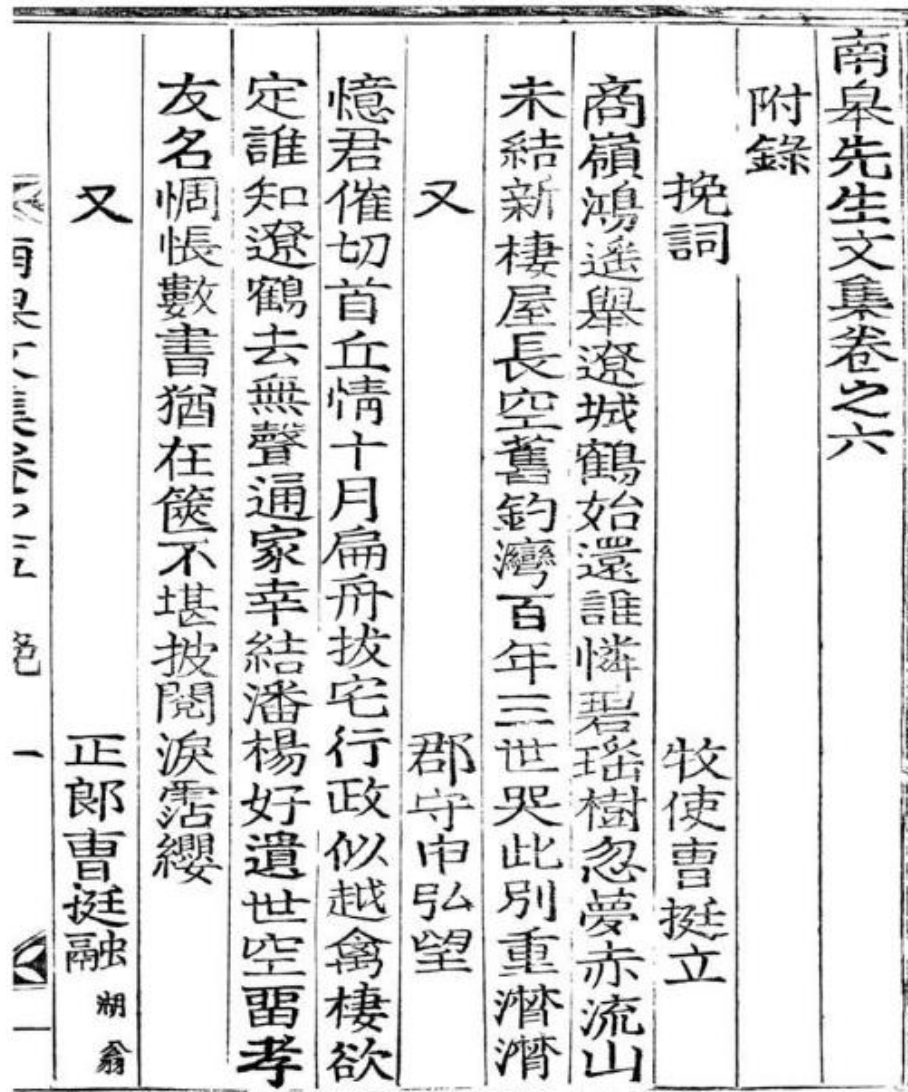
(南阜亭)에서 후 손 재희(在禧)등에 의하여 재간되었다. 박응형의 유문을 시원의 부탁으로 5대손 지국(砥國) 등이 몇 년 동안 편집하여 1798년(정조 22)에 부내정(浮來亭)에서 간행하게 되었다는 발문이 있다.

그러나 그 때에 간행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 후 1810년(순조 10)에 유주목(柳疇睦)이 서문을 쓰고, 1811년에 6대손 경태(慶泰)가 쓴 가장(家狀)이 실려 있고, 역시 1811년에 7대손 시원이 쓴「사림정영상(士林呈營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때에 시원 등에 의하여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김성진(金聲振), 정경세(鄭經世), 유진(柳珍) 등에게서 수학하였다. 1646년 명나라의 침략으로 서울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용문산(龍門山)에 들어가 은둔하여 살면서 송정력(崇禎曆)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 때부터 10여년 동안은 용문산을 비롯하여 소백산, 삼강서원(三江書院) 등지를 왕래하며 시(詩)로서 세월을 보냈다. 1657년에 정경세의 시문집을 교정하였다.

우 [신홍망](又 [申弘望])

남고선생문집권지육(南阜先生文集卷之六) / 부록(附錄)



방호선생문집(方壺先生文集) 조준도(趙遵道)

서지정보

서명 方壺先生文集

저자 趙遵道(朝鮮) 著

현대어서명 방호선생문집

간행년대 "[憲宗 11 年(1845), 後寫]

청구기호 奎 15395-v.1-2

책수 5 卷 2 冊

판본 筆寫本

사이즈 30.2×20.5cm

해제

趙遵道(1576~1665)의 詩文集. 그가 죽은 지 약 2백년이 지난 1845년(憲宗 11) 후손들의 주선으로 開刊된 책이다. 趙遵道는 벼슬은 불과 司憲府 監察을 역임한 데 지나지 않은 사람이지만 일찍이 鄭述·張顯光·鄭經世 등 당시의 巨匠들과 從遊했다. 그리고 丁卯·丙子 등 양차에 걸친 外亂에는 또 향리에서 義兵·義糧을 모집, 이른바 '點兵殫 軍에 殫誠渴力을 하였다'는 기사로 보아 忠義之士였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그가 '崇 禎甲申以後'로 매년 日曆위에 '春王正月'을 써 놓고 明나라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崇禎思想에 투철했던가 하는 것을 짐작할 만하다. (卷3)에 수록된 <丁卯錄>·<丁丑日錄> 등 병자호란과 관계되는 글들이 그러하다. 즉 <丁卯錄>은 丁卯胡亂 때 그가 향리에서 義旅 활동을 한 사실을 기록한 日記식 文章이다. 그의 이러한 의분이 간간히 점철돼 있는 것이다. 그리고 <丁丑錄>은 丙子胡亂 당시의 日記 로, 역시 '中國衣冠 將歸於左' 운운하는 강개한 귀절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극히 부분적인 지방의 활동상황에 국한된 기록이고 또 그나마 완전한 文字가 아니고 缺字 부분이 많은 기록이라, 자료적 가치는 대단한 것이 아닌 듯하다. 鄭宗魯·姜必孝 2人 의 序文과 및 16張에 걸쳐 기술된 비교적 자세한 연보를 책머리에 수록하고 있다. (卷1):詩(與梧峯登樓有吟 등 128수). (卷2):書(上東溪兄 등 7편), 呈文(呈道伯文 등 2 편), 記(自逸山記 1편). (卷3):日錄으로 疏會日錄(光海君 元年 五賢陞무에 관한 논의 가 났을 때 湖南에서 李彥迪을 반대하는 움

직임이 있으므로 이에 반기를 들고 疏를 올렸던 일을 日記식으로 기록한 것. 同年 5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의 활동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丁卯錄> (天啓 7년 正月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그 향리에게 활동한 의병 기록. 日記식 문장으로 丁卯胡亂 때 이야기다).

<留京日錄> (1629, 仁祖 7 己巳 5 월 그가 主簿 벼슬을 가지고 경성에 간 일로부터 辛未[1631] 6월 8일까지 이곳에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것. <日錄>이라 하였지만 분량은 겨우 6장반에 지나지 않으며 내용은 주로 당시의 明·淸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을 들은 대로 적은 것이다). <丁丑日錄> (丙子胡亂 당시 그가 향리에서 義兵·義糧을 모집 활동하던 사실을 적은 것. 丁丑 正月 1일부터 同 3월 19일까지의 日記). (卷4)識(題日錄卷後·敬書耐軒公筆帖後 등 2수), 祭文(祭寒江鄭先生文 등 4수), 墓表(折衝將軍龍??衛副護軍李公墓表 등 2수), 墓誌(本生考贈判書望雲亭府君墓誌 등 2수). (卷5) 부록: 輓詞(柳仁培 등 14인의 글), 祭文(申弘望·柳萬輝 등 2인의 글), 行狀(金公 기록)·墓碣銘(李栽 撰)·墓誌銘并序(洪義浩 撰)·遺事(七代孫 基永 謹書) 등 본인의 신상에 관한 기록 4 건. 이 밖에 이 附錄에는 다시 <敬書先祖方壺公日錄後> 등 후인의 文字와 <風樹堂記> 등 본인의 거처와 관계된 文字, <請褒贈上言> 등 뒷날 그를 포상할 것을 청했던 글들이 있고, 마지막에 다시 柳致皓의 跋文이 있다.

